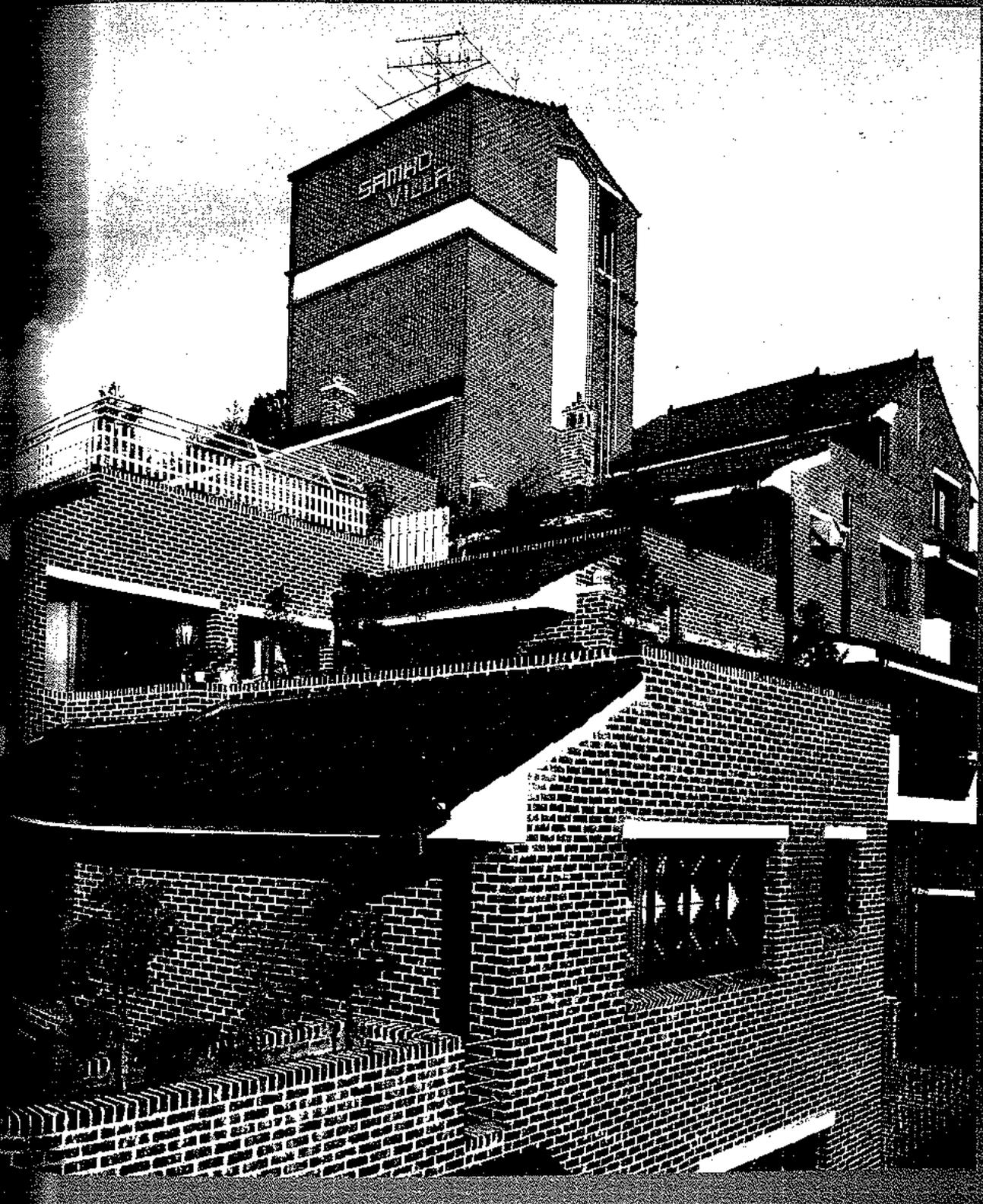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 1985年11月 第209号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85.11



화학주식
의도동43(이원빌딩15·17층)
성원동 45-25 TEL

반 주거환경

축음 단열재 청색
상승효과가 뛰어나
추운 합니다.
없는 위생적인 현
스치로풍로 아늑한

이하세요.

축음은 정부가 인정
수가 되어 있습니다

-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높이기
이므로 난방을 절감할
되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 여름에는 알지니 효과가
온도를 낮추어 줍니다.
-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뛰어난
성능으로 쾌적한 실내환경
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불연재로 화재에 안전하며
공기 오염이 없습니다.
- 우수한 단열성 때문에
하루소비가 절약됩니다.

로폴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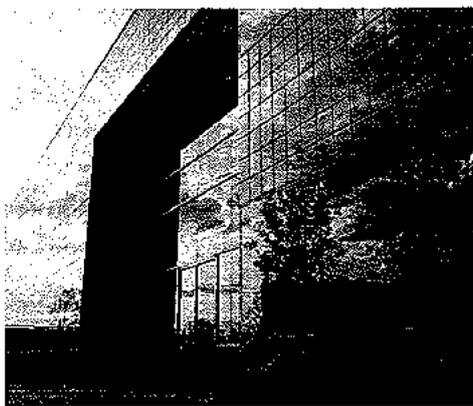


세계는 지금 대형타일의 시대!

이제 건축에 "삼영점보타일"의 돌격이 일고 있다.

삼영점보타일은 종전의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대형 타일을 국내최초로 삼영요업에서 개발시판하여 우수한 대형타일의 새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 특징**
- 자기질 내한성 타일로서 흑한에도 동파현상이 없습니다.
 -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나 비위생적인 곰팡이나 잡균·벌레의 서식을 막아주므로 주거공간을 항상 쾌적하게 해줍니다.



(200mm×300mm 건물외벽시용예)

- 규격이 균일하여 시공이 정확하며 시공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고품 건물의 P-C 공법이 용이합니다.
- 천연 화강석, 대리석의 대체효과가 높은 고급건축자재이며, 세계적인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되어진 다양한 칼라와 디자인은 미를 추구하는 당신에게 큰만족을드릴 것입니다.
- 수입대형타일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규격
 150×150mm, 144×194mm, 200×200mm
 200×300mm, 300×300mm, 400×400mm
 300×600mm, 기타 특수 규격은 주문에 의해 생산됩니다.

타일종합메이커

삼영요업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02) 757-2295~6
 부산사무소 ☎ (051) 44-6390, 463-6390
 공 장 : 경남 김해군 진영읍 하계리
 ☎ (0525) 5-2017·3792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5年 11月 15日 発行

1985.11 NO.200

目次

發行人 = 吳雄鎬
編輯 = 出版事業部

編纂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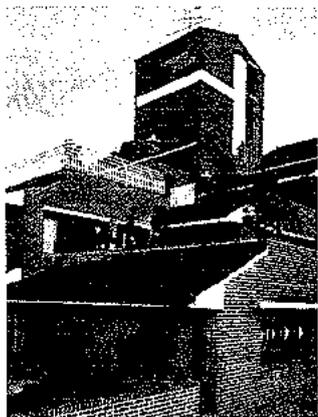
委員長 李永熙
副委員長 全麟
委員 姜哲求
委員 金瑛碩
委員 徐千權
委員 金基雄
委員 呂鴻九

發行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山61-3
郵便番號 = 135
電話 - 서울 (02) 文 581-5711 (代)
5712, 5713, 5714
登錄番號 = 第24-1251
登錄日字 =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 (054-2) : 0612 (519)
印刷人 - 全允瑛
(濟文精版社 / 712-2329)

建築士憲章

- 建築士는 建築師 業人으로서 藝術力을發揮하여 建築文化 推進에 이바지 한다.
-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空間과 環境의 改善을 위하여 建築士 業人으로서 責任을 遂行한다.
- 建築士는 技術開發과 建築物에 實效 向上을 위하여 專門人으로서의 使命을 사한다.
- 建築士는 誠實과 公正을 바탕으로 會員 相互間에 協同하여 藝術의 品位를 保存한다.
- 建築士는 社會의 自負心을 가지고 國家建設의 進歩에 協力한다 社會에 敬重의 眼으로 奉仕한다.

大韓建築士協會



표지설명 : 이태원 테라스 하우스
• 설계 : 김준웅 사진 : 임정희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동권 제218호
구입년월일	19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	



- 8 ● 創立20周年 紀念辭
- 10 ● 創立20周年紀念 建設部長官 致
- 12 ● 協會消息
- 22 ● 創立20周年을 祝賀합니다
 - 成年을 맞는 建築士協會 · 金眞一
 - 建設役軍으로서의 分發과 노력을 · 羅相紀
 - 第2中興의 期約에 期待를 · 安京模
 - 設計技術向上의 求心點 되기를 · 李載濬
- 26 ● 新任任員人事 · 安將元, 李文雨, 宋基德, 鄭孝煥
- 28 ● 日本 제28회 建築士會全國大會參觀記 · 申貞桓
- 32 ● 1986年度 主要事業計劃
- 35 ● '85會員建築設計作品公募展 入賞作 發表
 - 大賞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金春雄
 - 最優秀賞 카톨릭사회교육관 金孝一
 - 優秀賞 서울상공회의소 회관 金正澈
 - 優秀賞 제주 천제루(天帝樓) 張順鏞
 - 獎勵賞 평창동 J씨댁 徐鎮宇
 - 獎勵賞 강남원 빌라 禹南龍
 - 獎勵賞 대신신영증권 사옥 宋基德
 - 獎勵賞 경남대학교 본관 姜泰錫
 - 獎勵賞 코리아씨티 李龍欽
 - 獎勵賞 K교수댁 俞景哲
- 51 ● '85會員建築設計作品展 審査를 마치고
韓鍾彦 · 朴胤成 · 劉熙俊
- 55 ● '85會員建築設計作品展 受賞을 하고
- 58 ●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 20年 回想의 窓가에서 · 張起仁
 - 이제부터는 地位向上을 · 姜明求
 - 20年의 回顧 · 韓昌鎭
 - 벗들에게 感謝하며 · 李圭福
 - 더욱 合心 叡智를 모아 · 金萬盛
 - 協會創立20돌을 맞으며 · 金斗燮
 - 20周年 有感 · 具玠會
 - 會員을 위한 協會로서 方向定立
 - 協會發展과 士法 22條와의 相對性 關係 · 姜奉辰
- 71 ● 다세대주택설계계획안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 25 ● 일하며 생각하며 / 建築悔恨 · 尹始德
- 86 ● 古建築을 찾아서 / 昌慶宮 通明殿 · 張順鏞
- 92 ● 建築藝術論考 (1) · 崔椿煥
- 96 ● 정화칼럼 / 바람직한 건축사 像 · 姜상진
- 97 ● 感傷紀行 3 · 金錫澈

협회창립20주년행사 성대히 거행

本協會 創立20周年紀念式이 10월 23일 오전 11시 金聖培 건설부장관을 대리한 李寬永 차관, 朴翊柱 國회건설위원장, 朴權欽 國회문공위원장, 金炯來 國회건설위원, 全炳宇 國회건설위원, 韓國건축가협회 羅相紀 회장, 大韓건축학회 金眞一 회장, 建設기술연구원 安京模 원장, 大韓주택공사 李和永 부사장, 주택사업협회 崔鍾聲 회장과 본협회 역대회장단,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인사, 본협회 전국시도지부장, 협회 代議員 및 회원 등 700여 賀客이 운집한 가운데 本協會 강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吳雄錫 회장은 紀念辭를 통해 「20년전 오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책상 몇개 놓고 시작하였던 우리 협회가 오늘 이렇게 훌륭한 建築士會館을 짓고 창립2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어 실로 대견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우리 建築士들은 建築設計와 감리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住生活 改善에 크게 이바지 하자」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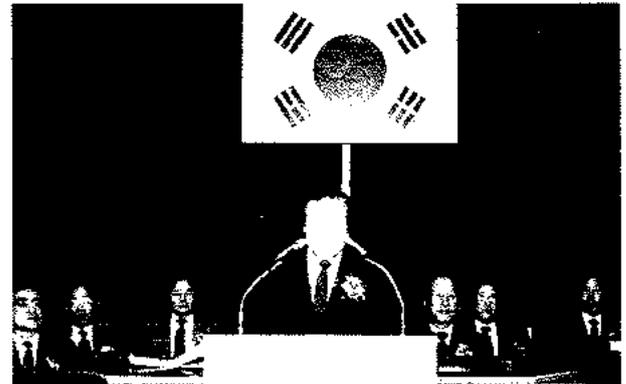
기념사하는 吳雄錫 회장

주년기념 축

대한건축사협회



축사하는 李寬永 건설부차관



축사하는 朴翊柱 국회건설위원장



축사하는 朴權欽 국회문화위원장



축사하는 金炯來 국회건설위원



'85 會員建築設計作品 巡迴展 開幕

— 大賞에 金春雄 회원이 수상 —

本協會 創立20周年 紀念行事를 겸한 '85 회원건축 설계작품순회전시회 서울展示會가 建設部長官을 대리하여 참석한 李寬永 차관과 吳雄錫 본협회 회장을 비롯한 歷代會長 및 건축관계 인사들의 테이프 커팅으로 그 화려한 幕이 올랐다.

本협회가 매년 일반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의 창작의욕을 북돋아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건설부 후원아래 개최하고 있는 본 순회전시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건축전 가운데 출품작 수준이나 그 규모면에서 권위있는 건축행사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회원

회장: 대 문



'85 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 개막식 장면



장필환장은 대문협 강봉진 회원에게 감사패 수여



협회창립에 기여한 박두하 회원에게 감사패 수여

대한항공 창립 50주년 기념식

신정호 회장



회원직업 대상을 차지한 김훈웅 회원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강홍기 지명



공로회원인 대표인 황재호 회원에게 감사패 수여



다세대주주 당선자에게 시상



이날에 참석하는 이관영 전실무차관, 김중환 학원



기념식을 마치고 오찬 장면

協會創立 20周年 紀念辭

오늘 뜻깊은 大韓建築士協會創立 20周年일을 맞이하여 尊敬하는 金聖培 建設部長官을 대리하여 참석하여 주신 李寬永 次官, 朴翊柱 國會建設分科委員長, 朴權欽 國會文公分科委員長, 金炯來 國會建設委員, 金炳宇 國會建設委員과 貴賓 여러분, 그리고 金眞一 大韓建築學會 會長, 羅相紀 韓國建築家協會 會長, 本協會 創立會員, 先輩, 同僚會員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紀念式을 舉行하고 紀念辭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協會는 20年前 오늘인 1965년에 建築士法에 의거하여 創立會員 193名으로 出帆 하였습니다. 回顧컨대, 1963年 12月 16일에 建築士法이 제정되었고 1965年 4月 25日~26日 兩日에 있었던 제 1회 建築士資格試驗을 거쳐 599名의 建築士가 탄생된 것을 비롯하여 금년에 이르기까지 20회에 걸쳐 총 3,592名(2級 855名 포함)의 建築士가 탄생되었으며 그중 2,300여명의 事務所 開設會員이 모여 오늘날의 協會를 構成하여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年前 오늘 조그마한 사무실에 책상 몇개 놓고 始作하였던 우리 協會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建築士會館을 짓고 20周年 紀念式을 거행하게 된 것을 실로 대견하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建築士들은 그동안 建築設計와 監理活動을 통하여 國家와 社會發展에 기여하였으며 國民의 住生活 改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미약하였던 協會를 成年이 된 이 時點까지 指導·育成하여 주신 建設部를 위시한 關係部署와 國民 여러분에게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全會員과 더불어 一貫된 忍耐와 努力으로 基盤을 구축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여 오늘의 健全한 成年期를 맞이하게 한 우리 協會의 歷代 會長과 任員 여러분에게 尊敬과 뜨거운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協會가 오늘의 영광을 갖게 된 것은 우리 協會 會員 全員이 一致團結하여 自己 희생을 무릅쓰고 社會와 同僚들을 위하여 募金하여 쌓아 올린 金字塔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다져진 이 터전을 발판으로 하여 協會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會員의 權益 伸張을 圖謀하고 나아가서는 建築文化 발전을 통하여 國家와 社會에 이바지하여 우리들의 맡은 바 사회적 직분을 다하도록 努力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法の 保護아래 확고한 사회적 위치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 앞에는 하여야 할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補完하여야겠으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사회의 指導者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專門人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關係法令의 補完 發展等 우리들의 活動與件을 개선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協會는 廣範圍한 委員會 活動等을 통하여 總力化 體制로 邁進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유스러운 雰圍氣에서 마음껏 設計活動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성실한 노력으로 사회인으로서의 福祉問題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開發途上國中 先進隊列에서 各種 國際行事 等を 통하여 세계의 集中된 관심속에서 發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낡은 건물을 再開發하고 부족한 住宅難을 해결하기 위하여 奉仕하여야 하며 우리들의 都市와 住居環境을 地上의 樂園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상이 물려준 훌륭한 韓國固有의 傳統建築을 이어받았습니다. 現代建築이 國際化 時代로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이 땅에 지어지는 우리들의 建築은 傳統의 얼을 심고 발전시켜 이어나가도록 努力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一面 건전한 建築界의 風土를 조성하고 職業倫理觀을 정립해 나가며 建築不條理를 과감하게 遂出하는 自律淨化를 적극 推進하여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造形藝術人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建築士의 職分을 다하여 찬란한 이 나라의 建築文化를 繼承 발전시켜 後孫에게 멋진 文化的 遺産을 물려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會員 相互間의 友愛와 信義로 協同團結하여 스스로의 名譽와 品位를 보존하며 국가와 사회에 奉仕하는 建築士像을 定立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感懷깊은 協會創立 20周年을 맞이하여 그동안 닦아온 基盤과 자라난 힘을 통하여 이제는 발전하여 前進하는 協會가 되도록 努力할 것을 再三 다짐하며

끝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이 萬事亨通하시고 건강하시며 가정이 多福하시기를 기원하며 紀念辭에 加름합니다.

1985. 10. 23

會 長 吳 雄 錫

建設部長官 致辭

오늘 大韓建築士協會 創立20周年 紀念의 뜻깊은 자리에서 國會建設委員長님, 文公委員長님과 建築士를 비롯한 内外貴賓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이 致辭를 드리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大韓建築士協會는 20년전 不過 120여명의 會員으로 출발하였으나 그동안 協會 任職員과 會員 여러분의 合心 努力의 결과 2,300여명의 會員을 包容한 큰 단체로 成長하였을뿐 아니라 建築士라는 專門 職種으로 社會的 地位와 權益이 急伸張된데 대하여 建設部長官으로서 眞心으로 敬賀하여 마지않습니다.

建築士 여러분!

우리나라의 建築士制度는 무질서한 建築物의 量産을 방지하고 建築物의 質的向上과 公共福利의 增進을 기하기 위하여 1960년대 初에 시행된 것으로 당시에는 建築物의 量的·質的 水準은 보장되지 못한 狀態이었으나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본격적 추진으로 국가 經濟의 高度成長과 國民소득의 향상에 힘입어 각종 建築活動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建築士 여러분의 지위가 더욱 확고하게 되었음은 물론 建築文化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이 靑睞할만큼 擴大된 것을 마음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우리는 國內외의 重疊했던 飢饉과 難國을 즐거움게 克服하고 安정을 되찾아 國內적으로는 福祉社會의 建設, 正義社會를 具現하는 한편 對外적으로는 우방과의 友好增進을 통한 세계속의 韓國으로서 위치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建築人은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며 祖國繁榮에 기여하는 것인가를 精確히 인식하고 專門知識人으로서의 矜持와 使命感을 가지고 새 역사 창조에 더욱 精進있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창립20주년의 紀念行事가 앞으로 30년, 50년의 無窮한 將來의 발전을 기약하기 위한 뜻있는 行事라고 하는 점에서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의 일단을 피력코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建築物이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그시대의 文化의 産物로 後代에 물려 주어야 하는 文化遺産인 것입니다.

따라서 建築物에는 조상의 얼과 전통이 살아 숨쉬어야 하고 現代의 技術과 文化 感覺이 조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개최국으로 우리의 국력과 전통문화를 세계 만방에 과시할 歷史的 大祭典을 앞두고 있어 건축사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傳統과 技術 그리고 藝術感覺이 승화된 건축물이 창조될 수 있도록 전력을 傾注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창문하나, 벽체하나의 조그마한 설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苦惱 어린 연구노력으로 기술의 개발과 우수자재의 생산이 誘導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등도 함께 감안되도록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생각하여야 할 것은 일부 建築人에 의한 不條理와 違法 建築物의 발생입니다.

소수의 이같은 사례는 善良한 대다수 회원들의 名譽에 累가 됨은 물론, 정부에 대한 不信과 建築文化의 발전을 阻害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 회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自己革新 運動에 傘先垂範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성대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建築文化 暢達에 기여할 회원 여러분의 決意가 다시 한번 다져질 것을 期待하면서 앞으로 協會와 建築士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5년 10월 23일

建設部長官 金 聖 培

創立20周年 紀念式 거행

700여 내외빈 참석



本協會 創立20周年 紀念式이 10월 23일 오전 11시 金聖培 건설부장관을 대리한 李寬永 차관, 朴翊柱 국회건설위원장, 朴權欽 국회문공위원장, 金炯來 국회건설위원, 金炳宇 국회건설위원, 한국건축가협회 羅相紀 회장, 대한건축학회 金鎮一 회장, 건설기술연구원 安京模 원장, 대한주택공사 李和永 부사장, 주택사업협회 崔鍾聲 회장과 본협회의 역대회장단,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인사, 본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支部 代議員 및 회원등 700여 賀客이 운집한 가운데 본협회 강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吳雄錫 회장은 紀念辭를 통해 「20년전 오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책상 몇개 놓고 시작하였던 우리 협회가 오늘 이렇게 훌륭한 建築士會館을 짓고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어 실로 대

견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 建築士들은 建築設計와 감리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住生活 改善에 크게 이바지 하자」고 말하였다.

이어서 金聖培 건설부장관을 대리한 李寬永 차관의 치사가 있었는데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각종 건축활동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建築士 여러분의 지위가 확고하게 되었음은 물론 건축문화의 창조자로서 역할이 팔목 할만큼 확대된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치하였다.

이어서 朴翊柱 국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날 이처럼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건축사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이 성심성의로 단합된 노력을 다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를 하였고, 朴權欽 국회문공위원회 위원장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문화를 후세에게

朴翊柱 國會建設委員長 祝辭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20주년의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본인이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협회가 발족한 이래 그동안 임직원과 2천3백여 회원 여러분들이 합심 노력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을 거듭하여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문화 민족으로 선조가 장들이 이룩해 놓은 찬란한 건축문화의 유산을 잘 보존유지해 왔으며 오늘날 우리나라는 70년대의 고도성장을 발판으로 안정적 기초위에서 지속적 성장을 착실히 다져 가면서 선진조국과 복지사회 건설에 정부와 온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새로운 시대가 여망하는 민족 고유성이 강조된 공간설계와 건축문화 창조에 여러 회원들의 혼신의 활동력을 집중시켜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우리의 국력과 문화를 세계만방에 과시할 인류의 대제전인 86, 88 대회가 개최될 각종시설과 경기장물이 건축사 여러분의 창작활동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며 앞으로 세계속의 아름다운 한국을 만들어 주실 국토개발 설계 문제도 건축사 여러분의 역할과 임무가 후세 역사에 빛나게 하는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는 막중함을 제삼 느끼게 합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귀 협회도 어언 스무들의 연륜을 맞이하여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창립이후 오늘날 이처럼 성년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건축사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성심성의로 단합된 노력없이는 달성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협회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을 바라면서 20주년 기념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985. 10. 23.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겠고, 우선 상업주의적인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더욱 차원높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오늘의 문화를 표현해 주었으면 한다」고 격려를 했다.

江南區 출신 金炯來 國회건설위원회 위원은 「20년동안 협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이 나라의 건축문화 발전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建築士 여러분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내빈의 축사에 이어 '85 회원건축설계 작품전 시상작에 대한 施賞이 있었는데 대상(건설부장관상)을 차지한 이태원 테라스하우스(金春雄, 상지·필건축)에 대한 시상은 건설부장관을 대리한 李寬永 차관이 행하였다.

紀念式은 약 1시간만에 끝났으며 이어서 전시장 입구에서 창립20주년 기념 행사를 겸한 '85 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 의 막을 여는 개막식 테이프 커팅이 거행되었다. 제1·제2전시장에는 전시작품과 함께 축하연도 준비되어 출품작을 둘러본 직후 오찬을 겸한 자축연을 벌였다.

'85 會員作品 巡廻展 開幕

— 大賞 (건설부장관상)은 이태원 테라스하우스가 차지 —

'85 회원 건축설계 작품 전시회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건설부



本協會 創立20周年 紀念行事를 겸한 '85 회원건축설계작품순회전시회 서울展示會가 10월23일 建設部長官을 대리하여 참석한 李寬永 차관과 吳錫錫 본협회 회장을 비롯한 歷代會長 및 건축관계 인사들의 테이프 커팅으로 그 화려한 幕이 올랐다.

본 협회가 매년 일반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의 창작의욕을 북돋아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건설부 후원아래 개최하고 있는 본순회전시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건축전 가운데 출품작 수준이나 그 규모면에서 권위있는 건축행사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본협회에서는 이번 展示會를 위해 3

朴權欽 文公委員長 祝辭

前任 國會建設委員長이었던 인연으로해서 특별히 제가 초청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文公委員會도 여러분과 전혀 관련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建築士法을 개정 할 당시 委員長이였습니다만은 그때 이 자리에 계신, 현재 신민당 원내부총무 이시고 아직도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金炯來 委員과 더불어 여야가 힘을 합쳐서 建築士法을 개정함으로써 여러분의 活動 領域을 넓히고 여러분의 權益을 향상시키는데 一助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며칠전 J일보사가 타임캡슐이라는 것을 남산에다 묻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文化所産으로서의 여러가지 물건들을 그 속에 넣어 500년 후쯤가서 고고학자 또는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파내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분의 발자취를 좇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저는 인류역사는 건축사 여러분의 발자

취를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여러분의 작품이 500년 후쯤가서 그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 민족의 능력을 역사속에서 평가받는 결과와 똑같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에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에 본인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使命意識을 가지고 훌륭한 문화를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商業主義的인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더욱 次元 높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오늘의 문화를 표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文公委員長으로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전승과 전장을 기원합니다.

1985. 10. 23

협회소식 1985. 11

개일 전부터 2천3백여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작품을 모집하였으며 특히 보다 많은 지방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마감기를 늦추어 가면서 회원의 출품을 독려, 총출품작 가운데 28%의 출품 성과를 올리게 하였다.

유형별 출품내용을 보면 주거부문 16점과 업무시설 26점, 교육시설 7점, 의료시설 9점, 종교시설 5점, 기타 17점으로 다양한 내용의 작품이 출품되어 회원들과 건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뜻있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작품 부문

상 별	수 상 자	소 속	작 품 명	시 상
대 상	金 春 維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이태원테라스하우스	건설부장관상
최우수	金 孝 一	원건축사사무소	카톨릭사회교육회관	협회장상
우 수	金 正 澈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상공회의소회관	협회장상
우 수	張 順 鎭	삼성건축사사무소	제주천제루	협회장상
장 려	徐 鎭 宇	건축사사무소 하나	평창동 J씨대	협회장상
장 려	禹 南 龍	가나건축사사무소	강남원빌라	협회장상
장 려	俞 景 哲	(주)종합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과천 K교수대	협회장상
장 려	宋 基 德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신+신영증권사옥	협회장상
장 려	姜 泰 錫	(주)한전종합건축사사무소	경남대학교 본관	협회장상
장 려	李 龍 欽	일신건축사사무소	코리아씨티	협회장상

金炯來 國會建設委員 祝辭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창립20주년을 맞이한 建築간지를 축하 합니다.

특히 오늘의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은 建築人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그 歷程이 드디어 성년의 20세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시인 서정주 선생은 <환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고 소쩍새 봄부터 울었나보다>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그 수많은 날을 먹구름 속에서 울었는데 각박한 이 經濟의 흐름속에서 建築士 여러분들이 이 會館을 마련하고, 창립 20주년이 있기까지 그간의 勞苦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成年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사회가 활달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에서부터 두부, 콩나물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잘 되어야 할 것이 바로 建設이라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建設이 잘 되어야 나라산업 전반에 활력이 넘치며 建設이 잘 되어야 이른바 분석상으로 볼때 그 파급 효과가 가장 커서 연관산업의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1960년대의 그 정치와 경제가 가물거리던 와중에 建設마저 없었더라면 이 나라의 형태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일에 建設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진즉 부도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建設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활로의 첨경이며, 基本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늘 관심을 갖고, 우리 黨과 이 사람의 기본적 사상, 그 관심이 民主主義에 있지만은, 11대에 이어서 12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建設委員으로 남아 있습니다. “建”자가 붙은 일이라면 지금까지 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또 國會建設委員으로서 여러분들의 이 간치

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참여를 한 것입니다.

옛부터 생활의 기본요건은 의식주라 했습니다. 먹고, 입고,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먹는 것, 입는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본적 문제는 “住”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딩이라도 좋고, 임대주택이라도 좋고, 13평짜리 단독이라도 좋습니다. 이것들 모든 것이 국가의 재정과 산업분석 속에서 해결될 것이로되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建設이 없이 발전이 없다면 建築士 없이 建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나라 초석이며, 발전의 역군이며, 견인차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國會가 주목하고 우리 黨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발길과 애정어린 그 손길이 아니라 建設을 살릴 수 있으며 살려야만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직이나 사물에는 잉태기가 있습니다. 태동기가 있습니다. 진통기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습니다. 성년기가 있습니다.

建築士 여러분들은 이제 성년 20년을 맞이해서 이제 躍進의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建設市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용기와 사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의 손끝 하나 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 하나가 이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이 나라 전체의 建築文化를 좌우한다는 創作的인 矜持와 自身과 勇氣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會員 여러분들의 사랑과 전투를 빌고 建築士協會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소식 1985. 11

□ 논문 부문

우수 장려	李應黥 田鳳秀	건축사사무소 새한 (주)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화엄사목조건축물실측보고 Top Down 공법과 설계자	협회장상 협회장상
----------	------------	-----------------------------	----------------------------------	--------------

(논문부분은 본회 편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

□ 심사위원

• 위원장	吳雄錫 (본협회장)
• 위원	柳常悅 (건설부 주택국장)
위원	朴胤成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고려대 교수)
위원	劉熙俊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 한양대 교수)
위원	韓昌鎭 (前회장 · 한정건축)
위원	張起仁 (前회장 · 삼성건축)
위원	金枝泰 (前회장 · 삼아건축)
• 간사	韓鍾彦 (본회건축위원회 위원장 · 금성건축)

금년도 전시회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부산(86. 2. 1~2. 7), 대구(86. 2. 10~2. 16), 광주(86. 2. 19~2. 25), 전주(86. 2. 28~3. 6), 대전(86. 3. 9~3. 15), 수원(86. 3. 18~3. 24), 인천(86. 3. 27~4. 2), 춘천(86. 4. 5~4. 11) 지역을 순회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에 앞서 대상(건설부장관상) 및 최우수상(협회장상), 우수상(협회장상) 그리고 장려상(협회장상)을 선정하기 위한 3차의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출품작의 수준이 예년에 비해 뛰어 났다는 의견에 심사의 평이 모아졌다.

第20會 定期總會 開催

— 任期만료 임원등 改選 —

정관개정 (회원 10인에 대의원 1인으로)

본 협회 제20회 定期總會가 10월 23일 창립20주년 기념행사 뒤 오후 2시부터 본 협회 강당에서 전국대의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자율정화추진 결의대회를 겸한 이날 총회는 吳雄錫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국민교육헌장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건축사헌장 낭독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정화결의를 다지는 결의문 채택의 순서가 있었다.

이날 吳雄錫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는 건전한 건축계의 풍토를 조성하고 직업윤리관을 정립해 나가며 건축부조리를 과감하게 척출하는 자율정화를 적극 추진하여 조형예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축사의 직분을 다하여 찬란한 나라의 건축문화를 계승발전시켜 후손에게 몇몇한 문화적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여야 겠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우리들은 회원 상호간의 우애와 신의로 협동단결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건축사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吳雄錫 회장은 '85회원건축설계 작품전에서 선정된 최우수작(협회장상),



우수작(협회장상) 및 장려상(협회장상)에 대한 시상과 메달을 수여하고, 다세대주택현상설계계획(안)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하였다.

또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모범직원 표창도 있었는데, 본부 3명, 서울지부 3명, 부산지부 2명,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부에서 각 1명씩 표창되었다.

추대회원 9명 추대 창립회원에 기념패 전달

吳雄錫 회장은 이어서 9명의 고령회원에게 추대회원증을 수여하였다.

추대회원은 매년 해당회원을 선정해서 총회에서 추대하게 되며 역대회장과 회원중 만65세 이상이 되는 회원이 대상자가 된다.

이날 추대회원으로 추대된 회원은 부

협회소식 1985. 11



창립회원을 대표한 강봉진 회원에게 감사패 수여



다세대주택 당선자에게 시상

산지부소속회원 3명, 충남지부소속회원 2명, 인천, 경기, 강원, 전북지부소속 회원 각 1명씩이다. (추대회원 명단 참조)

이어서 창립회원에 대한 기념패 증정이 있었는데 창립회원으로서 20여년간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리는 뜻에서 창립20주년을 맞아 기념패를 전달 하였다.

또한 공로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건설부 주택 국장을 비롯한 4명에게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회의는 이어서 1985년도 임시총회 회의록을 이의없이 승인·통과시켰으며 그 간의 주요업무가 보고되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된 업무 가운데 주요업무를 요약 해보면 회관준공 기념식거행, 한·일건축사교류 촉진각서조인, 민정당간담회참석, 건축관계언

론인과의 간담회개최, 국회건설분과 위원회 주최 간담회참석, 건축3단체조 찬회개최, '85건축사시험(특별전형) 대비교육 실시, '85건축사연수실시, A. I. A 총회참석, 건축사법시행령개정, 감사원정책 자료수집협조, 일본건축계시찰단파견, 병원건축설계 세미나개최, 다세대주택설계계획(안) 현상공모, 회원친목체육행사개최,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참석, '85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 회원자질향상, 회원업무개선, 회원복지증진등 42개 항에 이르고 있다.

協會運營 전반 監査報告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12일 까지 협회본부 및 산하 13개 시도지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행정 및 경리부문으로 나누어 柳根洙 감사와 李康植 감사가 각각 보고했다.

柳根洙 감사는 감사결과 총평을 통해 「우리협회는 창립20주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그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협회업무는 발전되어 안정의 기반에 도달하였다 하겠으나 아직도 감사지적사항 이행에 미흡함이 있다」고 말하고 지나간 지적사항이라도 시정토록하여 계속연구 검토하고 협회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검토결과 대체적으로 많은 사항이 시정되었으며 개선사항 역시 협회(지부포함)에서는 직원들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으로 개선작업을 실시하여 기개선 또는 추진중으로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현저히

향상된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나타났으므로 계속해서 창의성과 책임성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여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李康植감사는 경리부문 감사결과 개선사항으로 「회관관리 공과금으로 월별로 오몰수거료, 전기보안대행수수료, 회관옥내의 소득(2개월 1회) 만기별 한국소방협회비등은 사용임대면적비의 공과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밖에 본부 및 지부의 시정사항을 세부적으로 열거했다.

事業計劃 및 収支예산(안)승인

特別會計 수지예산(안)도

휴식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8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특별회계수지 예산안이 상정, 축조심의를 거쳐 처리되었다.

원안대로 승인된 86년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각 시도지부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사업추진, 건축위원회 및 제도위원회의 연구활동의 활성화로 회원복지증진 및 업무개선의 효율적추진, 회원의 품위보전 및 기술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건축실무 및 신공법 기술보급사업 전개, 건전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계몽 활동강화, 건축사의 품위와 질적 향상도모로 건축문화 발전기여, 회원의 작품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회원건축 설계 작품순회전시회개최, 선진의국과의 국제교류에 의한 유대강화 및 정보수집, 협회업무 및 회원에 대한 홍보활동강화등의 사업계획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부사업의 활성화를 좀더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내의 조사연구비, 지도사업비, 행사비, 홍보선전비, 세마을사업비등의 5개 과목을 대목화(大目化)하여 지부사업비로 개편하여 단일과목으로 편성하는등 총규모 18억 2천 4백만원의 8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항목은 사업예산으로는 월정회비와 실적회비의 회비수입, 사업수입, 잡수입, 이월금의 항목과 세출예산의 회의

○추대 회원 명 단

성 명	생년월일	사무소명	입회일자	소속지부
이 종 수	1920. 8. 9	동성건축사사무소	1965. 6. 25	부 산
박 상 한	1920. 10. 22	삼영건축사사무소	1968. 9. 12	부 산
김 대 룡	1920. 9. 3	신아건축사사무소	1966. 2. 25	부 산
이 학 규	1920. 4. 24	문화건축사사무소	1965. 6. 15	인 천
최 웅	1920. 5. 28	최웅건축사사무소	1966. 3. 15	경 기
김 기 선	1920. 4. 12	전원건축사사무소	1969. 3. 11	강 원
정 은 섭	1920. 9. 6	정은섭건축사사무소	1970. 9. 17	충 남
양 세 환	1920. 9. 16	고려건축사사무소	1965. 11. 15	충 남
박 옥 규	1920. 6. 9	군산건축사사무소	1965. 7. 1	전 북

주년 기념식을 23일 상오 협회 강당에서 가졌다. 창립기념으로 회원건축설계작품전이 한달동안 열린다.

창립20주년기념 建築세미나 개최

建築士 2차 研修도 함께 실시

□ 조선일보 / 10. 23일자

창립20주년기념 設計작품전

吳雄錫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창립20주년 기념식을 23일 오전11시 협회 강당에서 가졌다. 창립기념으로 회원건축설계작품전도 한달동안 연다.

□ 매일경제 / 10. 23일자

建築士協會 20돌 기념식

대한건축사협회(회장 吳雄錫)는 23일 상오 창립20주년기념행사를 李寬永 건설부차관, 협회회원 등 건설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강남구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가졌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창립20주년 기념행사로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강연회 및 주제발표, 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 한국경제 / 10. 23일자

우수 建築作品 80點 뽑아 展示, 建協창립20주년 紀念

大韓建築士協會(회장 吳雄錫)는 23일 창립20주년을 맞아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지난 1년간 회원들이 설계한 우수건축작품에 대해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 대상(건설부장관상)에 金春雄씨(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작품 梨泰院 테리스하우스) ▶ 최우수상(건축사협회장상)에는 金孝一씨(작품 가톨릭사회교육회관) ▶ 우수상(협회장상)은 金正澈씨(서울商議회관) 張順鏞씨(濟州 천제루)가 각각 받았다.

협회는 이 우수건축작품을 비롯 80점을 선정, 이날부터 한달간 건축사회관에서 건축설계작품전시회를 열고 이어 釜山, 大邱 등 8개도시를 순회, 전시할 계획.



본 협회에서는 창립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건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고층건물의 설계사례 등 9과목에 걸친 세미나가 본 협회 강당에서 실시되어 회

원의 업무에 좋은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 소개되었으며 건축사 연수과목인 에너지 절약계획과 한국의 건축역사과목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회원을 대상으로 함께 강의되었다.

건축세미나 개최

일시	세미나 발표주제	발표자	소속	
85. 10. 21 (월)	09:30~10:2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	손장열	한양대학교
	10:30~11:20	고층건축물의 설계사례	전봉수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11:30~12:20	법규위원회 발표	이문보	동국대학교
	13:00~13:50	기초구조의 시공사례	히진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14:00~14:50	도시환경 분과위원회 발표	서상우	국민대학교
	15:00~15:50	구조분과위원회 발표	조철호	전국대학교
85. 10. 22 (화)	09:30~10:20	한국의 건축역사	신영훈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10:30~11:20	한국의 건축역사	신영훈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11:30~12:20	건축행정(서울시)	최종무	서울시건설관리국장
	13:00~13:50	설계관리 분과위원회 발표	김원길	건설기술연구원 건축부장
	14:00~14:50	건축사 복지후생 발표	김영수	복지연구 분과위원
	15:00~15:50	실내디자인 분과위원회	김길홍	이화여자대학교



耳順넘어 건축사 합격!

金基斗 회원

최근 실시된 건축사시험에서 63세의 나이로 합격한 金基斗씨는 건축사자격증을 획득한 것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승리감에 더욱 기뻐했다.

올해 21회째 실시된 건축사시험에는 총 3천1백34명이 응시, 두차례 시험을 거쳐 2백15명이 합격했다. 최고령자인 金씨는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과 겨뤄, 15대 1의 관문을 뚫고 당당히 합격한 것이다.

『자란 82년 이후 매년 응시해 4년만에 목표를 이뤘습니다. 시험공부를 하는동안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대학교 수를 찾아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는 술-담배를 모두 끊고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지난 65년 건축사시험에서 2급자격을 획득한 뒤로 10여년간 설계사무소를 운영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학교(咸南성진공업전문대)를 졸업한지 37년이나 지나 공부를 새로 시작해야 했지만, 역사 공부는 노력하는 것밖에 王道가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金씨는 자신의 성공이 다른 젊은이들에게 『할수 있다』는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랐다.

창립20주년기념 테니스·바둑대회 개최

테니스 - 朴孝男·趙聖源조, 바둑 - 李在提 우승

홍보위원회 시도지부 위원 위촉

본협회 홍보위원회는 각 시도지부가 홍보적 차원에서 본부와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 홍보위원회 시도지부위원을 위촉하여 본부 홍보활동과 조화있게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홍보위원회는 10월 15일 개최된 제12회 위원회에서 시도지부 홍보위원 위촉을 협의, 제9회 이사회에 부의한 바 원안대로 승인되어 위원을 위촉하게 된 것인데 지방홍보위원이 위촉됨으로써 본협회는 한층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위촉된 지부별 홍보위원은 다음과 같다.

지부별 홍보위원 위촉자 명단

지	부	성	명
부	산	문	용 규
대	구	김	화 자
강	원	민	병 협
충	북	송	인택
충	남	채	수 황
전	북	전	형 직
전	남	박	화 수
경	북	이	석 주
경	남	최	봉 형
제	주	김	백 교



테니스대회에 앞서 참가한 각회원과의 기념촬영

본 협회에서는 창립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테니스대회 및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태능테니스클럽과 본협회회관 회원 휴게실에서 각 지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는 테니스 부문에 22명, 바둑 부문에 21명의 회원이 각각 출전하여 자웅을 겨루었는데 부문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테니스 부문 (상패 및 트로피 전달)

우 승 : 朴孝男, 趙聖源 복식조 (박효남·조성원건축사사무소) 경기지부

준우승 : 南贊祐, 林陽燮 복식조 (남일건축·범아건축) 서울지부

3 위 : 徐輔光, 李洛晶 복식조 (동성건축·대영건축) 대구지부

■ 바둑 부문 (상패 및 트로피 전달)

우 승 : 李在提 (이재재건축사사무소) 경기지부

준우승 : 全應九 (전용구건축사사무소) 충남지부

3 위 : 姜哲求 (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서울지부

바둑대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吳雄錫 회장



우승한 회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吳雄錫 회장



각회원의 열띤 대국 모습



한국실내디자인교육협회 본회 吳雄錫 회장 방문

한국실내디자인교육협회 (회장 襄滿實)는 지난 11월 1일 임원 6명과 함께 본협회 吳雄錫 회장을 방문하고 건축과 실내장식에 관하여 환담하였다.

본협회를 방문한 실내디자인 교육협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내방자 명단

한국실내디자인교육협회 임원

○회 장 : 배 만 실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교수)

○부회장 : 이 연 숙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교수)

○부회장 : 정 미 숙 (이화여대, 연세대 강사)

○총 무 : 김 덕 정 (이화여대 강사, 쌍

용디자인실 근무)

○간 사: 최 순 희 (카사미아 대표)

○간사·서기: 오 찬 욱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연구조교)

○회 계: 오 혜 경 (이화여대, 덕성여대
강사)

제3단계 공직자기강쇄신 특별정신교육 실시

각시도 지부별 임직원을 대상

본협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본부 및 서울지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기강쇄신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 각 지부별로도 10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부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직자기강쇄신운동의 배경, 목적, 방향 내용에 대한 부철한 인식과 각성을 촉구하고 실천적 자제확립을 위한 계기 조성과 범국민 자기혁신 운동의 선도적 역할수행 및 대국민 전과 확산을 목적으로 한 교육은 「나도 한마디 - 학부모의 마음」을 주제로 한 슬라이드 상영과 공직자기강쇄신운동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30분간의 통신문안에 대한 슬라이드 교육도 병행 실시하였다.

공직자기강쇄신특별정신교육



경기도지부 공직자기강쇄신 특별정신교육

서울支部

서울지부(지부장 李春相)에서는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고양군 송추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호 캠페인과 '85 회원친목단합대회(추계)를 갖고 회원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였다.



송추에서의 자연보호·회원친목단합대회

京畿支部

방위성금 및 체육성금 전달

경기지부(지부장 李鍾殷)는 지난 9월 12일 전회원의 뜻을 모아 방위성금과 체육성금을 도지사에게 전달하였다.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방위성금과, 제66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들을 성원하기 위한 체육성금을 각 300만원씩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의 체육발전에 써달라고 부탁 하였다.



경기지부장(李鍾殷)이 경기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기지사로 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국제로타리클럽 369지구 차차기 김찬목 회원 총재로 추대

경기도지부소속 김찬목 회원은 9월 21일 인천선인체육관에서 개최된 국제로타리클럽 369지구 제5차 지구대회에서 차차기 369지구 총재로 추대되었다. 국제로타리클럽 369지구는 세계 봉사단체 클럽의 하나로서 경기도와 인천직할시를 관할지역으로 하여 2,8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차차기 총재의 임기는 1987년 7월 1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이다.

총재로 선출된 김찬목 회원은 1940년 5월 21일 생으로서 육군중위로 예편하여 서울시청 시설과에 근무한 것을 비롯 1971년도에 대한건축사협회에 입회하여 경기도지부 5,6대 감사를 역임한 바 있고, 그동안 성남지역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대학강사를 역임하였으며 1979년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다. 특히 회원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사업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 켈신톤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공학박사 학위 과

정을 밟고 있는 건축사이다.

김찬목 회원은 「369지구가 내실있고 발전 지향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배 건축사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라고 있다.

강지원 회원 개인전 열어 서예 50여점 전시

경기지부(지부장 李鍾殷) 강지원(古蘭) 회원은 지난 30여년간 작품 활동을 통해 틈틈이 모아온 50여점의 작품을 26~30일까지 부천광장소형 미술관에서 전시한다.

특히 古蘭은 30여년전 지리산 華嚴寺 대웅전 柱聯에 쓰여진 전서의 특이하고 오묘한 서체에 심취되어 붓을 든것이 인연이 되어 전서로서만 일관해온 도가다.

古蘭의 字形에 대한 연구와 특유의 서체는 선과 획이 오묘하게 구사된 필치로서 전통서예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서예가이며 건축가이기도한 古蘭은 회갑을 넘긴 노구에도 건축설계 현직에서 틈틈이 서예에 정열을 쏟고 있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天地八陽經을 비롯 金剛經 등 수천자에 이르는 大作을 비롯 수십점 작품에 그의 정성과 창작애의 의욕과 정성이 엿보인다.

古蘭은 국립박물관을 비롯 古建築의 복원과 설계를 맡았던 本協會 前會長 회원의 親弟이다.

자연보호운동 실시 회원친목단합대회도 가저

경기지부(지부장 李鍾殷)는 지난달 16일 회원친목단합대회를 겸한 오물줍기 등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였다.

회원 및 직원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대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실시한 이날 행사는 오염된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자연보호 캠페인도 함께 벌여 유원지 주변을 말끔히 청소하였다.



자연보호운동(경기지부)

釜山支部

회원친목단합대회 가져

부산지부(지부장 黃在淳)는 창립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회원친목단합대회를 가졌다.

회원 126명이 참석한 이날 단합대회에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간에 걸쳐 서울올림픽주경기장, 대한생명빌딩(63층)건물 및 서울근교사적지(신록사, 영능동)를 관람하고 회원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였다.



회원친목단합대회시 "신록사" 관람 기념

大邱支部

농촌일손돕기 실시

대구지부 1,500여평 거둬

대구지부(지부장 黃鏞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에 걸쳐 회원 및 직원 등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봉사활동을 벌였다.

가을 추수기를 맞아 바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대구직할시 동구 봉무동에 소재한 논에서 약 1,500여 평에 달하는 벼베기 작업을 지원, 값진 땀을 흘렸다.



농촌일손돕기(대구지부)

江原支部

농촌일손 돕기

벼베기작업 도와

강원지부(지부장 閔庚秀) 회원 및 보

조원 18명은 지난달 8일 벼베기 작업을 도왔다.

원주시 태창2동에서 벌인 일손돕기 작업은 오전 8시부터 8시간에 걸쳐 부지런히 벼베기를 실시 약 600여 평에 달하는 논에 벼를 거둬들여 농촌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었다.

또한 벼베기 대금 20,000원과 낫 20정을 태창2동 가현노인정에 기탁하였다.



농촌일손돕기(강원지부)

慶北支部

농촌일손 돕기

안동군 남후면에서 실시

경북지부(지부장 金永吉) 안동본소는 지난달 17일 7시간에 걸쳐 회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베기 작업을 실시하였다.

안동군 남후면 무룡동에 소재한 500여 평에 달하는 논에 벼베기를 도와 바쁜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었다.

慶南支部

농촌일손 돕기

벼베기 및 벼단 말리기 작업 도와

경남지부(지부장 金正洙)는 지난달 9일 마산시 덕동 소재의 논에서 지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의 벼베기에 바쁜 일손을 도와 주었다.

全南支部

회원친목행사 개최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 까지 2박 3일동안 회원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친목행사를 개최하였다. 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을 이용, 국립묘지, 수안보온천, 문경새

재, 조령구분, 불영계곡, 백암온천, 보문단지 등을 관람하였으며 경주코오롱호텔 연회장에서 회원노래자랑을 실시하는 등 전체회원의 인화단결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였다.



문경새재에서의 기념촬영(전남지부)

창립20주년기념 학분 및 학환 기증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 정 모
- (주) 삼 호 : 윤 기 로
- 현대공문사 사장 : 이 심
- 한국유리공업(주) : 최 영 증
- 주택공사 사장 : 권 영 각
- 한국실내디자인협회 : 배 만 실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동문일동
- 대한건설협회장 : 이 재 준
- 서울특별시장 : 염 보 현
- 한국기술사회장
- 해외건설협회 회장
- 대한건축학회 : 김 진 일
- 한국주택사업협회 : 최 종 성
-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 박 행 일
- 광문정판사 : 전 윤 규
- 실간 건축문화 : 정 홍 채
- (주) 페르스름 페르스칸

축하전보 접수현황

- 국회의원 유 흥 수
- 국회의원 권 영 우
- 국회의원 신 병 열
- 용산구청 도시정비국장 박 대 수
- 전남대 건축공학과
- 전라북도 건설국장 송 여 섭

기념품 기증업체

- 한국유리공업(주) 시계메모콧이 3,000개
- 한남화학(주) 줄 자 250개
- (주) 벽 산 타 울 200매
- (주) 담 과 타 울 1,000매

創立20周年을 祝賀합니다!

創立20주년을 맞아 건축관련단체장들의 祝賀 메시지를 실어본다.
金眞一 대한건축학회 회장, 羅相基 한국건축가협회장, 安京模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장, 李載濤 대한건설협회장. (가나다順)

■ 大韓建築士協會 創立20周年을 祝賀함

成年을 맞는 建築士協會

金眞一 / 대한건축학회 회장

재주없는 사업가에게 투자의 길을 마련해 주었고, 도시의 基調를 이루는 건물을 세워, 이제 지구의 잔치 '88서울올림픽'의 관을 펼치게 한 주역, 건축인의 자치단체인 大韓建築士協會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아직, 오일 쇼크는 미래학자의 시나리오에도 비치지 않았고 美國이 개입한 월남전의 승리를 신화처럼 믿었던 1965년, 南北韓의 적대시는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소득은 고작 500\$ 선이었어도 우리는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국가적 기치하에 앞만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시대에 建築士協會는 태어 났습니다.

그리고,協會는 OPEC의 두 차례에 걸친 유가인상으로 세계경제가 뒤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고, 가장 뒤늦게야 불황이 걷히는 슬한 역경을 극복하면서 오늘 훌륭한 成年을 맞이 하였습니다.

서양문명을 뒤늦게 받아들여 경제우선 효율우선의 化身이 되기를 스스로 작심한 사회공조하에서도 건축은 예술성을 꾸준히 지향 하였습니다. 어떠한 규율도 예술을 억압할 수 없다는 古典的 敎理를 신봉하는 일을 건축문화 창달의 신조로 삼은 우직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지향한 순수한 이상이 어느덧 개인을 초월하여 공동체의 이익

을 추구하는 이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共同体는 技術的分業과 社會的分業의 혼합상태에서 독립된 知的 生産者의 자극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한다는 기대와 약속의 전제로서 응집되고 정당화 되었습니다.

흔히, 技術的分業은 동일작업을 반복해서 그 일에 숙달하지만, 그 작업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과 이어져서 비로소 완성품이 되는 과정으로 移行됩니다. 이렇게 分業의 시스템이 관철되는 사회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잃게 됩니다.

협회가 태어날 때의 建築의 概念은 「건축은 Total이다」라는 것으로 족하였으나, 지금은 도시조경·환경 등으로 획을 그어 떨어져 나가서 기술적 分業으로 인한 새 知識의 構成과 定式化가 시급하여 졌습니다.

새 가치관을 생각할 때, 당신은 지난날 몇차례의 혁명으로 붕괴된 中世王朝의 權威가 지금도 美와 權威의 기준이라든 현대문명에 대한 內的 擴議는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현대문명의 도덕성을 의심케 되고, 그의 쇠퇴의 필연성이나 몰락의 그림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빛어낸 문명의 위기와 허구

에 대해서도 우리 지식인은 그 사회를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건축계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실하게 성장하였으나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를 챙겨 볼 때가 온듯 합니다.

사회분업화시대에 고립되기 쉬운 자기를 보호하고 대변하며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協會가 사회에서 건축의 위치를 격상시켜온 일은 양지에 속하는 일입니다. 반면 건축이라는 것이 머리를 짜내고, 가슴에서 우러나온 작품이 회귀해지는 현상은 매우 이로운 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建築士資格證을 가진 비회원에 대하여 거론하고 싶습니다. 예로, 건축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이 건축의 실무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현실적이며 비논리적인 시효는 이제 지났음을 정부는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밝은 세상에 교원의 실무배제가 이나라 건축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교원의 실무배제 취지는 농경사회에서 60년대 산업구조 변동에 부응하는 사회체제 정비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중직에서 올 수 있는 폐단방지, 이른바 危機管理로서의 장치인 사회적분업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참아 온 것입니다.

문명사회에서 이러한 장치기간은 4~5년이면 족한 것입니다. 또 협회는 그 자치능력으로 보아 이제 어떠한 문제도 여과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회는 원하는 建築士資格證 소지자를 회원으로 흡수하여 창립 20주년을 명실상부한 大韓建築士協會로 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21세기의 멋진協會 自画像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大韓建築士協會 創立20周年을 祝賀함

建設役軍으로서의 분발과 노력을

羅 相 紀 / 韓國建築家協會 會長

大韓建築士協會 創立 20周年을 맞아 20年史를 發刊함에 있어 本人은 먼저 그동안 協會 發展을 위해 수고하신 회장단 및 임직원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래 大韓建築士協會는 1965년 건축사법의 제정에 의거 創設되어 벌써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8.15해방 직후부터 '65년 까지의 20年間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大韓建築士協會가 發足되기 전의 20년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팔을 걷고 숨기해서 일을 하려고했지만 사실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建築士의 활동은 그 시대 경제발전 여하에 따라 활동이 비례되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6.25동란이 터지던 1950년 까지는 노력은 하였으나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1950년부터 휴전이 되는 1953년 까지는 폐허 뿐이었습니다. 이어 38°선 이북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남하하였고 무허가 판자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建築士의 역할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 복구사업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서울에 있는 건축사는 불과 몇 십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建築界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나고도 10년이 더 지난 1960년대 부터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차츰 경제부흥이 일

기 시작하던 1963년 드디어 건축사법이 대두되었으며 1965년에는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965년 10월 23일 대망의 大韓建築士協會가 創立되고 建築士들 역시 이때부터 本格的인 作品활동을 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해방직후 20년의 세월은 허송세월이었으며, 65년 建築士協會가 發足된 이후 20년간이 成長 發展의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더우기 '70년대 경제발전과 더불어 건축 면적은 유

래없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都心의 再開發로 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고층 빌딩이 있으며 住居 환경에도 많은 變化를 가져와 아파트群들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급증하는 관광인구에 대비해 호텔 또한 수없이 건축했으며 海外 建設 역시 刮目할만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建築士 모두의 자량이며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우리에게 또 한가지 무거운 사명이 지워지게 됩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의 대비가 그것입니다. '86 아시안게임에 대한 준비는 이미 완성단계에 들어섰고 '88 올림픽 준비도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建築士 여러분들께서는 2000년대를 향한 훌륭한 大韓民國의 建設역군임을 명심하시고 더욱 분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투를 비는 바입니다.

■ 大韓建築士協會 創立20周年을 祝賀함

第2中興의 期約에 期待를

安 京 模 / 韓國建設技術研究院 院長

建築士의 품위보전 및 建築技術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建築士協會가 설립된지도 어느덧 20개 성상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建築士協會는 팔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전국에 걸쳐 현재 2,302 명의 회원을 갖추게 되었으며, 건축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建築關係 法規 및 制度上의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와 建築情報資料의 수집, 設計 및 監理基準의 현실화방안 연구등 건축사 업무 개선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해 왔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질향상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대구·광주·포항·인천지역에서 會員建築設計作品 展示會를 개최하였고 建築士 자본 보수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도시환경과 가로형성, 외국 의 건축사 제도관련자료집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등 각종 건축관계도서를 발간, 회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建築設計技術을 향상하기 위하여 협회자체에서 분야별 分科委員會를 구성하여 연구개발에 노력하였고 건축사 회원의 기술연마를 위한 해외선진국 시찰을 실시하였으며, 日本 建築士會聯合會와 한일건축사 교류추진에 관한 각서

를 교환함으로써 국제 건축설계 기술교류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국내외에 걸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업적을 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84년도에 건립한 建築士 會館은 선진국에서도 흔히 볼수 없는 것으로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존경하는 吳雄錫 會長님을 비롯한 역대 건축사협회 회장님과 전국에 산재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의 임·직원에게 오늘의 건축사협회가 있기까지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20 돌을

맞이한 귀협회에 진심으로 경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건축사협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태산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建築設計水準의 국제화, 標準設計圖書의 보급, 선진국과의 國際協力 및 交流, 미비된 건축관계 法規 및 制度上的 문제점 개선등을 추진하여 확실적인 건축설계를 지양하고 낙후된 건축설계 기술을 조속히 향상시켜 건축물의 藝術性과 造形美를 창출하고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건축환경을 하루속히 이룩하기를 기대하

면서 이러한 과제가 귀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달성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차체에 협회 20년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지난날을 점검하는 귀중한 자료로 삼고 협회 제2의 중흥을 기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大韓 建築士協會 20年史”를 편찬한다고 하니 더욱 반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20년사 발간을 중심으로 축하하며 建築士協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大韓建築士協會 創立20周年을 祝賀함

設計技術向上的 求心點되기를

李 載 濬 / 大韓建設協會 會長

大韓建築士協會의 創立20周年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協會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최고하건대 우리나라의 建築史는 민족의 독립과 함께 출발하여 초창기에는 해방된 國土를 효율적으로 改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6.25전화로 인한 廢墟된 國토를 건설하는 데도 남다른 사명감으로 오늘의 國토로 발전시킨 그 功은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貴協會가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20년은 건설업계가 세계속으로 발돋움하는 대 변혁기로서 그동안 건설업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산업시설의 설계는 물론 海外市場을 겨냥한 꾸준한 設計技術의 향상에 힘 입은바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貴協會가 그동안 걸어온 빛나

는 전통의 自矜만을 간직한채 과거의 영예에만 자족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건축가들에게 부가된 과제는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아 協會의 20年史 발간의 의의도 그동안 걸어온 협회의 발자취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 보고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진지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가에게는 先進祖國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쾌적한 住宅環境의 개선이 계속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십오년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거는 인간의 住宅 및 環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부단한 設計技術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설계감각을 부단히 연마하여 건축가로서의 재질향상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建築士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건축물의 設計또는 工事監理業務만을 수

행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토목·전기·기계설비·국토개발은 물론 안전관리분야까지 그 업무는 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도의 플랜트 설계분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새로운 設計技術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設計 못지않게 성실시공을 위한 工事監理技術도 새로운 각도에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시공질향상과 더불어 건축물의 미관등에도 제1차적인 책임이 설계인에게는 부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축물에 대한 節次履行代理의 업무도 한 점 소홀히 할수 없는 귀중한 업무의 하나인 것입니다.

貴協會는 이러한 회원들의 업무를 더욱 극대화하고 설계기법을 향상시키는 데에 구심점이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원의 권익옹호에도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세계인이 찾는 건축 전시장이 될것을 감안하여 불메 각종 시설물도 우리의 傳統文化의 바탕 위에서 보다 사려깊고 특색있게 설계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협력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貴協會의 協會 20年史 發刊과 더불어 協會와 會員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는 웃음 가는 인정 질안화목 국민화합

建築悔恨

尹始德

尹建築士事務所

이르는 세월의 틈에서 신을 하다 보니 나는 어느덧 不惑之歲에 이르렀다. 어느때 부터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元初的 물음 앞에서 몸 둘 바를 몰라 하다가 어느날 내 生業의 전축은 어떠한가로 변질되어 되삭업질을 시작 했다. 게거품을 물고 물고 답하고 물고 답하며 反獨를 계속함에도 쉽게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우리들은 지난날 소비가 美德이라는 광대들의 놀음에 휩싸여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후줄근하게 땀이 나도록 흥겹게 놀고 있었는데 어느 구석부터 내민 外債라는 마귀가 목을 죄기시작 했다. “外債가 뭐냐”하는 생면부지의 물음에서 답을 구하였을 때 이미 우리의 한 발은 깊은 늪에 빠진 후였다. 나 좀 살려 주구료? 하고 고함을 쳐도 우리의 恩主는 주위에 없었다. 모두 죽는 길이 명쾌하다고 답을 한다던가, 쟁긴 놈은 自重에 디스크병이 도져 쉽게 갈 수 있으되 못 번 놈은 기아와 싸우며 술한 고통이 점철되어 얼굴이 일그러지니 누가 그 씁쓸함을 쉽게 헤랴하겠는가. 죽기도 쉽지는 않으리라.

그 땐 철이 덜 낫던 땡가, 얼마전 된 건축모임에 호기있게 辭를 읊은 것까진 좋았는데 지금까지 회고 될수록 얼굴이 붉어진다. 같이 건축문화 暢達을 하자 했던가. 어찌 내 입에서 이런 엄청난 우를 설파 했던가, 그 근원을 따져 보니 건축사 현장이란 곳에 그 驚人句가 있어 무의식하에 발설이 된 듯하다. 나는 문화와 얼마만한 관련이 있을까, 몸에 뿌리는 향수가 문화인가, 사내배스 별로 못 타본 것이 문화인지, 얼어 죽을 문화때문에.

일각에서 얼마전까지 우리경제가 세마리를 한꺼번에 잡았다고 그 토끼 잡는 기술에 경의를 표하며 흥겨워하고 이로써 안정적 호황 국민이라고 다독거렸다. 그 은혜가 어느 날부터 무너져 내려 머쓱하니 주위를 살피게 되었다. 기대치에서 0.5%가 미달 될거라는 경제성장을 탓인지 죽겠다고, 연살인지 뭔지 난리통이다. 不況이란 낱말이 남용되고 있다. 人力市場의 변두리 날뽕들이 끈들은 새벽밥 먹고 처차식을 옹중할 무거운 책임에 일당 돈 만원을 위해 서성거리려 보아도 다 정스레 그의 팔뚝 잡아 줄 주인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처진 어깨에 몸을 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공치는 날인 것이다. 우리동포에 그런 식의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런 이들의 빛 바랜 작업복에서 문화를 느낄 수 없다. 생활뿐이다.

우리 건축사는 그들과 천양지차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를 자신에 묻는다. 애지중지하던 문화가 畏敬스럽게 내 앞을 막는다. 값 비싼 외채 건축자재와 건축문화는 동격이 아니다. 잘 세우고 불이고 바르고 해서 문화가 발달된 게 아니고 제품의 제조기술이 향상된 것이다. 調合의 조작성이 다양해진 것이다. 그 잔기술에 취해 홀름하다고 침이 튀게 떠들어대는 이도 많다. 좋은 제품은 돈 이었다. 잠시 돈이 흔해 착각들을 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우리 조상들도 건축가로는 이름이 없었으나 홀름한 장인으로 하여금 빼어난 건물을 이루게 하였으며 그들은 값 나가는 수입품에 의한 미화는 없었다. 가난은 하였으나 문화는 홀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절고려운 자랑 중에 하나가 외채다. 지난 7월까지의 현지 금융

을 포함한 외채 잔액이 514억불이고 작년까지 GNP에 대한 외채 비율은 세계 2위 국민 1인당 외채 부담액은 3위, 외채 총액은 4위 좋은 쪽 일이라면 어깨를 흔들며 파안대소할 順位이다. 주위의 사치로운 건축물은 위의 일과 어떤 함수관계를 갖고 건축문화와 대치되고 있을까. 나도 그 類에 대한 일말의 미련으로 모방이라도 할까하고 어깨 너머를 기웃거리려 보나 능력이 없다.

작년의 GNP가 미국은 우리의 45배, 일본은 16배, 독일은 9배이고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5배나 앞섰단다. 우리 눈에 우습게 보이는 홍콩도 3배이다. 어우러져 한판 놀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짓빛 발상 뒤에는 2만인가 3만인가 무고한 시민이 죽었다는 멕시코 시티의 지진이 한자락 깔고 있다. 외채로 인한 파국 전에는 건축문화가 우리보다 앞섰던 것이 남미의 실상이 아니었던가. 이것은 天災가 아니었다. 엇그제 일어났던 일본의 지진에 비교 하전데 人災로 단정 지어도 될성 같다. 만일 그곳의 사회 전말과 건축에 관한 조건이 현금의 우리와 유사하였다면 그 人災는 지구 반대편 물 건너 불이 아니다. 불뿜이 튀던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던 건축인은 自壞되고 영원히 저주의 대상이 된다. 자신을 제외하더라도 피붙이를 포함한 후손의 목숨을 참혹하게 앗아간 죄악이다. 인간은 불을 발견하여 영화를 누렸으며 그 이면에 불로 파멸된 일부도 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은 더욱 깊다고 한다. 이 때 쯤이면 깊은 골짜기의 그늘에서 담배 한대 피워 물고 명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때 같다. 작은 영욕을 위해 너무 서둘고 있지 않나 되잖아 봄직하다.

新任任員 人事

(가나다順)



理事 安 將 元

“未來를 向한 出發을”

1985年으로서 協會創立 20週年을 맞이하고 훌륭한 새 會館도 마련했고, 또 그간 2,000이 넘어선 우리 회원들의 이룩

해 놓은 實績은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전국에 자리잡혀 있어 86, 88 양 올림픽 대회를 맞이할 준비도 우리 회원들의 힘으로 마무리짓고 있다.

그간 우리 협회는 회원의 知性的 힘으로 꾸준히 개척하여 왔고, 우여곡절을 지나면서도 20여년의 오랜 세월동안 普遍的인 내용이면서도 그의 實現에는 어렵고, 얽힌 要因을 가리지 않고 露出시켜 濾過시키고 團結하여 우리 스스로의 自生力을 培養시키는 自治能力은 우리 협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또한 社會가 바라는 자랑스런 職業意識을 가진 회원의 作品으로 우리 都市가 아름

다워지고 지역간의 협조가 원만해 진다면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작업과 행위가 얼마나 그 社會가 요구하는 것을 속시원히 해결해주는 자세였든가도 아울러 생각해 한다.

중요한 시기에 협회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훌륭히 이룩해 놓은 협회 제반사항에 행여나 陋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며, 미래를 向한 희망찬 협회의 일만이 주어진 使命으로 알고 여러분의 贊援에 보답코자 한다.

(신이건축사사무소 대표)



理事 李 文 雨

建築士協會 창립20주년을 맞이한 총회에서 유능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본인을 理事로 선출하여 주신 代議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 20년간 선배들의 많은 노력으로 우리 협회는 꾸준히 발전하여 우리의 위치가 정립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 및 발전과정이 기술 우위의 시대로 진입된 이때에 더욱더 건축사의 역할에 기대를 크게 할 것이다. 사회적 요구에 충족하고 건축사 역할의 집약된 표출을 위하여 건축사 개인의 노력은 말할나위 없지만 건축사의 의견이 종합된 단체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이제는 우리 협회도 성년이 되었고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2의 도약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어진 시대적 요청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이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內部的으로는 우리協會의 발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원 자신의 품위 향상은 물론 업무의 정상화로 좋은 건축

물의 창작에 계속적으로 이바지 하면 건축사의 권익과 복지가 보장되고 아울러 사회적 지위가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外部的으로는 諸法規의 보완개정, 사회적 각종 행사에 참여, 국제교류 등이 성취 및 확대되어 우리의 뜻이 완화된 결과로 표현될 때 우리의 위치는 물론 바람직한 建築士像이 정립될 것이다.

본인은 여러 선배님을 모시고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진 대열에 동참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린다.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대표)



理事 宋 基 德

나는 恒常 남을 위하여 奉仕한다는가 社會에 奉仕한다는 것을 즐거움과 보

람찬 일이란 것을 恒常 느끼고 즐거움으로 실천하고 싶어하고 있다.

이번 總會에서 다시 協會 理事의 責務를 지게 된 것에 무한한 重責感을 느끼는 바이다. 이 重責을 吳雄錫 會長任과 더불어 여러 임원님들과 협력하여 最善을 다할까 생각한다.

나는 우리 建築士의 社會的 地位와 現在의 位置에 對하여 생각해본 일이 많이 있다. 우리 建築士들은 協心하여 우리의 位置 우리의 地位를 向上시키기 위하여

많은 努力이 더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現社會의 여건이나 時點으로 볼때 많은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國際的인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國內的으로도 많은것이 변했다.

國際的으로 볼 때 現社會는 國際化時代에 접어들어 國際 경쟁의 치열한 상황 속에 혼돈상태에 있다.

우리 建築士도 國際化時代의 상황에 뒤지지않는 社會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

하여야겠다고 생각한다. 많은 國際會議에 加급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認識하여 흐름과 狀況 판단에 最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 自身을 비추어 볼때 우리 建築士의 地位 向上이 切實하다고 생각된다. 他分野에 비해 社會에 많은 努力과 奉仕를 함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位置가 잘 認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責任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우리 自身과 환경을 먼저 잘 認識하고 社會적으로 尊敬과 信賴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行動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잘 定立함으로써 우리의 뜻하는바가 잘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恒常 우리의 모든일을 우리 全体 建築士 全部의 一体感を 重要視하여 行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하나만의 建築士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建築士라는 基本精神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우리가 社會에 奉仕하겠다는 基本精神이 充滿되어야 社會에서의 信賴感과 尊敬心이 뒤따른다는것을 생각해야 할것이다.

職種에 따라 우리 社會에는 우리와 유사한 각가지 TITLE이 붙은 의사 약사 변호사 제리사 등 많은 資格証 所有者가 職業과 經歷에 따라 많이 있다. 우리 建築士의 位置가 어디에 있고 어떠한 狀態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우리는 많은 努力과 奉仕를 하면서 社會적으로는 人間基本 욕구인 住居環境의 解決士인 우리의 처지가 만족할만한 社會的 待遇를 받지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協會가 20年前 창설 될 때와는 너무도 많은 것이 달라지고 발전되어 왔다. 對內的으로 우리는 좀더 잘 정비하

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恒常 外的의 영향이나 內的인 영향으로 취약점과 허구성이 발생되어 우리의 잘 조직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훼손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취약점의 노출은 회원 상호간의 不信과 시기심에 의해 이루어지고 不當한 思考方式에서 부터 발생된다고 본다. 또한 우리 協會가 잘 조직되고 발전되려면 선배 회원과 후배회원의 잘 조직된 유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선배를 존경하는 社會, 후배를 이끌어 주는 社會가 우리의 미덕이다. 이 미덕을 各會員 相互間의 信念으로 생각하고 向上된 내일의 建築士觀을 希望한다면 우리의 狀來는 그以上 保障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단합된 精神力과 高度의 技術力과 向上된 創作活動으로 우리의 未來를 開拓하는데 努力했으면 한다.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監事 鄭孝煥

建築士法이 시행되어 우리 協會가 발족한지 어언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協會도 이제는 틀이 잡히고 建築士 본연의 자세에서 自己完成을 위한 道理를 할 수 있는 성년이 되었다.

그간 우리 협회가 창설되고 발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의 협회가 있기까지 협회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과 생활을 희생하면서 까

지 애써주신 先輩任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불초 소생이 금반 제 20회 定期總會에서 監事의 대임을 맡게되어 송구스러울 따름이며 과연 본인이 2천여 회원이 바라는 바와같이 협회운영의 일익을 담당해서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책임이 무거운 따름이다.

20년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20년전 협회창설시 상상도 못할 만큼의 발전을 하였고 금반 창립 20주년 행사도 성대히 치루었다.

이제는 우리 協會도 지난 날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깨어나 대다수의 우리 회원이 바라는 바를 인지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각개인의 권위를 돌보아 주는 일에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또한, 세계정세에 따른 우리 업무의 불황타개, 士法의 모순점의 시정, 원로 회원들에 대한 待遇策, 후배 건축사의

지도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으며 協會 機構整備에 따른 예산절감, 職員의 능률적 업무집행을 위한 業務分擔 등 우리협회가 시행하여야 할 일이 많다고 본다.

이번 定期總會에서 협회의 장래를 우려해서 많은 충고의 발언을 하여 주신 선배 회원 및 귀중한 시간을 割惠하여 늦은 밤중까지 자리를 지키며 협회목표 설정을 지적하여 준 代議員들의 무한한 열성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여러 회원의 뜻을 받들어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끝으로 會員을 위한 任員으로서의 자세로 협회가 여러 회원의 것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협회와 회원간에 隔이 없도록 더한층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다.

본인이 직분을 다하도록 회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란다.
(정, 이화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설부훈령 제698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표중에서 "30% 이하"를 "40% 이하"로, "25% 이하"를 "30% 이하"로, "20% 이하"를 "25% 이하"로 하고, "40 내지 80"을 "60 내지 150"으로, "80 내지 200"을 "120 내지 300"으로 "150 내지 300"을 "200

내지 450"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표중에서 "세대수의 증감"을 "세대수의 감소"와 "세대수의 증가"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범위를 "10/100이내"와 "제한없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日本 제28회 建築士會全國大會參觀記

祝祭로 幕을 내리는 感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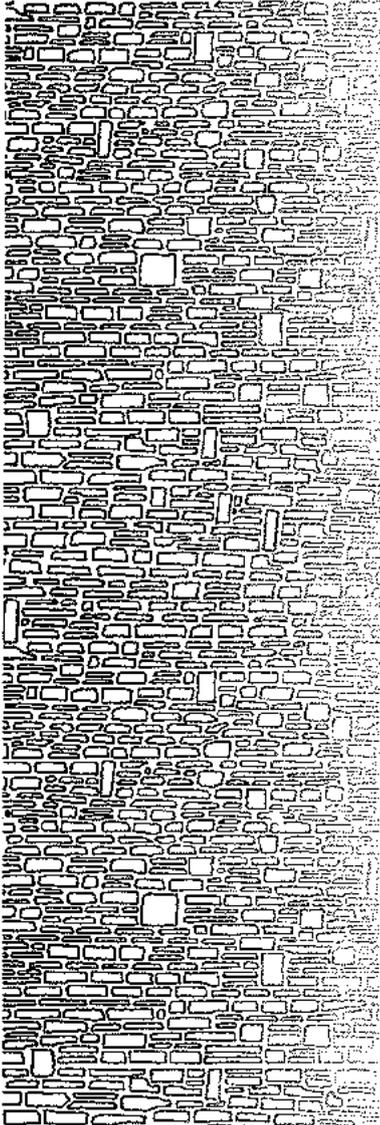
申 貞 桓

본협회 이사 세익건축사사무소

지난 10월17일 18일까지 2일간 日本京都府大津市에서 열린 제28회 建築士會全國大會(琵琶湖大會)의 초청으로 본회 吳雄錫 회장, 李春相 서울지부장, 宋基德 국제위원장이 참석하여 3박4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의 규모와 진행사항에 대한 여러 회원님들에게 소개가 앞으로의 聯合會制度 시행에 따른 총회의 일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본인의 참가소감을 기고하고자 한다.

감명깊었던 桂離宮苑路



우리 일행은 16일 오후 4시 金浦공항을 출발하여 오후 5시30분에 大阪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서는 일본건축사회연합회 小野里光明 부회장과 梶谷博行 부회장 및 町田幸一 사무국장의 출영을 받았으며 차편으로 京都의 京都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대회일정인 17일에는 각지역별 건축사회의 연구집회가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일행은 京都建築士會 望月秀祐 회장과 小野里 부회장, 梶谷 부회장 및 町田 사무국장의 안내로 日本古代庭園建築인 修學院離宮과 桂離宮(Katsura Imperial Villa)을 참관하였다. (이 궁에는 일반인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京都府의 참관허가자라야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없음) 桂離宮은 後陽先 천황의 弟君인 智仁親王에 의해 八條宮家の 별장으로 지어진 것으로 건축과 정원은 종합예술성에 있어서 일본문화의 본질을 유감없이 상징하였다고 한다.

이 궁의 넓이는 약 56,000㎡ 정도로 중앙부분에는 苑池와 크고 작은 인공섬 등으로 되어있고 이 苑池에는 배를 타고 유람할 수 있게 선착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원양식은 廻遊式 정원으로서 그 경관을 산책하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苑路는 敷石道, 疊石, 近段, 飛段, 砂利道, 土道 등 여러 구조로 되어있어 보행시에 발바닥의 촉감과 오르내림으로 인한 체위의 변화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 실로 감명 깊었다. 桂離宮을 돌아본 후 明治5년부터 오늘까지 전하여 온다는 京都의 전통예능의 하나인 “鴨川춤”을 先斗町歌舞練場(극장)에서 관람하였으며 그 다음에 대회장숙소인 大津市の 琵琶湖호텔에 오후 5시30분경 도착하였다. 침실을 정하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동안 각 建築士會長 合同懇談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5층 연회장으로 갔다. 이 간담회에는 각지역별 建築士會 회장과 聯合會 會長團이 참석하고 있었으며 우리 일행의 인사소개에 이어 吳雄錫 회장과 太田 연합회장과의 선물교환이 있었다. 이 합동간담회는 대회준비위원장으로 부터의 오늘 실시된 全國研究集會의 결과와 명일의 본대회의 준비사항 보고로써 끝을 맺고 전야제의 祝宴이 시작되었다.

제1, 2, 3분과회로 나누어진 연구집회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분과회 -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 水와 住環境」

제2분과회 - 「시민과 같이 생각하는 都市構成」

제3분과회 - 「21세기 건축사회 - 국제정년 나이로-」

분과회의는 장소와 시간을 각지역별로 배정하여 참석회원 전원이 참가하였었다.

다음날 18일, 우리 일행은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일본 제일의 大湖(琵琶湖)의

滋賀県立体育館



全園大會場 入口에서 記念촬영 左로부터 宋基徳 국제위원장, 吳雄錫 회장, 李春相 서울지부장, 필자

大津市 발전의 상징, 大湖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년 전으로 세계에서 3~4번째의 오래된 湖로서 크기는 滋賀県の 육분지일이고, 둘레는 235.2km, 最深部는 104m, 平均깊이는 4m로 貯水量은 275억ton이라 한다]의 연안에 펼쳐진 大津市の 시가지를 산책하였다. 市役所(市廳) 시민운동장을 돌면서 湖上에 세워진 市문화관엘 들어서니 1층은 수족관으로 되어 있고 2, 3층은 문화예술품의 전시장으로 되어 있었으며 5층은 전망대로서 시가지의 전부를 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기사에게 이 大湖를 한 바퀴 돌면서 구경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 보았다. 기사의 말을 빌리면 湖의 둘레가 약 230km 정도이고 구경하는 데는 하루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일행은 湖의 크기와 정관을 짐작할 수 있었다. 湖上에는 호화유람선, 요트, 보트 등이 아침 햇살의 고요한 불살위에 그림과 같이 뜬채 정박하고 있었다. 여름철 휴양을 위한 湖로서 이런 막대한 규모와 훌륭한 시설투자를 보고 발전 일로에 있는 大津市の 인상을 깊게 간직했다.

우리 일행은 오후 1시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會長團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호텔의 선착장에서 유람선 편으로 15분 정도 거리의 滋賀県立体育館(대회장)으로 향하였다.

大會場 입구에는 大會準備委員會가 마련한 천막에서 참가회원들을 질서있게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내부의 양쪽 벽면에 47개 建築士會旗가 여러가지 색으로 만들어져 질서있게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 일행은 단상의 특별내빈석에 안내되었다. 참석회원 4,014명으로 보고되면서 1시 정각에 호화찬란한 조명과 빵머레가 울리는 가운데 드디어 제28회 建築士會全園大會(琵琶湖大會)의 막이 올랐다.

吳雄錫 회장에게 우렁찬 박수

제1부 式典(13:00~14:30)

제2부 記念講演(14:40~15:40)

제3부 郷土藝能(15:50~16:40)

제4부 祝宴(17:30~19:00)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式典의 順에 따라 式이 엄숙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 吳雄錫 회장 祝辭라는 사회자의 방송이 장내에 퍼졌다. 그와 거의 동시에 장내에는 환호와 우호의 우렁찬 박수 소리가 넘쳤다. 韓·日 양국 건축사 교류의 참된 성과가 여기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建築士會의 발전과 사회 발전에 공헌할 결의를 표명한 본대회에서 전 회원에게 어필(Appeal)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②
③④

- ① 합동간담회 석상에서 인사말하는
 吳회장
- ② 합동간담회에서 吳회장과 聯合
 會長과의 선물교환
- ③ 일본측과 우리 일행의 간담회
- ④ 祝宴場에서 참가자 일동

① 研修制度의 制度化 실현을 위하여!

사회환경의 변화와 건축의 고도화, 다양화 또는 계획기술과 여러 자격의 전문화를 기하고 있다. 이 시점일수록 건축사의 종합적 평가, 사회적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건축사의 자질을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자영에서 建築士會는 연수제도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진일보 시킨다.

② 國際靑年 나이로서!

명일을 위하여 인재육성을 생각할 때 젊은 건축사의 지성과 활력에 기대가 크다. 靑年建築士는 사회개발, 발전과 평화와 실현의 取旨에 찬동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그 특성을 살려 회원과 사회 일반인을 위하여 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건축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선봉에 서서 활약하는 것을 기대한다.

③ 建築士會의 活性化와 會員의 增強을 위하여!

우리 건축사회는 상호 유대와 會旗 밑에서 連帶의 輪을 강화하여 사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명심하여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증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러기 위하여서는 각 建築士會가 항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매력 있는 建築士會를 만들며 그 방책의 연구도 활발히 전개하면서 건축에 대한 정열의 씨앗을 키워 활력있게 만들어 나가자.

이상 3개항이 琵琶湖大會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어서 차기대회의 개최지가 발표되고 大會旗가 전달되었다. 이때 「내년에는 山口縣으로」란 프리카드를 앞세운 山口縣 회원들로 구성된 민속팀이 등장하여 지방민속놀이를 약 10분 정도 펼쳤으며 이어서 만세삼창으로 제1부의 式典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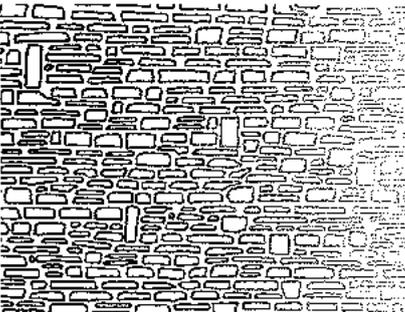
제2부의 記念講演會가 진행되는 동안에 별실에서 韓·日 간의 懇談會를 갖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吳雄錫 회장은 일본연합회측에 會員作品展示交流와 研究集會交流 등을 제안하였고 일본측에서는 한국의 각 市·道支部와 日本 各 縣建築士會間의 공식교류에 관한 문제를 제안하였다. 양측 제안은 吳雄錫 회장과 太田 연합회장에 의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약속되었다.

제3부의 郷土藝能을 참관하면서 예능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부 회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①②
③

- ① 祝宴場에서 左로부터 典會長, 日本建築學會會長, 日本建築士聯合會長, 野村九州帝大 교수, 宋基德 국제위원장
- ② 祝宴場에서 滋賀県會長 (중앙)과 우리 일행
- ③ 祝宴場에서 회원들의 민속춤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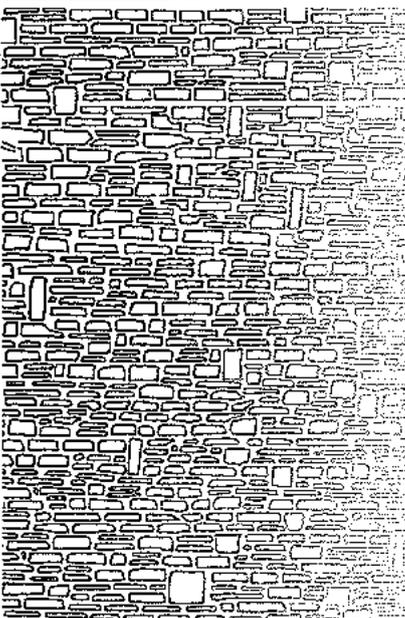


제 4부의 祝宴은 조금 떨어진 KoYo Hotel 연회장으로 자리가 옮겨져 夜間全國大會가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회준비위원장과 연합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시작되었다.

무대에 펼쳐진 가수, 악단, 회원들의 민속춤 등으로 대회의 축제가 고조에 달했으며 琵琶湖의 고요한 물결을 타고 축제 분위기가 일본 전국으로 매아리 치는 가운데 서서히 막이 내렸다.

우리 일행은 숙소로 돌아와 대회의 강평을 마치고 명일의 일정준비를 하였다.

自覺과 決意와 祝祭의 大會



마지막 날인 19일의 일정은 小西岬 大阪建築士會長과 町田 사무국장의 안내로 大阪市 중심가(東区城見2丁目)에 신축중인 大阪에서 제일 높다는 38층 쌍둥이건물(Osaka Business Park)과 大阪硝子工業協會의 硝子 전시장을 전학하고 귀국하기로 되어 있었다. Business Park 총국장 上田씨의 안내로 공사개요를 설명듣고 38층 전망대로 올라가 大阪시가지를 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 건물의 공정은 75% 정도이고 내년 완공된다고 했다. 공사장을 나와서 大阪城 경내에 있는 硝子 전시장을 둘러보고 大阪공항으로 나와 大阪건축사회장과 町田 사무국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金浦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日本의 聯合會 制度和 우리나라와 같은 統合豫算制度下의 총회는 제도상의 문제는 있으리라 생각되나 일본의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각県에서 회비예산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대회에서 예산심의안이 없이 건축활동 환경을 만드는데 자각과 결의를 새롭게 하고 축제로서 막이 내리는 대회야말로 발전일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끝으로 우리 建築士協會 회원들도 하루 속히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다져 사회에 공헌하는 자각과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는 총회로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하겠다고 느끼면서 이 글을 맺는다.

1986年度 主要事業計劃

다음은 지난 10월 23일 제20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86년도 본협
회 주요사업계획이다. 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을 간추려 소개한다.

사업명	세부사업명	시행방법 및 내용
회원복지증진	가. 건축관계 정보자료실 운영	1) 국내외 건축관계 기술자료를 수집 회원에게 제공하여 회원업무 활동 지원 2) 외국 및 국내외 기술개발 자료정보 교류로서 신건축 기술보급
	나. 예규집 발간	1) 회원업무의 편의도모를 위해 변경된 예규사항 및 행정지침 등을 편람식으로 발간 전회원에게 배포
	다. 복리향상을 위한 연구	1) 회원업무와 관련한 보험연구 2) 회원 노후 대책 연구
	라. 견학회 실시	1) 현장견학 실시로 작품활동의 향상 제고
	마. 회원업무 개선 추진	1) 보수요율의 덤핑방지 2) 부당한 업무처리 방지
회원상호친목도모	가. 회원친목 단합대회	1) 각지부별 회원간 상호이해 증진과 친목을 도모키 위해 단합행사 개최 2) 회원간 체력증진과 취미생활 함양을 위하여 체육행사 실시
	나. 회원명부 발간	1) 전국회원의 인적사항을 수록하여 전회원에게 배포
	다. 간담회	1) 회원상호 이해증진과 건축사계 풍토조성 2) 건축법 및 건축행정상의 문제점 발췌 및 대정부 건의 3) 협회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 청취로 협회 발전 도모
건축사업무개선	가. 건축관계 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	1) 건축관계 법규의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정(안) 연구 2) 건축행정 제도 개선 연구 3) 건축사업무의 제도 개선 연구 시행
	나. 건축연구위원회 운영	1) 각 연구분과위원회 활성화 2) 건축관련분야 분재연구 개선, 보완, 시정 건의 3) 연구결과 회지게재, 책자발간 배포 4) 외국제도와의 비교 검토 연구
	다.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	1)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설계 및 보수기준 현실화 2) 건축물 용도분류, 종별 규정 개정 3) 보수요율 재조정
	라. 설계도서검토에 관한 연구	1)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 행정기관의 심의제도 개선 연구 3) 효율적인 건축사업무 풍토 확립
전시회 개최	가. 작품전시회	1) 회원의 창작의욕 고취 2) 일반인에게 건축의 이해증진 도모 3) 기술향상과 건축문화발전에 기여 4) 전시회 개최의 다변화
	나. 우수건축자재 전시회	1) 회관 전시장에 국내생산 우수건축 자재의 상설 전시로 국민편의 도모 2) 각종 우수자재의 용도, 규격,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여 회원 업무에 활용토록 기여
회원 품위 향상	가.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1) 실무에 필요한 강연회 등 세미나 개최 2) 관계법령 해설 및 토론 3) 건축사 윤리관 함양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시 행 방 법 및 내 용
		4) 국가관 및 안보강연회 5) 현대건축, 신개발자재 세미나 6) 선공법 및 사용방법 7) 건강관리 및 정신교육 8) 해외기술용역 및 특수건물 사례 9) 건축과 에너지 1) 순회전시 작품을 수록 발간 2) 회원 및 유관기관에 무료 배부함으로써 설계작품 향상 인식제고
지 도 계 봉	나. 작품집 발간	
	가. 회원사무소 및 업무에 관한 지도 계몽	1) 비위회원 단속 및 조사처리 2) 회원간 분쟁조정 3) 업무계도 및 질서확립 4) 성실회원 권익보호
보조원 자질 향상	가. 건축사보 및 보조원 강습회	1) 건축사보와 보조원의 자질향상 도모 2) 업무취급 요령 및 교육
출 판 사 업	가. 회지 "건축사" 발간	1) 건축사지 발간으로 회원 대변지로서의 역할 수행 2) 회원의 설계작품 및 논문으로 내용 충실 편집 3) 해외 및 관련기관에 배부로 협회 홍보 4) 회지발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집호 발간회수 및 지면의 색도화 확대 시도 ○ 취재기사 및 지부활동 기사 확대 ○ 지방지부 회원 참여의식 촉진
국 제 교 류	가. 국제교류 추진	1) 외국의 건축정보 및 기술교류를 적극 유도 2) 건축관계 국제기구 가입 추진 3) 해외건축계 시찰 적극 추진
감 사 활 동	가. 정기감사 실시	1) 협회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강화 2) 지부 감사의 분소업무 지도 강화
	나. 특별감사 활동 전개	1) 사정업무와 관련된 지도활동 전개 2) 특정지역에 대한 수시감사 실시
사회정화운동 전개	가. 의식개혁운동	1) 정화위원회 협의회를 통한 정화운동 적극 전개
	나. 거래질서확립	1) 직업윤리관 확립으로 건축사업무 및 보수 요율 질서확립 촉구
	다. 기타교육 캠페인	1) 정화교육 시행 철저 2) 각종 캠페인 전개
새 마을 운동	가. 직장 새마을 운동 활성화	1) 직장 새마을운동의 정착화 2)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3) 농어촌 일손돕기 4) 거리질서 및 상거래 질서운동 적극 전개
예산 및 물자 절약	가. 근검절약운동 전개	1) 예산낭비 및 미효율 요인의 제거로 감소한 협회상 정립
봉 사 활 동	가. 건축행정 상담실 운영	1) 건축민원상담 전개 2) 건축민원 상담을 통한 대외홍보 및 대민봉사
홍 보 활 동	가. 홍보활동	1) 일간신문 및 방송에 회원 및 협회업무 홍보

사업명	세부사업명	시행방법 및 내용
인력관리 및 업무제도 개선 에 관한 연구	가. 협회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 연구	2) 국민에게 건축사업부의 인식제고 3) 지역별 홍보 활동 강화 4) 유관단체의 각종 교육 및 세미나 개최시 홍보
		1) 직제기구 등 직원의 활용 적정 검토 2) 협회업무의 제도 개선 3) 연구, 홍보담당제 실시 검토

건설부공고 제1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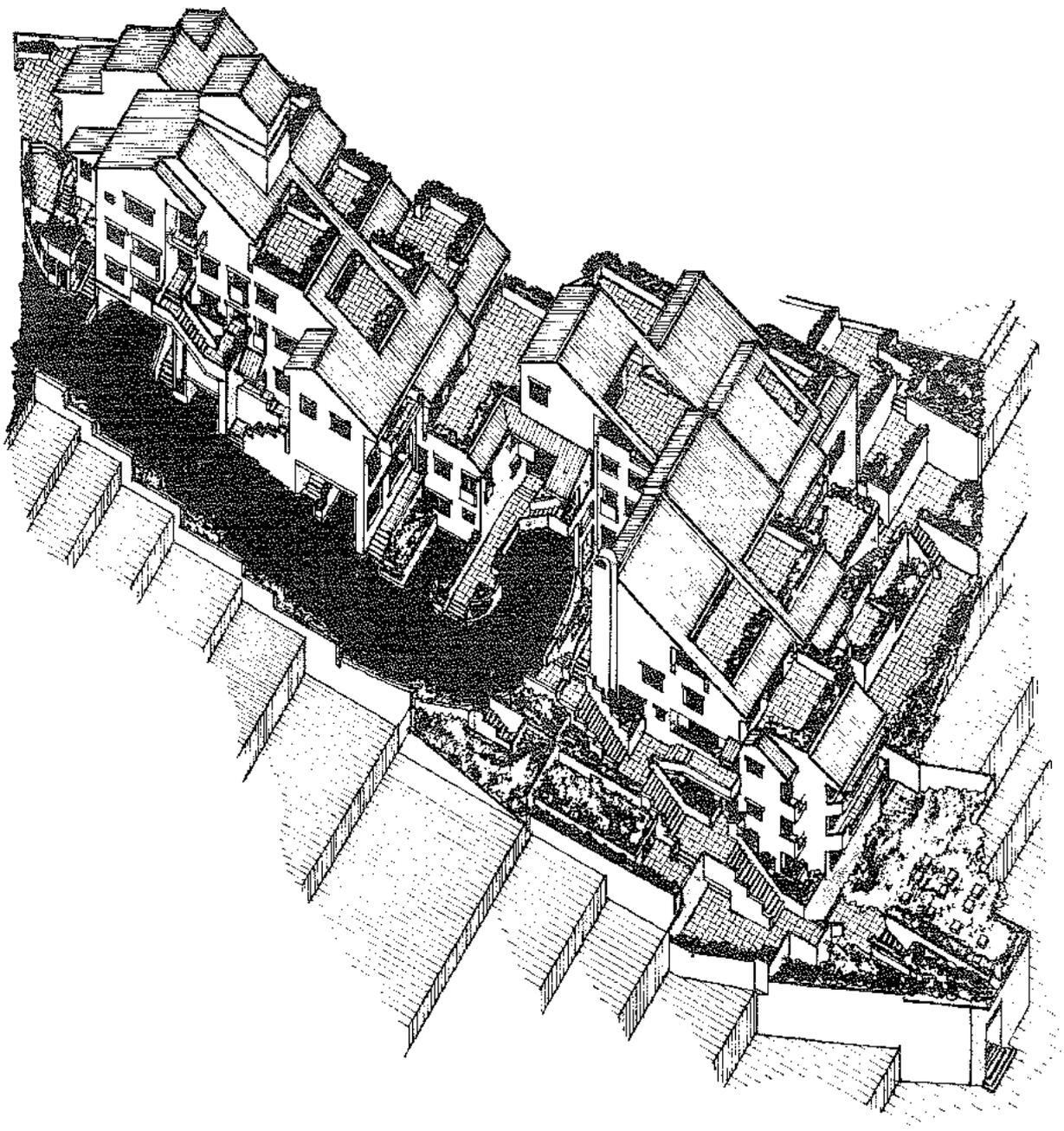
건축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985년 9월 1일 시행한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215명)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985년 11월 13일

건설부장관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1001	이정규	1010	이장백	1030	최진	1039	유상준	1054	김진길	1058	송영섭
1062	조길홍	1089	김국태	1108	한충국	1125	강승협	1128	김명철	1143	홍성천
1158	김연배	1161	정낙규	1166	백춘근	1171	홍순명	1177	김석곤	1187	이경용
1231	남기범	1258	송용수	1267	김기홍	1284	채일석	1323	한재원	1333	김영택
1342	김진수	1387	정기택	1399	조금호	1427	김연설	1439	김광출	1442	안정희
1450	오경은	1471	정동명	1494	김청덕	1497	선우명석	1503	최성점	1524	황임규
1533	최병찬	1546	안병모	1551	장기태	1568	김성수	1623	백진석	1638	이홍은
1644	윤명범	1654	조현군	1671	한영백	1674	이종찬	1692	배상선	1715	송효상
1768	한진수	1773	이경행	1778	강홍우	1788	오덕균	1805	윤승문	1816	윤구행
1836	김경명	1839	김철훈	1842	이홍구	1851	배택일	1867	이유상	1882	허충경
1935	김영철	1943	김홍기	1989	이상해	1990	이철규	2033	민형식	2091	양영식
2097	최상용	2109	조홍식	2121	김봉희	2142	고영우	2145	박용수	2207	조주환
2211	지승준	2220	강성구	2233	임성영	2236	최병국	2251	안찬영	2273	윤희로
2304	박홍기	2307	신형건	2338	오홍중	2349	이용선	2364	이재봉	2371	오종문
2376	김형준	2378	최영택	2409	맹광태	2416	김형모	2423	이경신	2424	백원기
2445	서학조	2451	김광호	2454	손명문	2472	이진수	2482	권세경	2491	전재근
2494	이규용	2519	정익현	2534	최형석	2551	김의성	2571	권영욱	2626	편윤범
2648	박호중	2671	정해상	2678	한관수	2682	김영택	2721	김창근	2820	윤영희
2828	이대원	2852	황장석	2872	김무천	2877	손덕천	2901	박승빈	2976	주외식
2995	홍대원	3034	김유삼	3102	정명호	3111	김용철	3179	김병기	3180	조원민
3270	허보	3283	허광호	3293	김진	3342	안성결	3387	하준수	3438	이명철
4016	김낙중	5013	박만식	5026	이석영	5054	오수영	5055	이현삼	5064	박찬권
5072	조상연	5074	장상희	5079	송기준	5081	윤종원	5087	이상호	5089	서병관
5098	이배영	5103	조영철	5111	남찬우	5115	김두진	5132	김주학	5153	김영길
5158	박우철	5165	방순필	5172	이홍근	5177	김현국	5179	노재일	5182	이준환
5185	이강욱	5192	김준찬	5194	이종규	5202	박상준	5203	조성재	5207	송기성
5234	박용규	5250	조병천	5252	양원영	5254	강원철	5263	김영환	5288	유재신
5291	홍재출	5308	이양우	5309	정두기	5312	김용균	5319	장상길	5332	유홍순
5333	홍성순	5346	오동진	5348	황영섭	5349	조희래	5351	김하원	5352	김철식
5356	전재기	5358	서인수	5362	강봉각	5378	김기두	5383	김진양	5385	소훈송
5416	조경환	5420	이길광	5421	강성언	5426	권오웅	5430	강병욱	5440	이종관
5442	박문용	5445	김성태	5450	이연수	5454	성영백	5458	이길형	5462	배남규
5477	김안경	5478	최준호	5488	윤혁경	5489	안상구	5503	홍인표	5504	김대근
5512	신동호	5515	서경남	5519	김형진	5523	윤재화	5552	박정복	5565	김효섭
5567	김영수	5568	안민수	5569	조진원	5574	이광석	5576	장현석	5580	김운욱
5590	양관식	5618	노상익	5621	김현성	5623	안세열	5637	고봉규	계	215명



'85 會員建築設計作品公募展 入賞作發表

大賞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金春雄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最優秀賞	카톨릭사회교육관	金孝一 / 원건축사사무소
優秀賞	서울상공회의소 회관	金正澈 /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優秀賞	제주 천제루 (天帝樓)	張順鏞 / 삼성건축사사무소
獎勵賞	평창동 J씨댁	徐鎭宇 / 건축사사무소 하나
獎勵賞	강남원 빌라	禹南龍 / 가나건축사사무소
獎勵賞	대신신영증권 사옥	宋基德 /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獎勵賞	경남대학교 본관	姜泰錫 / (주)한건종합건축사사무소
獎勵賞	코리아시티	李龍欽 / 일신건축사사무소
獎勵賞	K교수댁	俞景哲 / (주)종합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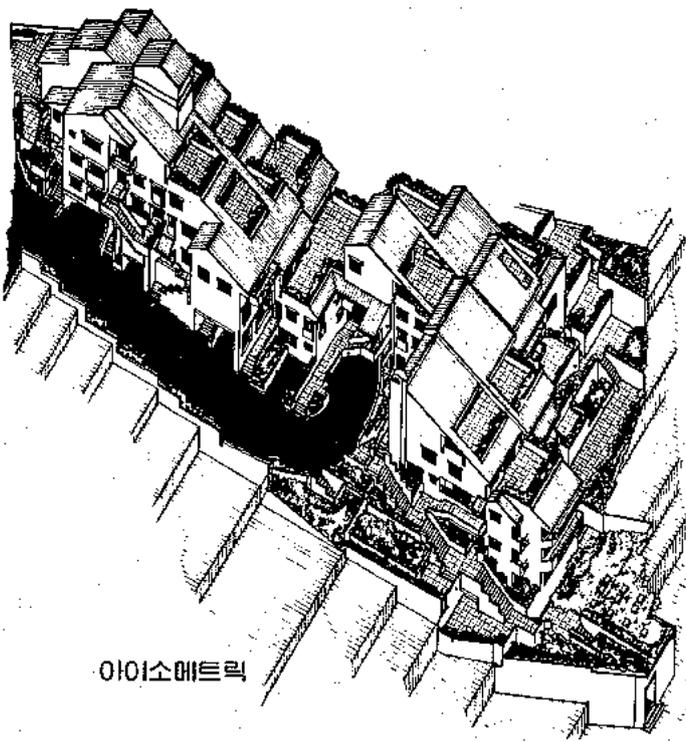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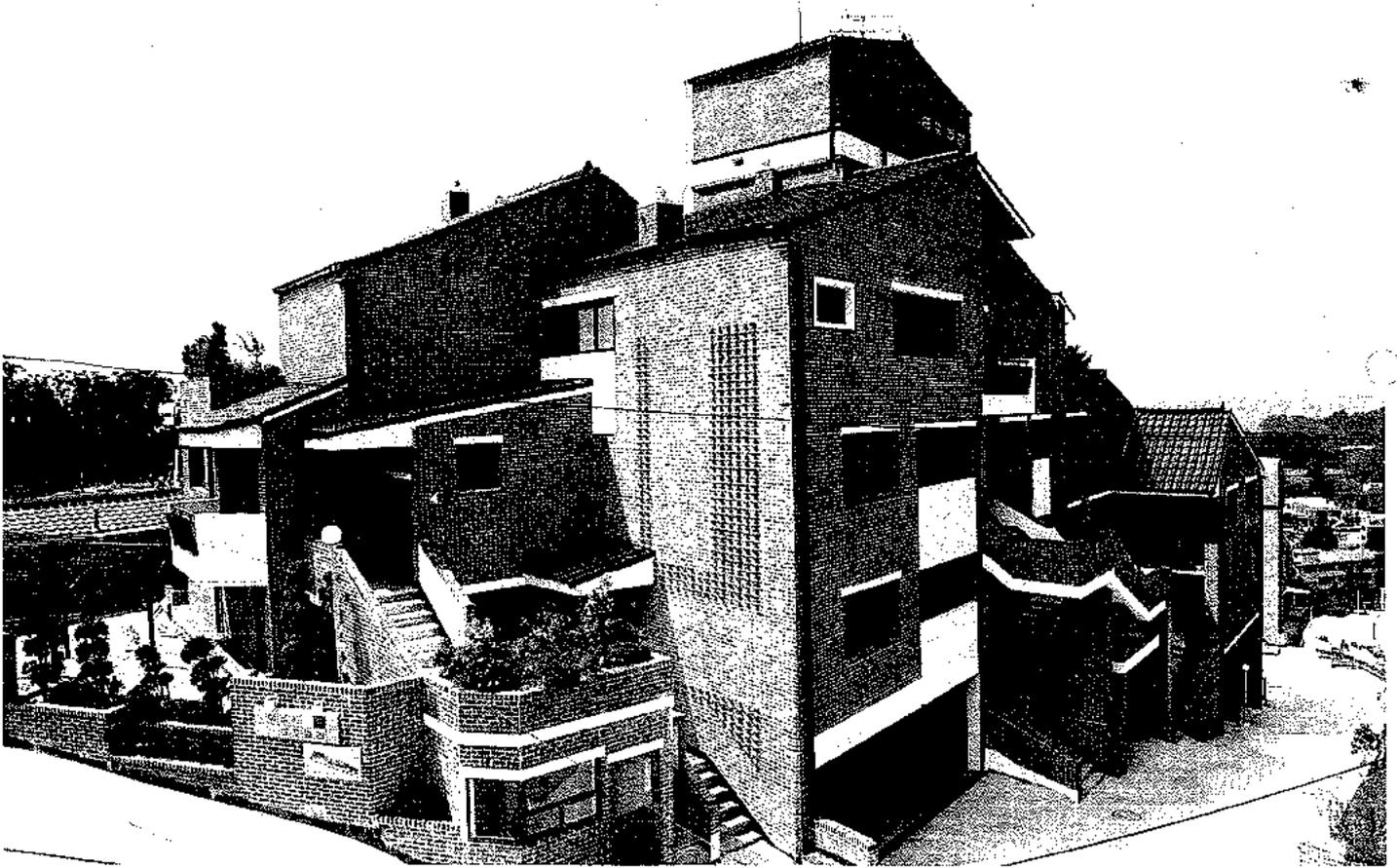
大賞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YITAEWON TERRACE HOUSE

金春雄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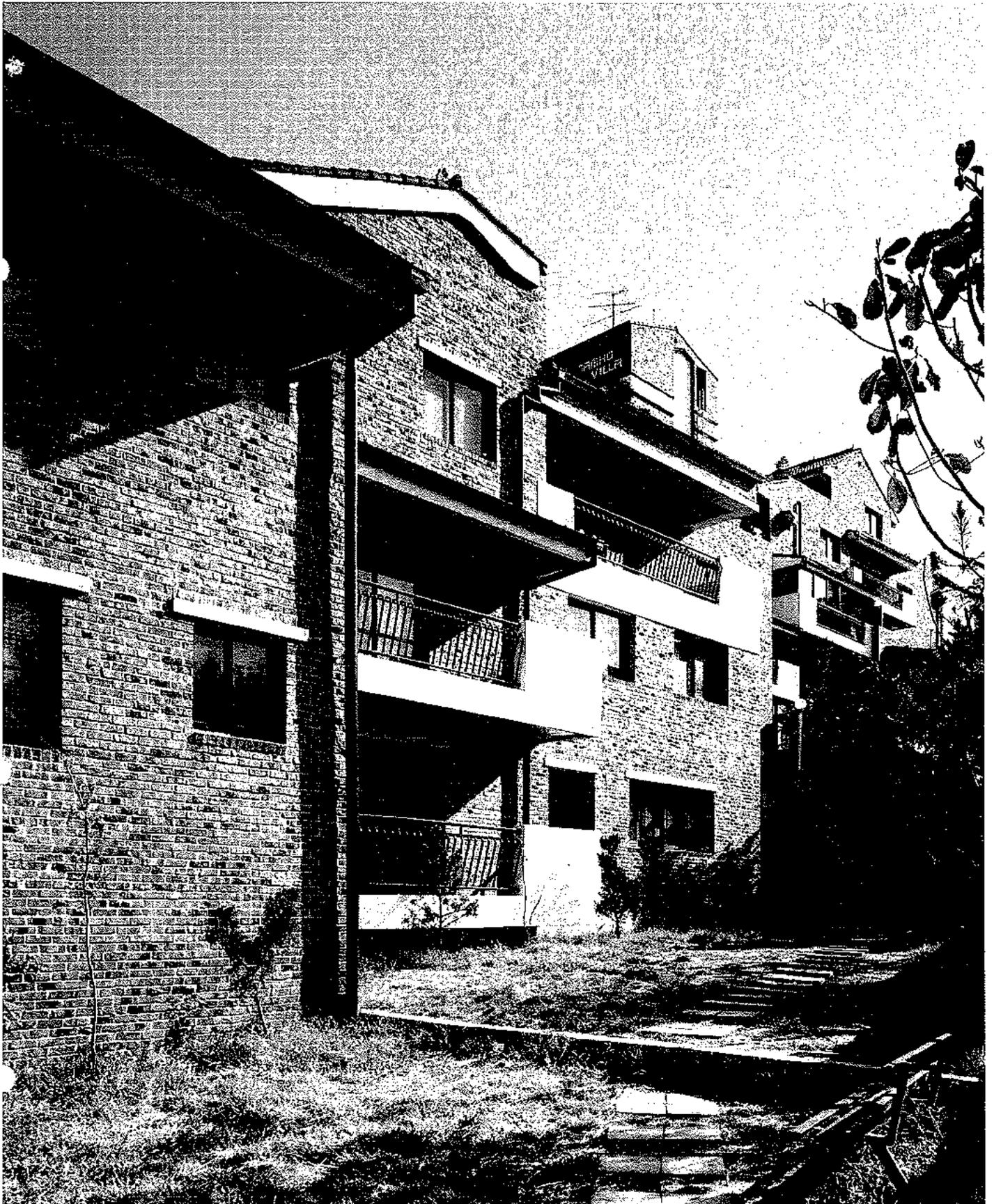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154
- 대지면적 / 3,121㎡
- 건축면적 / 1,197.85㎡
- 연면적 / 3,742.96㎡
- 세대수 / 17세대 (Duplex Type 17플랜)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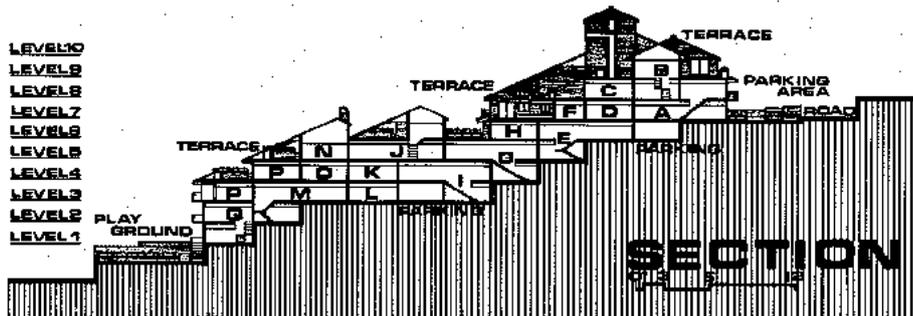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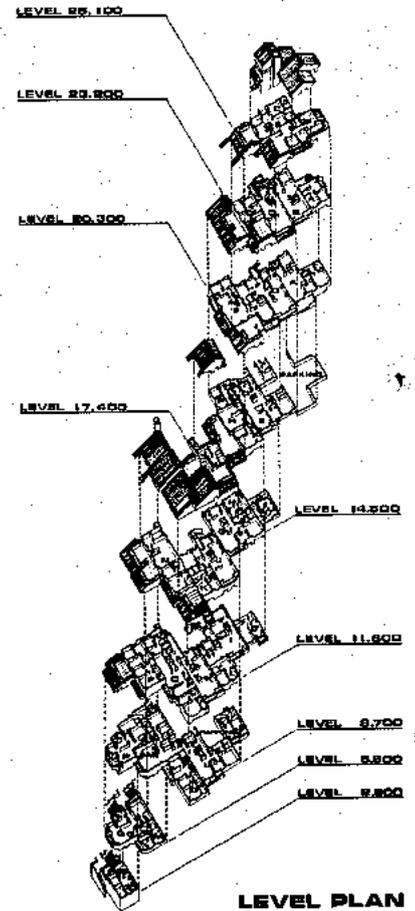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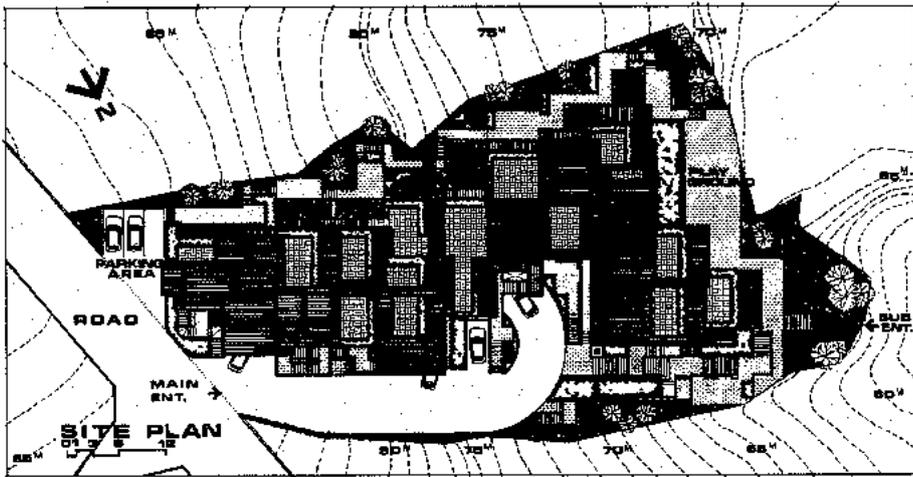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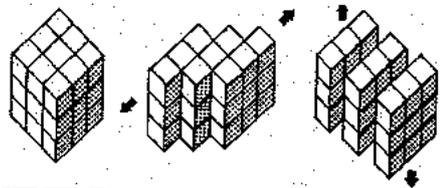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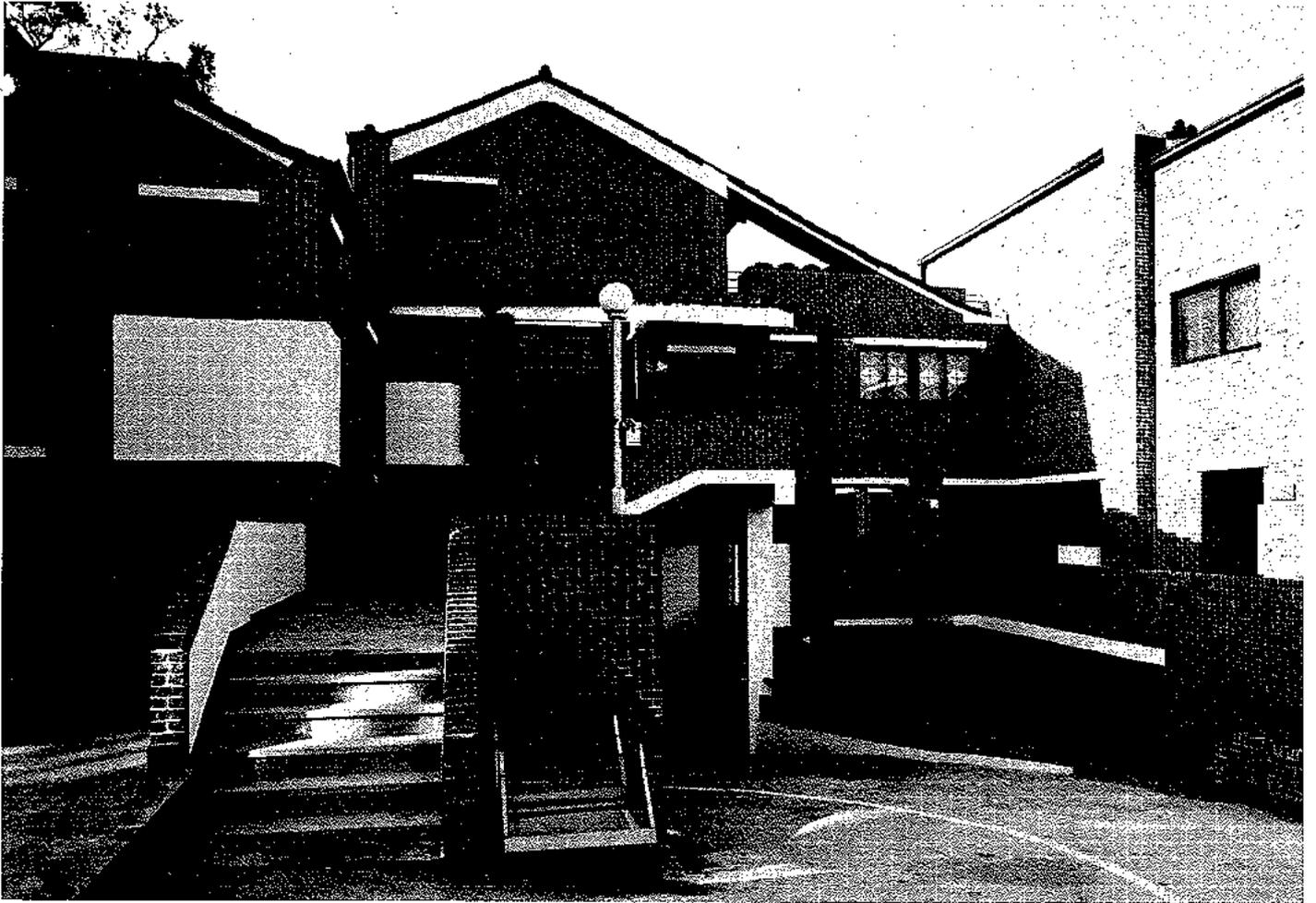
설계소요

밀집된 都市의 경사도가 심한 미개발 대지와 급경사의 기존 주거단지는 수려한 都市景觀과 쾌적한 住居空間으로 개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산재하여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조건의 대지에 자연형태의 경사진 대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변형을 최소로 줄여 경사진 대지에 순응하여 기존 주위환경에 적응하는 테라스형 聯立住居를 꾸며 보았다.

聯立住居의 한단지는 획일적이고 생활자의 개성에 따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동일한 평면과 동일한 규모의 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흠을 접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단독주택의 특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생활과 다른 점이 없다. 그러하여 이번 테라스형으로 계획된 聯立住居는 UNIT마다 상이한 평면과 다른 평수로 꾸며서 생활자의 성향에 따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사지의 여건을 이용하여 단독주택의 장점인 대지와와의 만남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상부층들은 대지를 대신하는 본격적인 테라스에 의한 인공적인 대지를 조성하여 경사진 대지의 형태와 부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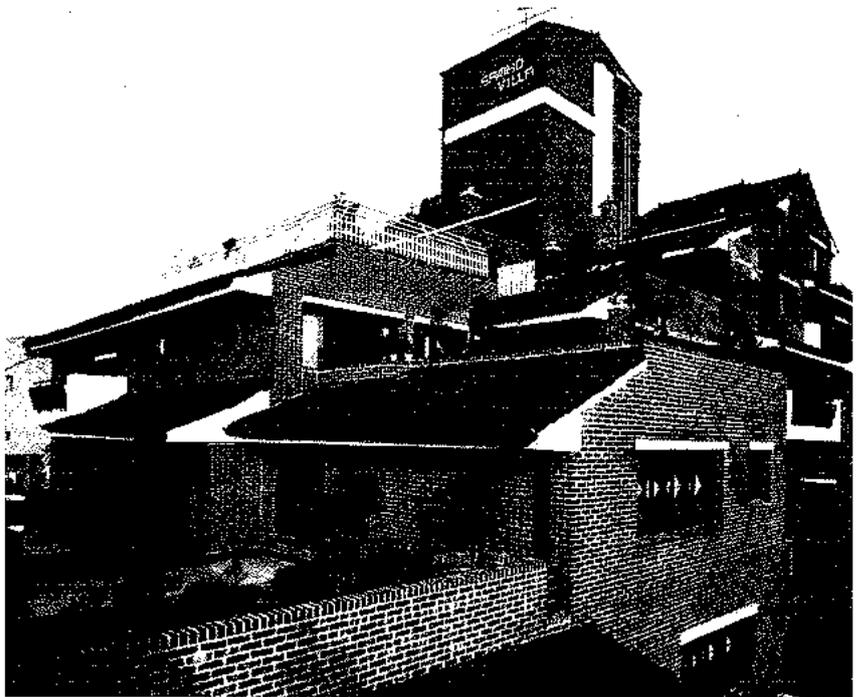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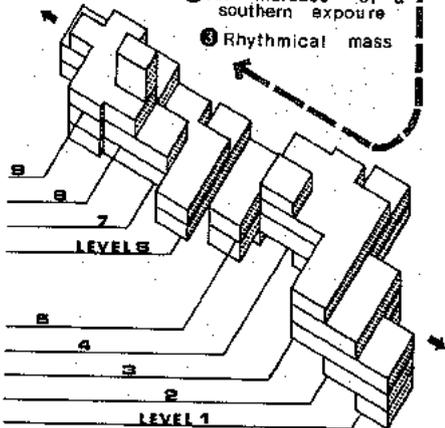






CONCEPT

- ① Adapt to nature
- ② An increase of a southern exposure
- ③ Rhythmical m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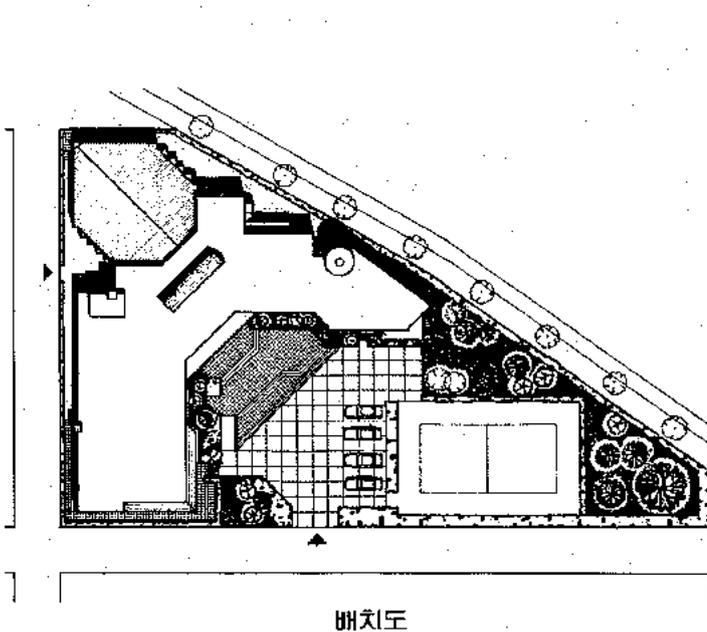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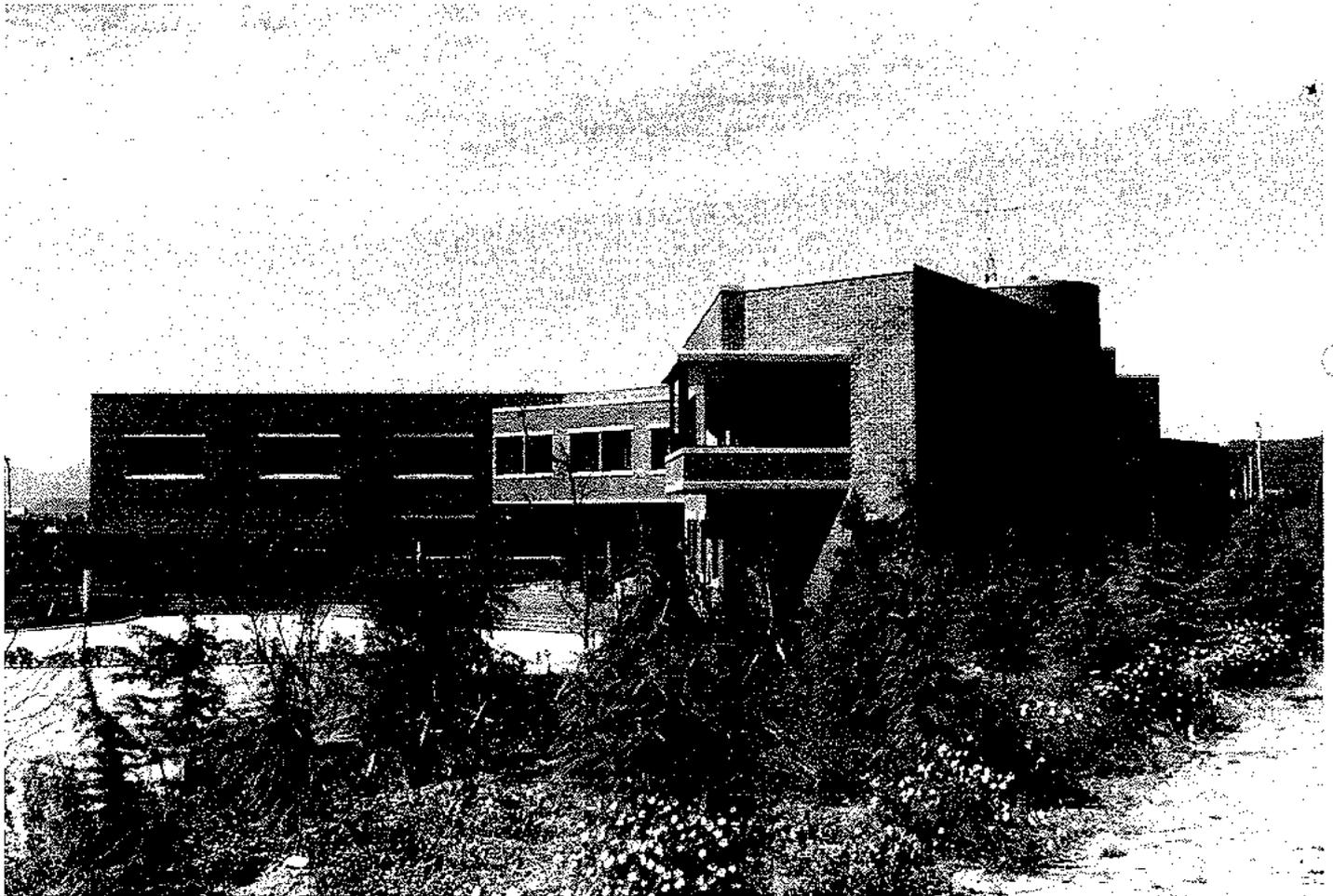
最優秀賞

카톨릭사회교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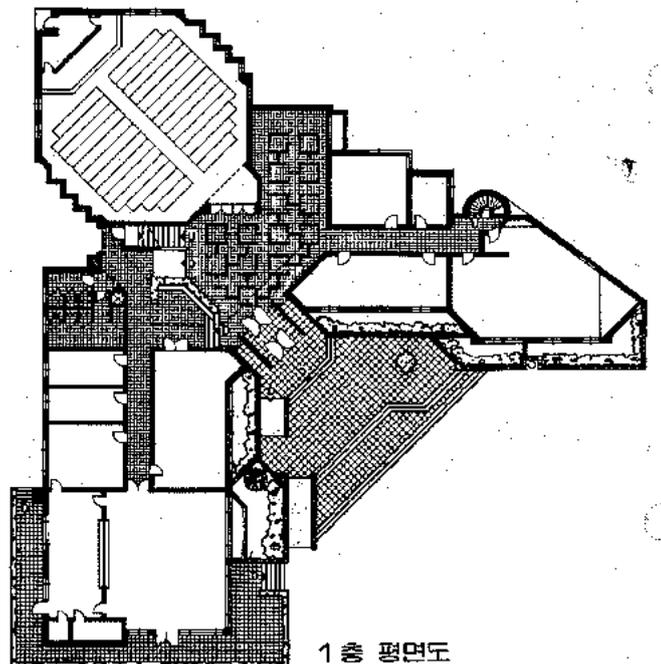
CATHOLIC SOCIAL EDUCATION CENTER

金孝一 / 원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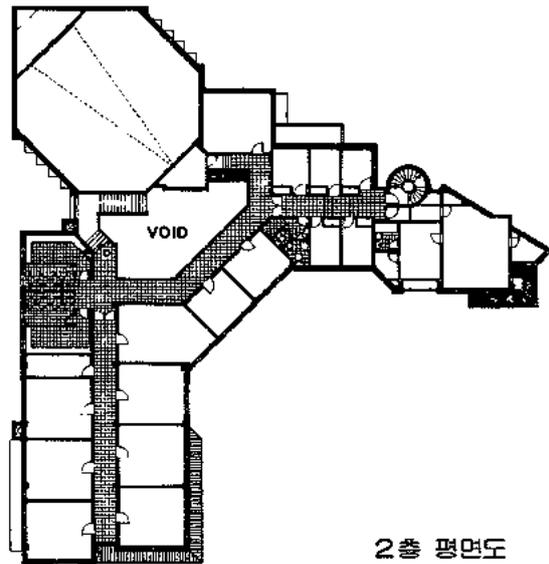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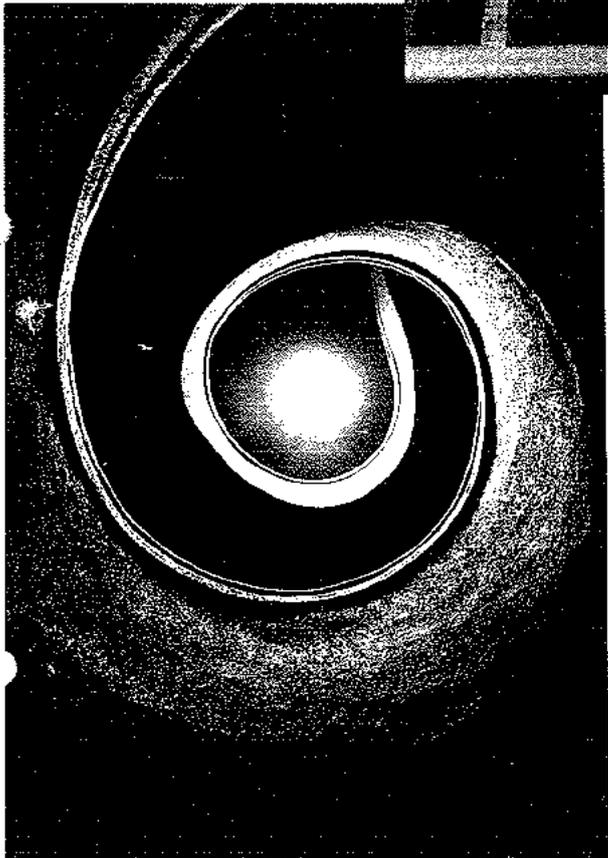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남 창원시 포월연립지구
- 대지면적 / 2,954㎡
- 건축면적 / 1,039㎡
- 연면적 / 1,790㎡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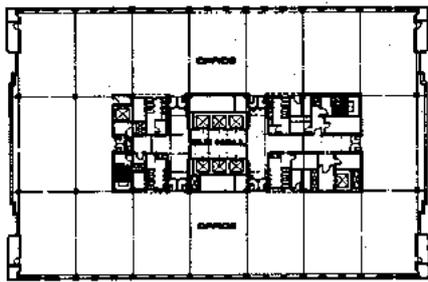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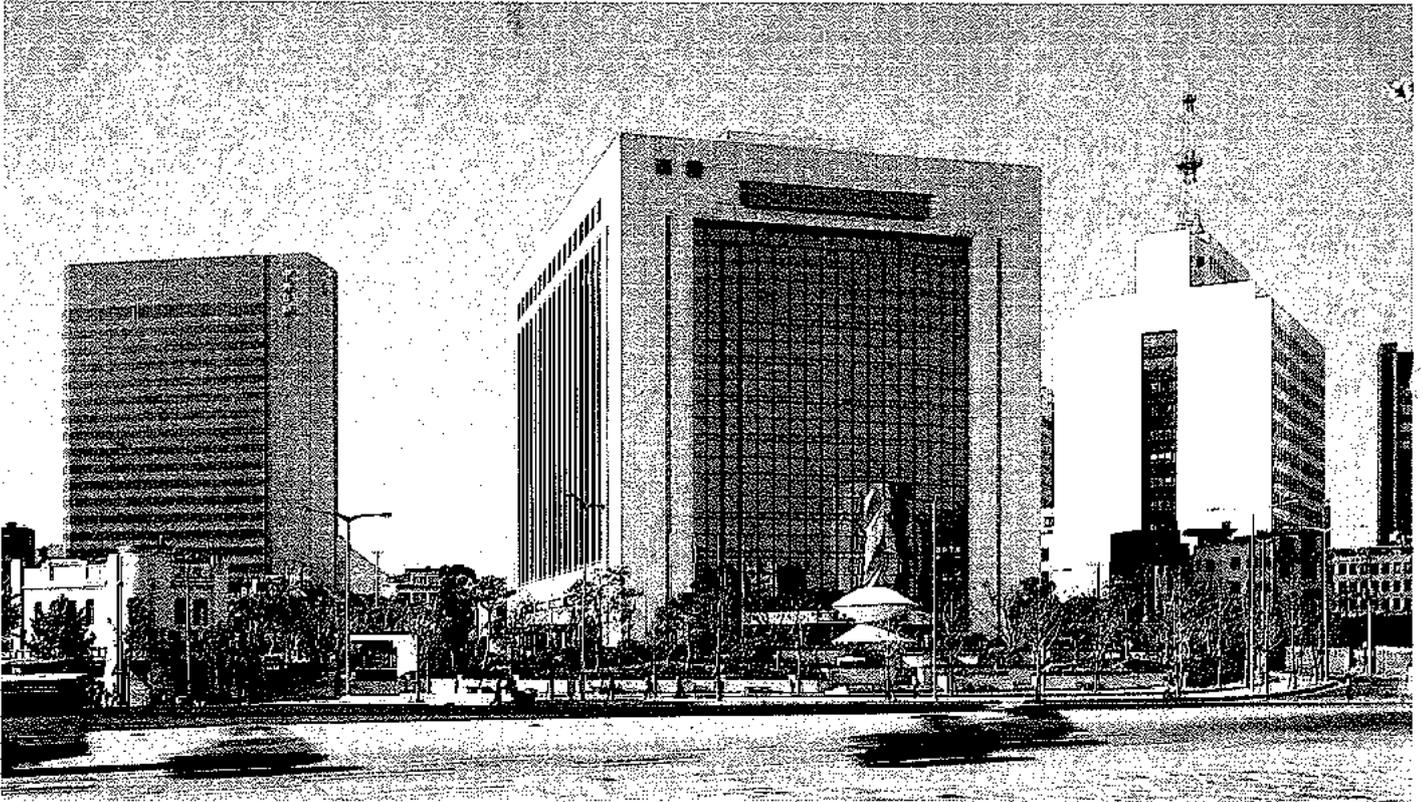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優秀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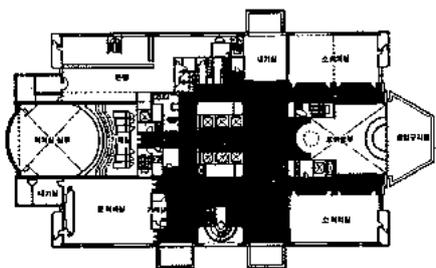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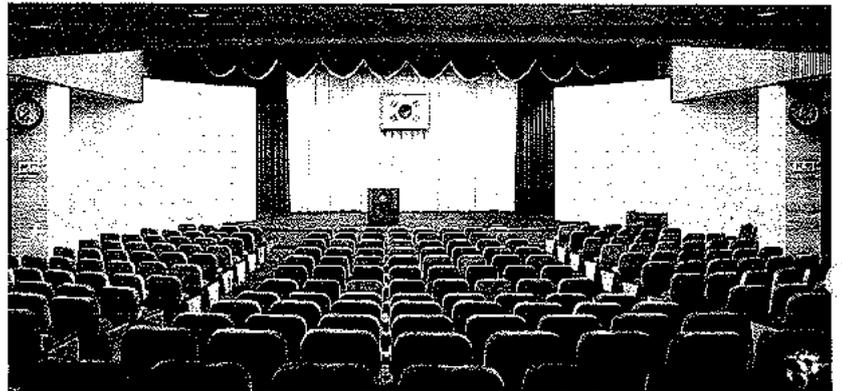
서울상공회의소회관 SEOUL CHAMBER BUILDING

金正澈 /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 건축면적 / 3,344.64㎡
- 연면적 / 46,319.32㎡
- 규모 / 지하 3층, 지상 12층, 옥탑 2층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優秀賞

제주 천제루 (天帝樓)

CHUNJAE ARBOUR IN CHEJU-DO

張順鏞 / 삼성건축사사무소

- 대 지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 대 지 면 적 / 2,645㎡
- 건 축 면 적 / 129.6㎡
- 연 면 적 / 259.2㎡
- 양식맞구조 / 한국전통식, 2층루각 팔각기와자붕, 주삼포식, 철근콘크리트조



설계소요

제주도 내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천제연 폭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계곡은 수직의 절벽을 이루고 있어 폭포의 경관을 조망하기 어려운 지형여건이므로 폭포하류 계곡변에 관망대를 겸한 휴게시설인 2층루각으로 계획되었다.

진입로를 따라 건물 전면 광장에 들어서면 천제연과 관련된 전설을 조각한 비석과 건립비가 있고 건물에 이르는 층단을 이루어 조성된 높은 계단을 올라야 한다.

건물이 위치하는 지반의 조건과 이지역의 기후특성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기초와 건물의 디테일에서의 보강이 필요하였다.

건물의 양식은 주삼포(柱三包)식에 모로 단청을 하였고 2층의 대량과 중종보의 중앙부에는 칠선녀도(七仙女圖)와 신선도를 동양화 기법으로 장식하여 가파른 계곡의 수림사이로 조망되는 폭포의 물줄기와 함께 한국의 정취를 맛볼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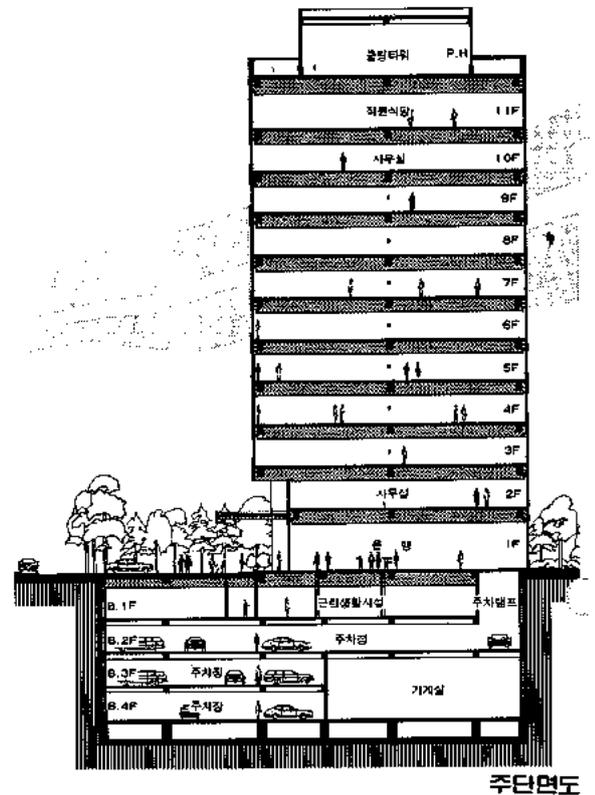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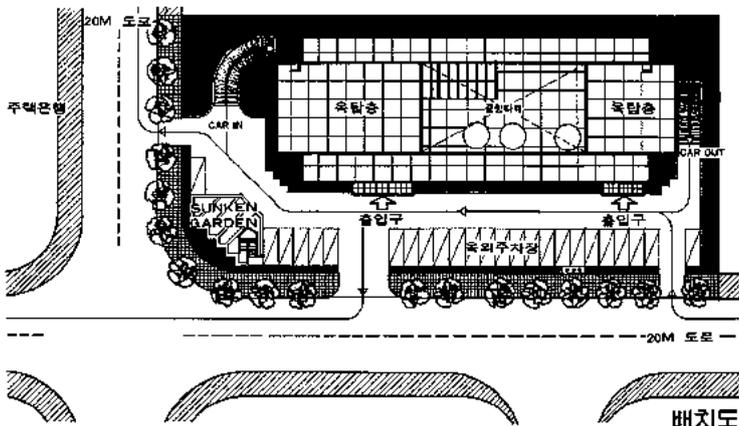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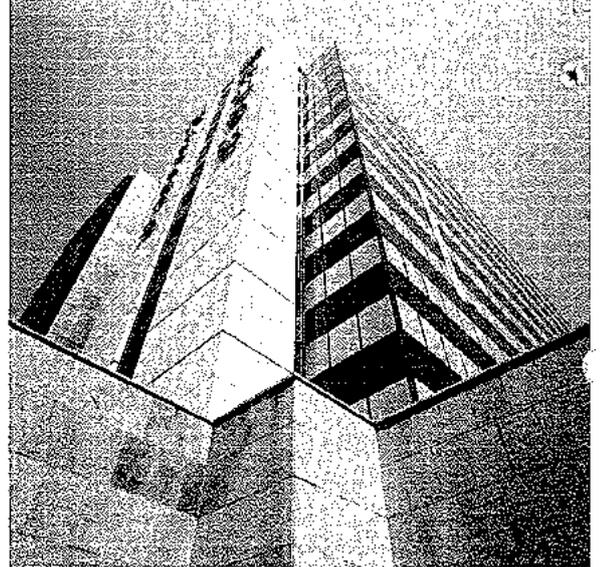
褒勳賞

대신·신영증권 사옥

DAISHIN & SHIN YOUNG SECURITIES CO., LTD BLDG.

宋基德 /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대지면적 / 3,602㎡
- 건축면적 / 1,497.7㎡
- 연 면 적 / 26,526.26㎡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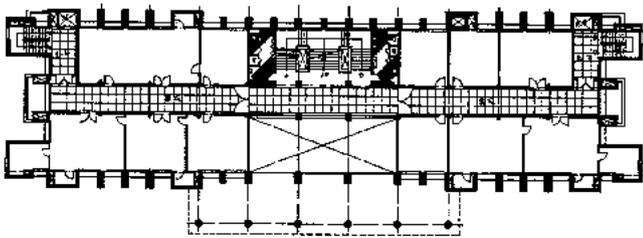
獎勵賞

경남대학교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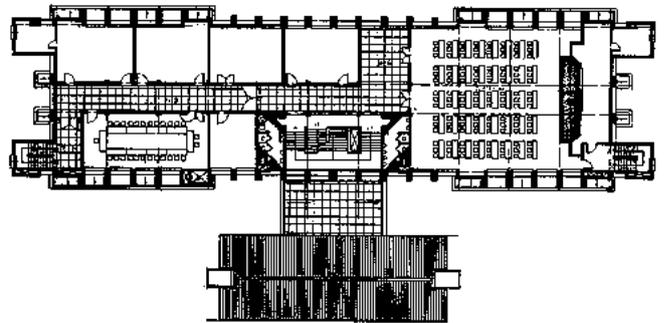
KYUNGNAM UNIVERSITY MAIN BUILDING

- 대지위치 / 경남 마산시 월영동
- 건축면적 / 1,950 m²
- 연 면 적 / 6,050 m²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외부마감 / 화강석 판재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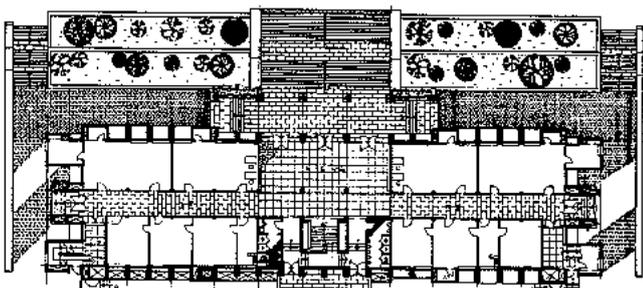
姜泰錫 / (주)한건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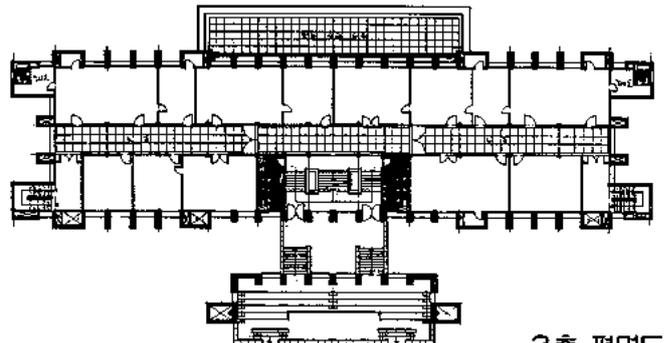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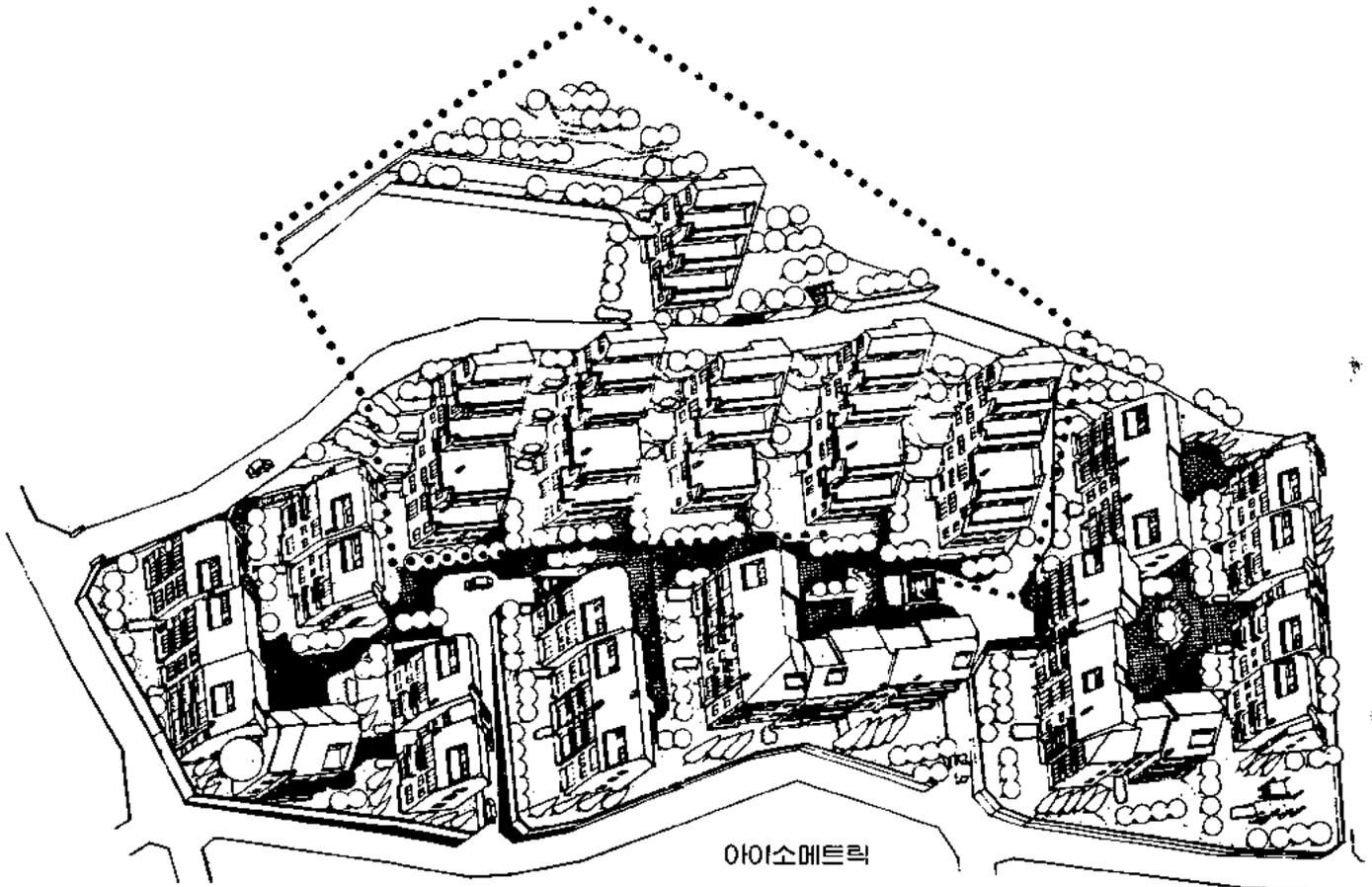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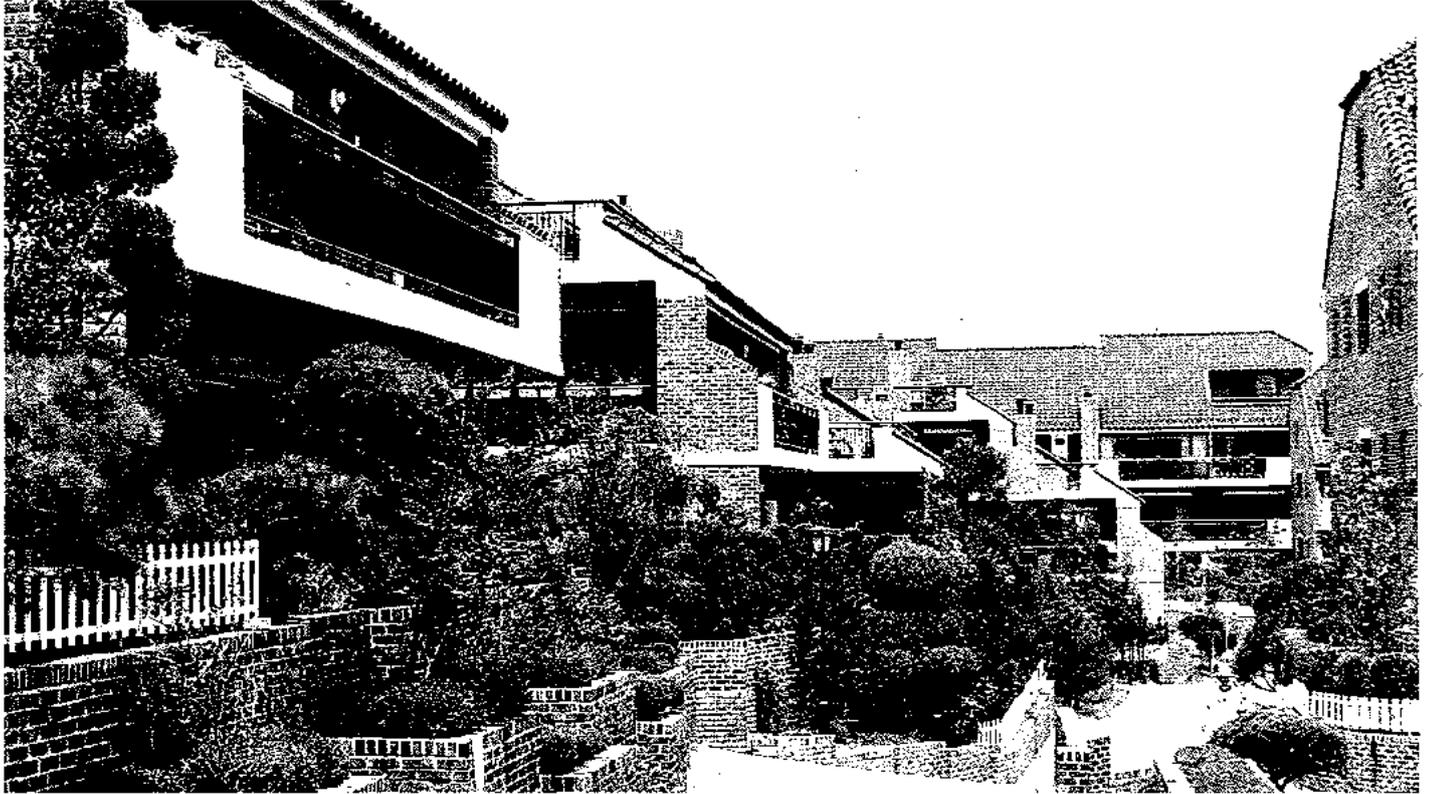
獎勵賞

강남원 빌라

KANGNAMWON VILLA

禹南龍 / 가나건축사사무소

- 대지 위치 / 서울 강남구 반포동
- 대지면적 / 19,866㎡
- 건축면적 / 5,464㎡
- 연면적 / 20,733㎡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주요외장재 / 붉은벽돌 외장쌓기, 스테인쉬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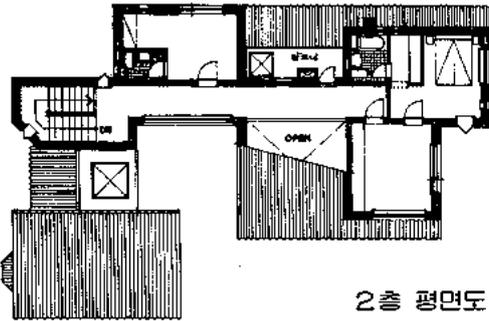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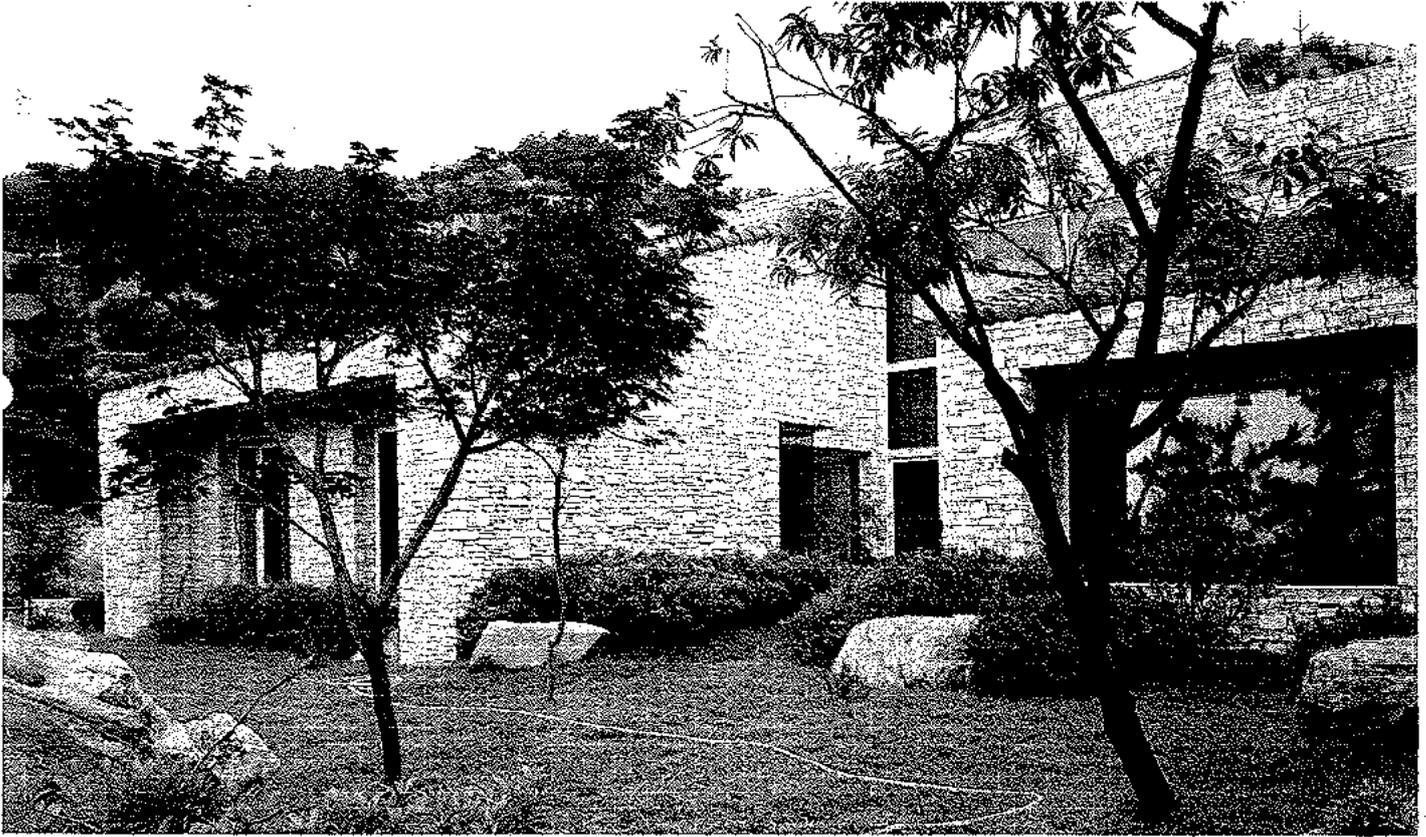
褒勳賞

평창동 J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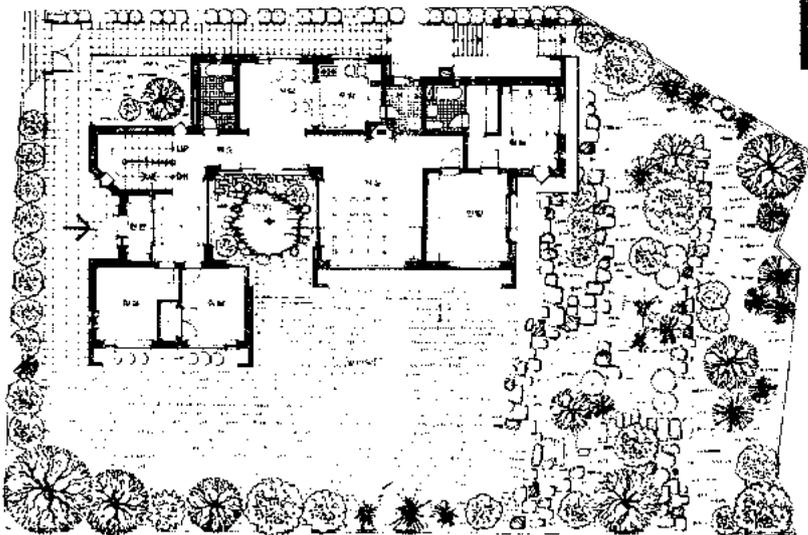
PYEONGCHANG-DONG J'S RESIDENCE

- 대지위치 / 서울 중로구 평창동543
- 대지면적 / 729.0㎡
- 건축면적 / 146.21㎡
- 연 면 적 / 347.92㎡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徐鎮宇 / 건축사사무소 하나



2층 평면도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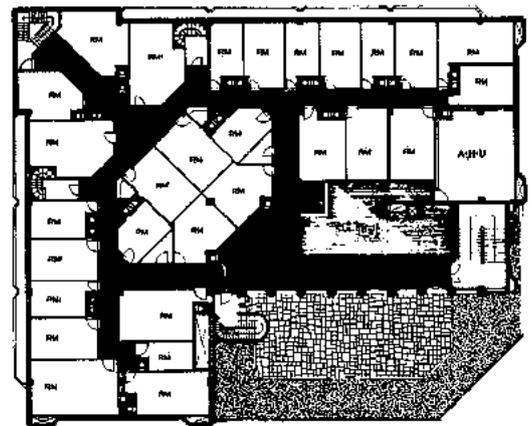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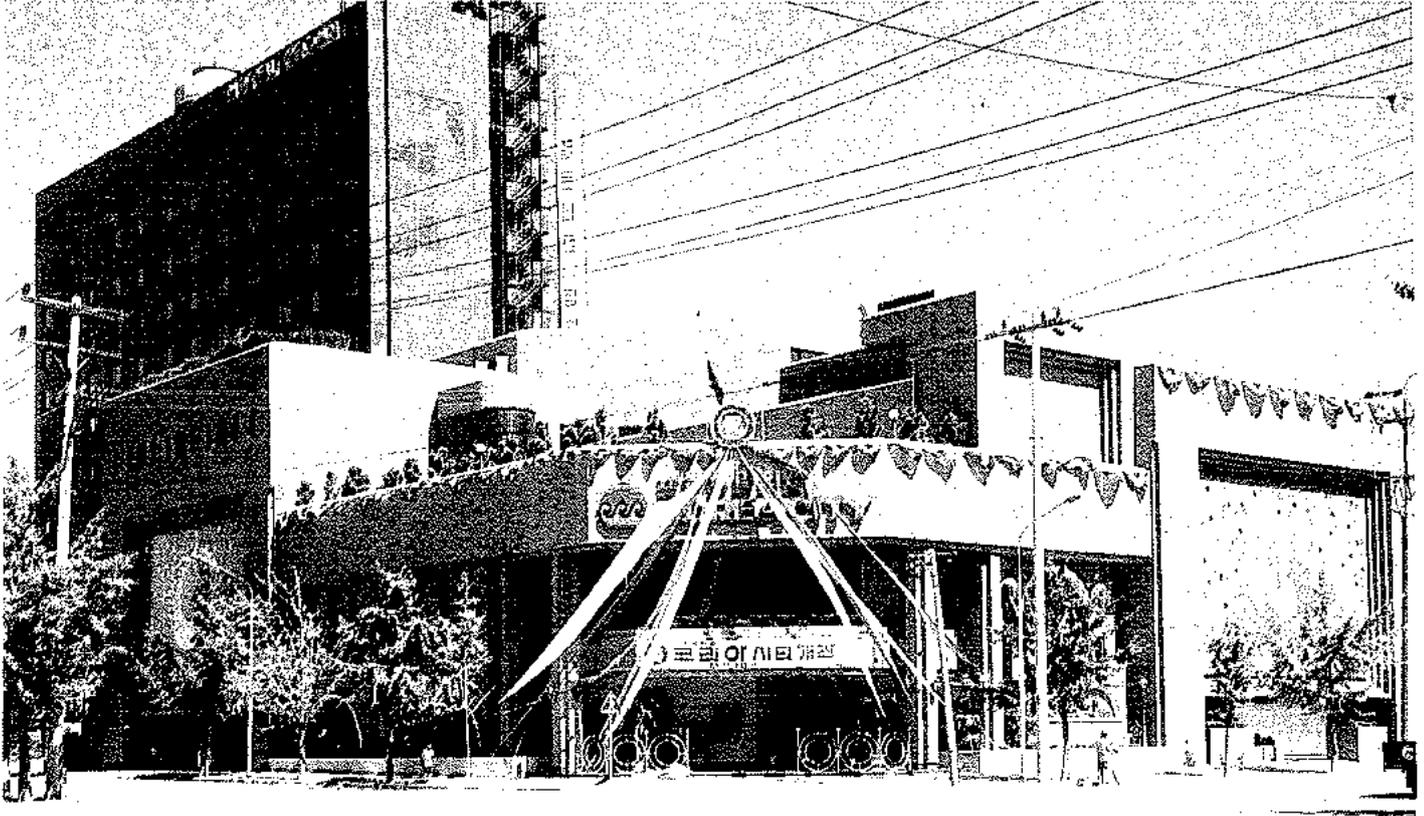
獎勵賞

코리아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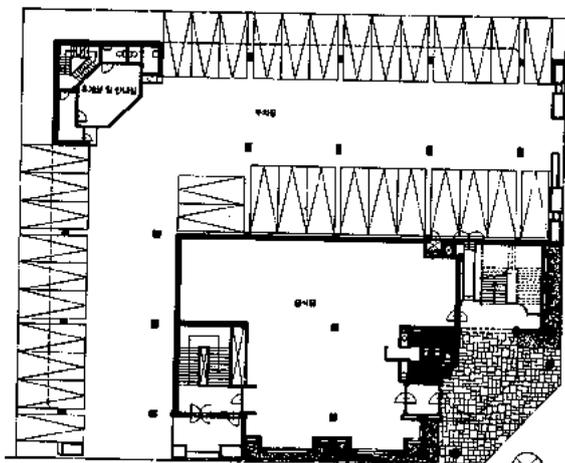
KOREA CITY

李龍欽 / 일신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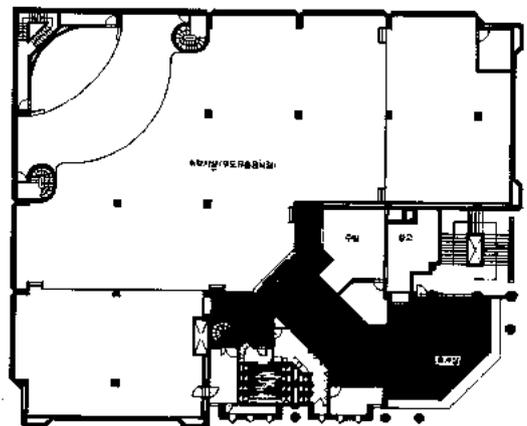
- 대지위치 / 부산시 동래구 범일동830
- 대지면적 / 1,909.80㎡
- 건축면적 / 1,546.56㎡
- 연면적 / 6,763.39㎡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외부 마감 / 캐논세라믹타일



3층 평면도



세워드 미 4 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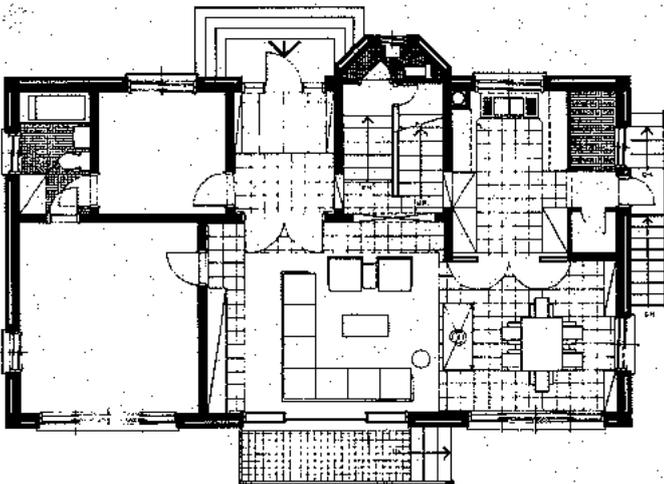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K교수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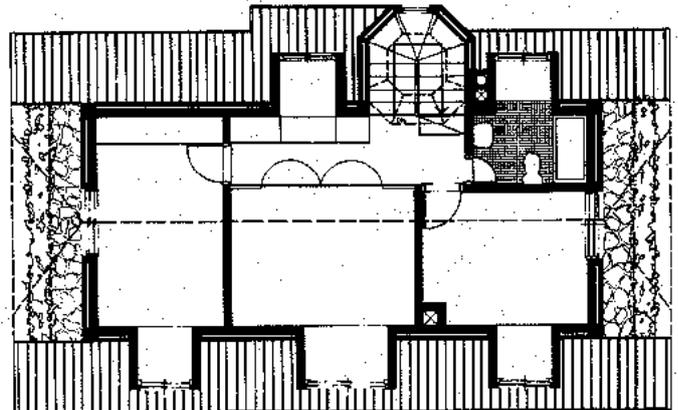
K'S RESIDENCE

俞景哲 / (주) 종합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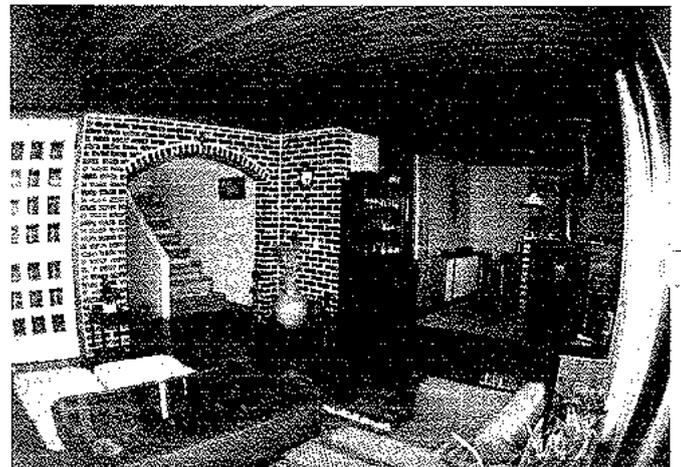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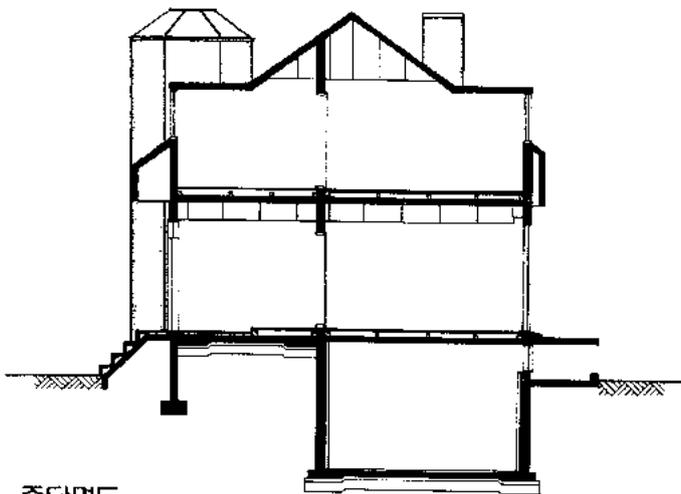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기도 과천
- 대지면적 / 240㎡
- 건축면적 / 99㎡
- 연 면 적 / 198㎡, 1층 : 99㎡, 2층 : 66㎡, 지하층 : 33㎡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85會員建築設計作品展 審査를 마치고

劉 朴 韓
熙 胤 鍾
俊 成 彦
(韓國建築家協會 副會長)
(高麗大學校 教授)
(本協會 理事)

建築의 꽃이라 할 수 있는 住居部門 특히 小型住宅 에 關心을...



韓 鍾 彦
綜合建築士事務所 錦成

이번 '85會員作品展을 위한 작품을 심사하는 자리에 감히 본인이 審査委員會 幹事の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심사위원을 모시고 심사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것부터 우선 송구스러운 자리였으며 또한 이런 연유로 이렇게 몇 자 적는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에게 밝혀 두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번 '85 회원작품전의 심사에 앞서 먼저 작품을 둘러보았을 때 한 눈에 띄이는 것은 작품의 내용에 앞서 작품을 정리하는 기법이 눈부시게 달라졌음을 感知하였으며 한편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특히 달라진 것은 회원작품 수준이 완전히 平準化에 가까워 졌다는 것이다.

입장은 조금 달랐지만 2~3년 전만 하여도 조금은 어색한 정도의 水準未滿 作品이 몇 點씩은 보였는데 이번 '85 作品展에 출품한 작품은 거의가 다 水準作 이 아닌가 하면서 둘러 보았다.

또한 출품된 작품의 수, 종류, 규모, 내용 등 모두가 거의 좋은 작품이었다.

여러 심사위원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좀 아쉬웠던 점은 건축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住居部門 특히 小型住宅의 작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대형건물의 Mass와 중량감에 놀려 지금까지 많은 빛을 보지 못했던 전력도 있지만...

심사위원들도 이 점은 동감이었으며 관계 당국에서도 마찬가지 견해였다.

특히 이번 심사위원은 小型住宅과 非商業用 건물에 관심을 많이 보인 것은 속시정이 있지않나 느껴진다.

매화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번에도 예외 없이 수상작을 고르는데는 어려웠다. 모두가 수상을 하였으면 하지만 꼭 몇 점

을 골라야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와 종류별로 다소의 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애석하게 수상의 순위에서 제외된 작품이 한 두 작품이 아니었다. 여기에 또한 과거에 수상을 한 작품(다른 전 시회) 그리고 다른 작품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방침(?)이고 보면 약간은 명분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본다. 이 또한 심사의 어려움이 아닌가 본다.

66

작품의 내용에 앞서 작품을 정리하는 기법이 눈부시게 달라졌음을 感知하였으며 한편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99

한편 이번 '85 작품심사에서 영예의 大賞을 받은 김춘웅 회원과 함께 수상을 받은 회원에게 우선 축하를 드리며 수상을 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아울러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는 바이다.

이번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김춘웅 회원의 작품은 어려운 대지조건을 무릅쓰고 경사지를 이용한 다양한 계획이란 점과 주거부문의 공동주택이었다는 점에서 수상을 하지 않았나 본다.

역시 작품을 심사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것이며 꼭 몇점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데 문제는 더욱 어려운 것 같다.

또한 순수한 作品性과 特事性도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회원의 作品展은 受賞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작품을 발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며 사실상의 심사는 각자가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몇마디 심사 과정에서의 蓄穗를 적어 본다.

우리의 建築水準에 대한 座標를 이번 출품을 계기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朴 胤 成
高麗大學校 教授

금번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들이 출품한 건축작품에 대한 심사를 위촉받고, 여기에 應해야 옳을런지 應하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망설이게 되었다. 그것은 이 일이 나에게 주계념은 일이고, 많은 회원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까닭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건축의 實現에 대한 作品의 수준과 그 현황을 알아보고 배우는데에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교수라는 직업적인 의식은 後進들을 위한 자극제의 資料 수집이 重要한 일이 되고 있어서, 勇氣를 내어 一方的인 생각이라고 判斷하면서, 會員들의 作品을 평가하게 된 것을 우선 사과하는 바이다.

심사장에는 많은 作品들이 정성을 다하여 출품이 되어 있었다. 이 作品들의 수준은 평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보다는 훨씬 그 수준이 넘는 모두가 손색이 없는 作品들이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創立 20周年을 맞는 이 時點에서 過去를 돌이켜 볼때, 출품된 많은 건축작품들은 모두가 정성어

리게 또한 건축의 예술적인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하는 努力의 결정체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向上되어가는 수준 높은 것으로 일관 유도되어 왔다는 事實에 대하여 우선 경하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出品된 作品들은 그 내용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作品들이 출품되어서, 심사를 통하여 수준높은 이 作品들 중에서 수상대상에서 탈락시키는 일이 또한 큰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상대상을 정하여 가는 과정에서도 건축작품을 用途別로 分類하여 고루고루 分配시켜 가는 방향성과, 더욱이 이번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수상 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회의분위기의 정책적인 배려는 심사과정에서 個別的으로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여기에서 受賞對象에서 脱落된 많은 作品들도 수상을 한 作品들보다 그 內容에서도 창조적인 作品성에서나 떨어진 水準이 절대로 이념을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 作品들은 모두 건축주들의 어려운 要求와 國土가 좁은 우리나라의 實情에서 야기되는 건축법에 따르는 여러 規定에 대한 壓力속에서 이것들을 하나 하나씩 克服해 가면서 建築의 창조성을 살려 좋은 作品의 방향성을 가졌다는 이 事實 또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건축의 실현은 예술적으로 評價받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 價値를 認定받고, 또한 用途的인 기능면과 기술적으로도 높이 評價를 받는 建築이 되기를 누구나 希求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가 이러한 명제에 對할 때 이 모든 과업에 대하여 쉬우게 그 實現을 위하여 풀어나간다는 것이 용이한 것이 아니며, 항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좌표와 内部的으로는 갈등을 가지면서 건축설계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건축에 과하여진 모든 面을 고루고루 잘 소화시키고 調整이 잘된

이번에 出品된 作品들은 그 내용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作品들이 출품되어서, 심사를 통하여 수준높은 이 作品들 중에서 수상대상에서 탈락시키는 일이 또한 큰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건축을 調和있게 實現시킨다고 하면 물론 훌륭한 건축이 탄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分野의 調和된 結果성은 實質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건축수준에 대한 좌표를 이번 출품을 계기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와같은 作品발표를 통하여 自己自身을 기습하고 더 나아가서 自己自身을 재정비를 하여 도약발전하여 갈 수 있는 契機가 된다고 하면 정말 다행한 일인 것이다.

이것은 곧 한국건축의 發展을 위한 굳은 사명감이 응될 것이고, 앞으로의 建築活動의 방향성이 韓國建築의 시대적인 거울이 될 수 있는 作品들이 보다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國際적으로도 認定을 받는 건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것을 가지고 두서없는 말이라고 생각되나 몇마디 심사평으로 하고저 한다.



공학과 예술의 경지에서 보람과 희열을 찾고 맛보면서



劉 熙 俊
韓國建築家協會副會長

울산공대문수관 건물은 강의실에서 교단을 향한 기능적인 의자배치에 따른 6각형의 강의실들과 홀들을 명확한 설계 방향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고 평면에서의 적절한 曲面壁은 바라보는 시점에 의해 입면에서도 그 곡선은 直線狀의 형태에 유연한 느낌을 주고 있다. 内外部 공간에서의 일관성 있는 벽돌재의 사용이나 Lattice Steel 구조에서 느껴지는 開放感은 넓은 공간의 바닥에 떨어진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와 더불어 다양한 느낌을 주는 점 찍 좋게 느껴진다. 넓은 홀에서 옆으로 길게 뻗어진 frame을 통해 내다보이는 자연 景觀의 도입이 감동적 視覺효과를 주는 점이나 계단의 단의 형태가 벽에서 흰색의 같은 느낌의 형태로 反響된 형태감으로 통일감을 느끼게 한 점 등 모두 높이 평가된다. 외에서 solid한 mass와 void된 공간감 사이에서 얻어진 대비감과 계단의 斜線을 정직하고 과감하게 표출시켜 형태감의 도출에 기여케 한 점 등 모두 호감이 가는 설계이다.

금성사평택공장공용회관은 벽돌 mass와 vault형 유리공간과의 사이에서 느껴지는 凹形曲面과 네모진 건물형태간의 對比感과 아울러 그의 材質感의 대비 모두 강한 조화미를 표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solid한 벽돌 mass에서 다시 재질감의 통일성을 부여하며 1층 부분에서의 recess는 다시 같은 類의 대비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입구부분을 포함한 평면계획에서 명확한 해결로의 시도와 벽돌재료의 내외부 공간에서의 일관성 있는 사용이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이다. 내부홀에서의 아아치와 건축화된 조명과 노란색의 과감한 사용은 한국에서의 적절한 post modern-

ism의 경미한 도입이라는 느낌과 더불어 호감을 주는 설계이다.

서울상공회의소회관은 건물과 도로사이의 메마른 도시환경속에 다양한 높이와 형태감 속에서 설계된 造景의 공간계획이 건물과 인간과의 호흡에 일체감을 주고 있다. 건물의 正面性을 필요에 의해 어느 방향에서도 적절히 주고 있고 창과 벽면 사이의 조화감과 scale감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된다. core를 중앙에 두고 사무공간이 돌아가며 터있는 평면계획은 사무기능의 팽창에 따른 이동을 收容할 수 있는 경제적 평면으로 호감이 간다.

한인친추리클럽하우스는 하나의 거대한 지붕 밑에서 기능의 요구에 따라 전개되는 표정의 다양한 변화감이 강한 입체감과 더불어 solid와 void의 대비속에, 그리고 親近感과 壯重感이 또다른 대비속에서 이루어지는 풍부한 형태감이 높이 평가된다. 방풍실을 지나는 횡적인 部材의 형태상의, 그리고 색조상의 강조 등은 새로운 감각적 素地를 싣는 표상해 주고 있다. 외부지붕 형태의 내부에서의 표정과 자연스러움 또한 호감을 주는 설계이다.

대한재보험건물은 無柱空間의 사무소가 주는 책상 배열의 융통성에 따른 경제적효율을 높이려는 뜻과 사무실 공간과 core와의 관계정의가 명확한 설계이념에서 일관되고 있는 점 등 높이 평가된다. 다만 외관에서 core의 solid하고 밝은 mass와 사무소 공간부분의 어두운 표면과의 대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interlocking된 느낌이 다소 아쉬운 것이 안타깝게 안느껴졌으면 더 좋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성심여대지하성당은 대학캠퍼스에서

지하레벨에 그의 기본층을 두어 종교적 겸허함과 소음으로부터의 격리와 지하성당 주변 조경환경의 지상의 복잡함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시켜 주려는 작가의 기본구상이 높이 평가된다. 8각형 성당 내부의 pointed shape의 아래위로 긴창들의 반복된 리드미칼한 형태는 낮은 周壁에 성당이 갖게되는 분위기를 심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지하성당으로서의 天窓의 도입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비스런 공간분위기에 기여를 하게 하고 있다. 노출형의 球形燈의 성당내부에서의 설정은 딱딱해지기 쉬운 角形의 내부공간에 cord pendent등이 주는 tension감과 더불어 떠다니는 공간감을 자아내주고 있는 점 등 모두 높이 평가된다. 작가의 의도나름이었으나 외관형태와 사용 材質感 pattern 등이 high-tech의 느낌을 주고 있으나 친근감이 다소 아쉬운 것이 없었다면 꽤 좋았지 않았으나 하는 느낌이 아쉬움으로 다소 남는다.

부산삼일교회는 불정형의 평면형태감을 느끼게 하나 세심한 幾何學的 처리와 기능에 따른 단면상의 높이의 변화와의 교차효과에서 나오는 내외부의 다양한 입체감이 높이 평가된다. 천정의 lattice pipe girder의 구조의 노출은 인간의 정직성을 주창하는 교회의 이념을 표상해 주듯 구조의 순수미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다시 단조로운 평탄한 내부벽면과의 사이에서 質感의 대비로서의 조화미를 자아내주고 있는 데에 호감을 느끼게 한다.

마산고려병원은 기능에 따른 구조계획이 세심한 배려에 의해 이루어져 설계되고 있으며 외래병동의 2층 규모에서의 중정은 그의 넓이와 더불어 입구와 로비에서 병원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그와 아울러 1, 2층 복도에서 화사한 느낌을 주게 하는 것 등 모두 높이 평가된다. 외관에서 일반병동과 외래병동과의 연결부나 외래의 2층의 floating 효과가 주는 橫的인 運動感이나 병동의 평면기능에 따른 외관의 다양한 형태구성 모두 좋게 느껴진다. 다만 column layout에서 span이 각기 달라진데서 오는 施工性上的 경제적 문제가 기능에서 얻는 경제성을 능가할 수 있는 설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은 다소 남는다.

금성전선구미사무소건물은 평면계획과 입면계획 다같이 單純美를 구가하는 깨

끗한 설계이다. 밝은색 타일과 검은색 spandral과 유리면 사이에서 오는單純性的의 획득이나 세심한 배려에서 분할된 여는창의 위치가 주는 디자인등 모두 높이 평가된다. 전체적인 건물의 이미지에서 조용함의 느낌은 단순함이 주는 아름다움 이외에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대신신영증권사옥은 명확한 기능이 구조계획과 더불어 해결되어 나가고 있는 점이나 유리창면과 high-tech의 느낌의 spandral의 과감한 색의 채택은 어두운 도시공간에 밝고 발랄한 색상을 제공하여 환한 느낌을 주는 역할에 기여한 점 높이 평가된다. 다만 청색이 약간 떠보이는 느낌이 없이 밝으면서도 살아있는 청색조였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태원테라스하우스는 경사진 어려운 대지조건위에서 주변환경의 지붕들의 형태가 조화롭게 도입되어 統一感을 부여하면서 공간구성상의 다양감을 個의 尊重이란 설계이념을 바탕으로 자유분방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Rudolph의 예일대 기혼자숙소에서와 경사진 아파트 住居群이면서도 테라스가 있는 독립주택의 형식의 설계이념이 서울에서 심분 발휘되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점 좋게 생각한다. 그것은 흰색으로된 낮은 담장에서 더 구체화 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엮이이는 설계로서 기능에 따른 공간형태구성상의 완숙함이 벽돌과 백색 요소사이의 대비와 더불어 視覺的 즐거움을 주거환경에 주고 있다.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감이 다소 혼란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카톨릭사회교육관은 주어진 대지의 상황을 적절히 잘 활용한 점과 幾何學的 형태로서의 斜線벽면과 4각과의 interlocking이나 1,2층의 개방된 홀의 변화감 있는 처리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선과 벽돌과의 대비감이나 내부계단에서 조그만 디테일로서 gradation의 리듬感의 효과를 내주고 있는 점 모두 높이 평가된다. 다만 기도실의 형태감으로서 내부에서의 느낌이나 넓은 공간으로서의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고 어두운 낭하등이 더 잘 해결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강남원빌라는 경사진 언덕을 따라 어려운 대지조건을 심분 잘살려 공간구성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벽돌벽과

백색면, 난간과 斜線요소 등이 적절히 잘 쓰여져 주거건물로서의 친근감과 변화감을 잘 이루게 하고 있는 점이나 건물群사이의 외부공간에서 안옥한 community의 느낌주고 있는 것 모두 높이 평가된다.

평창동 J씨택은 현관에서의 vista와 적절한 공간의 넓이가 주는 delight, 거실, 식당의 적절한 프라이버시와 연못으로의 vista, 이층에서의 긴 복도의 軸의 양측에 전개되는 변화감, 잔다와 하늘의 진한색 사이의 흰돌과 스페니쉬 기와와의 調和美, 돌쌓기방식의 친근감, 외벽면과 유리창 사이의 깊이를 준 생각, 모두 높이 평가된다.

평창동 L씨택은 어려운 대지상황속에 평면이 기능에 따른 direct solution으로 실이 배열되 나가고 있는 점과 흰돌과 wood shingle과 목재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이층의 지붕형태로 하여금 과감한 형태로 하면서 주택이 지니는 個性을 살린 점이 높이 평가된다. 지붕형태상의 통일성과 크기의 다양감에 의한 통일성 또한 좋게 느껴진다.

용평크립하우스는 평면에서 홀, 안내소, 대기소, 식당, 배선소, 주방, 남녀화장실 등 공간의 구획이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 친근감있고 변화감있게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 건물외관의 斜線形 형태의 方向性的의 변화가 주는 均衡感은 나무의 붙이는 방향의 일관성에 의해 건물상호간을 일체로 엮어주는 통일감을 부여케 하는 것등 좋게 평가된다.

서울프레스센터건물은 core와 사무공간의 배치나 평면형태에서 나온 외관에서의 네면의 方向性的을 포함한 上昇感의 부여와 적절한 높이의 1층 부분과 캐노피와 건물높이 3요소간의 스케일감의 적절한 구사 등이 좋게 평가된다.

코리아씨티는 외관에서 회화적인 구성으로 건물에 다양한 변화감을 주고 그 위에 한국적 이미지를 그래픽적으로 처리한 것 좋게 느껴진다. 다만 외관을 위해 평면의 창의 회색이 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제주천체루는 작가가 우리의 전통공유건축을 계승 설계하고 있다는데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 이러한 대지에 이러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누가 보아도 눈에 낮설지 않고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그 傳統美를 느끼게 해주어 고맙다. 다만 아직도 우리는 傳統의 現代的表象이 바람

66

빠르면서도 정확한 설계이념과 이론과 감각에서 가능하면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 나를 포함한 모든 건축가들이 지니는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99

직한 것인가 아닌가 또는 바람직 하다면 어떤 형태감으로 표출될 것인가 그로부터 나온 혹시나 어설픈 건물형태는 내재한 뜻은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에 傳統을 빙자해 나오는 視覺公害는 일으켜주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대로 옛날것을 여러곳에 자꾸 세우는것이 옳은 길이 될 것인가 또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적어 두기로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든 산업이나 국민총생산고와 더불어 우리의 건축 설계문화도 그와 발맞추어 발전해야 되고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발전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를 수는 없는 것일까. 또 빠르면서도 정확한 설계이념과 이론과 감각에서 가능하면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 나를 포함한 모든 건축가들이 지니는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60년대초에 미국서 조금더 공부한뒤 여러해동안 설계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over design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오고간 기억이 난다. "It looks too busy."라든가 "It looks too much."라든가 하는 뜻과 통용되기도 하는 그말은 기능의 해결과 그에 따른 내외부 형태에서 고려해야 될 수많은 사항들과 그들의 비중이 배려되고 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설계로 전개될때 그말은 어김없이 찾아드는 괴로운 낱말이기도 한 것이다.

남의 작품을 심사한다는 것처럼 너무 외람되고 송구스럽고 괴로운 일도 없다. 오늘을 사는 우리 건축가들이 맡은 보다 좋은 건축환경을 국민에게의 제공이란 대국적 측면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공학과 예술의 경지에서 보람과 희열을 찾고 맛보는데 서로 좋은 점을 얘기하고 더 큰 confidence 속에서 많은 건축가들이 구옥같은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一念에서 심사에 응했고 너무도 미진하지만 심사평에 대해고저 한다.

'85會員建築設計作品展 受賞을 하고

大賞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金 春 雄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쉽!
자연, 전통, 아름다움!
고뇌, 번민, 밤샘, 순리!
여러가지 단어들...

建築士로서 걸어가는 길이 길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을의 밝은 빛이 빛나니!

大賞수상의 기쁨은 어찌 나 하나의 기쁨이 아니요, 모든 建築士가 차지하는 기쁨일 것이다. 이러한 영광의 빛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본협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작품을 구상하고 계획, 설계하여 시공이되고 탄생할 때까지 산모의 각고를 같이 지켜온 Client와 시공회사 여러분에게도 더불어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새로운 Project에 몰두하고, 깊숙히 숨어있던 낯설지만은 않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하루하루의 고뇌속에 새로운 생명이 가꾸어져 나갈 때 더 나은 것을 키우려는 建築士의 마음은 항상 환희속에 두려움을 더해간다. 마침내 태어난 새로운 생명과 마주설때 언제나 나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치 못함에 대한 미련이요(물론 언제나 완전한 것은 없을 진대)부끄럽도록 미흡함에 대한 나 자신의 아쉬움이나 생활자의 불편한점은 없을까 하는 것은 어인 일인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생활자가 잘 가꾸어 키우고 다듬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딸을 시집보낸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유난히도 찌는듯한 작년여름밤

Project(이태원 테라스하우스)를 대할 때 어느 건축사나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다듬고 하여 몰두, 고민을 하면서 Project성질상 조금 달랐던 接近方法에 접했다. 우선 시공회사와 Turn Key S-

ystem의 작업으로 급경사지의 惡條件 垆地에 대한 견제 및 자연현장 유지라는 문제를 설정하고, 수익성을 만족시키는 범위안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주거생활을 지향하고, 자연그대로의 여건을 포용하며 Duplex Type의 주거공간으로 계획안을 작성, 협의 그 안을 채택할 때까지만 하여도 기대감에 바쁜 나날이었다. 그러나 실지로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둘 부딪쳐올 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풀며 이러한 조건의 Project는 두번 다시 못할 것 같다(?)는 힘든 나날이었다. 드디어 완성되어 종이위의 한낱 스케치가 실물로 존재하며 부딪쳐올 때의 보람은 진행중의 고뇌가 더욱 먼 옛날의 추억으로 느껴지는 누군가가 말한 建築士의 즐거움이라.

영광스러운 受賞이 앞으로의 한발 정진하라는 모진매로 생각하고 建築士의 길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무거운 감을 갖게 된다.

자!

이제는 작품을 대할 때의 고민을 또 한걸음 한걸음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最優秀賞



金 孝 一 원건축사사무소

**건축이 실존적 가치에 대한
 진실된 체험의 소산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며**

建築이 實存空間으로 구현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장벽과 구속이 설계자앞에 가로 놓이게 마련이다. 특히나 계획과정에서부터 예산부족으로 단순한 평면적·기능치리나 실용적 목적만을 고집하는 건축주의 요구조건이 그 많은 구속영역중에서도 절대 우선할 때, 분명히 非人

間的인 建築空間은 물론, 非文化的인 環境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이 경시되어 왔던 사실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우리사회 일각에서도 차츰 고조되어 가고 있고, 더구나 문화적 환경과 문화공간 확대의 여론과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것은 진지한 삶을 염원하는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요건인 동시에, 대중이 갈망하는 영원한 공동체 감정의 발로라고 본다. 따라서 이 Project에 대한 나의 관심은 内部空間의 質的 向上과 文化的인 空間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있었다. 말하자면 세련된 내부공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정신을 갖도록 하며, 또한 심리적으로도 상호간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계상의 기본개념은 평소에도 늘 생각해 왔던 것이며, 몇번 시도해 본 실제의 경험도 있었던 바다. 즉, 거기에는 문화공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公共性的 屋內 大空間에 신축성있는 空間擴大感과 그 方向性에 유동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여 自由空間의 의미를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Project는 건축주로부터 모든 신뢰를 받는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한정된 예산때문에 설계자의 야망을 더욱 넓힐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싶지만 이 건물의 工費는 서독 카톨릭 미세례올기관의 원조기금에서 충당된 것인만큼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곳 건축담당 건축가의 폭넓은 이해심과 요셉 플라츠 신부의 협조와 사랑으로 이 정도의 案이 성사되어 완성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때로는 設計者가 계획상의 주제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建築主의 몫까지 다 해야 할때, 더 많은 부담과 고민에 빠지게 되지만, 신뢰를 받고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더욱 진실할 수 있었고 자기자신을 여러 측면에서 시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건축이 실존적 가치에 대한 진실된 체험의 소산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나의 상념은 더욱 넓은 또다른 단계의 영역으로 내려 쫓고 날아가고 있었다.



張 順 鏞 삼성건축사사무소

흔들림없이 더욱 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동의 建物이 이루어지기에는 수많은 참여인원이 소요된다. 각자의 말은 바 입장에서 修正案이 제시되거나 절충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 중에서 때로는 영향력이 큰, 참여인원이 아닌 사람의 熟考되지 않은 건축외적인 평가에 의한 변경이 생길 때에는, 특히 設計者로서는 의욕상실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그런의미에서 본 작품의 설계사에 귀빈의 즉흥적인 발상안에 대하여 설계자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인 建築主의 식견에 먼저 감사드린다.

단순히 참여해 보겠다는 의지로 作品展에 출품했다가 뜻밖의 영예를 얻게 됨에 감사함과 반가움을 만끽했으나, 돌이켜 생각하면 일반건축물이 아닌 전통양식에 의한 작품이라는 이색적인 면이 심사시에 적지않게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짐작도 들기에, 아직은 내놓고 자랑할 처지도 안되므로 앞으로 정진하라는 권면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배부른 투정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앞으로는 傳統建築만 다룬다는 칭호를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되기도 한다. 좋게 생각하면 設計分野에서도 특정한 부문의 專門家라는 권위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뿌리깊게 자리잡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그것 밖에 할줄 모른다는 베타적인 경향도 도외시 할 수 없기에 그러하다.

건축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겠지만 특히 일반의 建築主나 官公署에서는 건축사들을 단적으로 특징 지워 생각하는 편리한 방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아파트전문, 주택전문, 빌딩전문, 주택전문 등으로 구별하여 개개인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현대에는 分業化하는 기능적인 방법을 요구한다는 원리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권장할 방법이기는 하다. 그런데 특정한 부문을 잘한다는 평가보다는 그것외에는 잘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사용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에서 들은 예들은 다같이 일반건축이라는 공통성이 있기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傳統建築專門이라는 호칭이 부여되면 일반건축의 설계의뢰를 망설이는 예를 적지않게 보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대학졸업후 일반의 設計事務所에서 7년이상(건축사법 개정으로 현행은 5년이상)의 수련후에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建築士資格을 취득한 후, 다시 문화재 분야의 수련을 2년이상 쌓은 후 文公部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문화재실측 설계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에게 주어지는 전통건축밖에 모른다는 칭호는 너무 섭섭한 대접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대건축만 전념해서 업무를 수행해온 분들에게는 현대건축의 실무에 관해서 더 많은 경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한가지 자격을 더 추가했다고 해서 감정이 되는 현상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現代建築에서 전통건축의 응용발전이라는 과제는 건축인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질 과제일 것이며 그것도 한 두 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달리 해석하면 문화의 발전이란 면에서는 完成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겠으나, 발전을 위한 노력없이 시간만 흘려서 저절로 발전될리 만무하므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인정해야 하고 논리의 정립도 필요하고 건축에서의 진정한 전통성이 무엇인가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受賞所感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이 되어 부적절한 소감이 되었으나, 아무튼 본인으로서 審査委員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정진하여 나가라는 뜻으로 선정해 주신 것이라 믿고, 아울러 개인적으로 기념이 될 명예를 마련해 주신 協會長任 이하 關係委員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慶南大學校 本館



姜 泰 錫 / (株)韓建중집건축사사무소

건축작품은 나 자신만의 작업이 아니다.

하나의 建築物이 사회와 대중앞에 거두기까지는 최소한 建築主, 建築士, 그리고 技術者(施工者)라는 3자의 역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建築主 즉, 그들이 개인, 사회, 또는 국가이든간에 그들의 必要欲과 目的이 분명해야 하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經濟的 能力과 建築에의 理解가 뒤따라야 한다.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建築士가 참여하여 설계하여 주기를 원하며 유능한 技術者를 선택하여 시공하고 싶어한다.

오늘날 建築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짓는다는 것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혹자의 말을 인용하면 “建築士들은 시간과 그들의 문화속에서 후세에 영원히 남겨지기 위한 藝術作品을 創造한다. 그러나 技術者들은 아주 훌륭하게 시공하지만, 오직 공간속에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작업할 뿐이다”라고 했다.

금번 大韓建築士協會 創立20주년 기념 작품전을 통하여 경남대학교 본관이 심사위원님들에 의해서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설계자인 나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建築主, 施工者도 함께 그 대상이 되어 비평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오직 그 결과에 대한 초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고 싶다.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향후 그 건축물의 空間內에서 생활하고 있는 使用者들이나 管理者, 그리고 대중의 눈을 통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평가는 아직도 궁금한 미지수가 아닌가?

建築美에 대한 기호는 시대적 사조에 따라 변하며, 사회대중문화의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建築은 神의 계시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建築士 자신의 부단한 勞力과 經綸, 그리고 원숙한 인격을 통해서 성장되는 예술이라 할진대, 과연 건축의 신동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 본다.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대부분 건축주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들은 가장 저렴한 설계비로, 그것도 그들이 지정한 최단시간내에, 완전하고 훌륭한 설계를 갖고 싶다고 의뢰 받았을 때, 우리가 建築士가 아닌 미술사, 또는 만화가의 재능을 겸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당감스러움을 금치 못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建築士들이 사회와 대중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建築士像을 정립하는 길은 반짝이는 재치, 적당한 방법으로 사회와 대중속에 융화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그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철학을 명확히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코리아씨티



李 龍 欽 / 일신건축사사무소

격려로 알고 보다 더 정진할 터...

제작년 '83 회원 작품전에서 '태화소망'으로 將勵賞을 수상한 이후 뜻깊은 協會 創立 20周年 기념의 해에 地方의 작품을 또다시 將勵賞으로 채택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 작품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綜合慰樂施設로서 부산의 새로운 도심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면에 인접한 신흥 개발지역인 범일동에 소재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불모지라고 하는 부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建築主의 의지에 부응하여 본 작품이 이루어졌다.

휴식과 오락의 場으로 충분히 배려한 평면과 어울릴 수 있는 격조높은 외관의 처리에 무척 고심했으며 여기에 시도된 SOPER GRAPHIC은 문양과 색상으로 발전하는 한국과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메마른 부산의 거리에 예술성을 부여 시민 자신의 거리로 변모시키려는 의도의 일환이었다.

地方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부진하게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작품의 창작에 노력하여야 겠다고 생각한다.

이 賞이 이러한 의미에서 주어지는 격려로 알고, 보다 적극적인 작품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뒤에서 수고해준 많은 사람들과 이 조그만 기쁨을 나누고 싶다.

평창동 J씨댁



徐 鎮 宇 / 건축사사무소 하나

소도구에도 은총이 나리다

오늘도 神의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 일개인의 力量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는 마음은 얼마나 다행스러우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사랑, 자유, 의지, 투쟁” 이것이 나에게 도구가 되고 나 또한 도구가 되어 세상만사를 흘러가고 있다는 깨달음은 정말 머리를 숙이게 하여진다. 우리(건축주포함)들이 만들어낸 집이 賞을 받았다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建築主를 만나게 한 섭리가 나에게서는 더욱 幸運이다.

건축주의 소박하면서도 음악을 아끼고 사진을 좋아하는(자유의지)는 나의 발상을 자유스럽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과정이요 메끄러운 채찍질이었다.

조그마한 영광이지만 모두를 建築主에게 돌리고 미미한 능력이나마 더욱 끈질기고 열심히 도구가 되어야 겠다.

20年 回想의 窓가에서

張 起 仁 / 本協會 2代 會長



大韓建築士協會 創立 20周年을 맞으
 매 만감이 가슴을 치는듯 하다. ·돌이켜
 보면 建築學에 몸을 담은지 반세기, 광
 복 40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이땅에 최
 초로 市街地 計劃會가 내리고 1940년 建
 築代書士 자격고시 첫회에 면허를 받아
 시공회사의 설계부에서 광복을 맞고 대
 한민국으로서의 건축사 회원으로 20년이
 지난 다음 현재의 大韓建築士協會의 일
 원으로 시종하게 되었음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大韓建築士協會의 창립당시에 동고동
 락하던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초대 회장
 金舜河 선생을 비롯하여 이사 車景淳 등
 지와 먼저가신 회원님들의 명복을 빌면
 서 다시 머리숙여 당시를 회상한다.

창립시에 회원 200여명이던 것이 20주
 년 현재 그 10배의 회원으로 성숙된 것
 은 오로지 회원 모두의 열의와 희생의
 결실이라 치하드리는 바이다. 初創 당시
 를 회상하면 旧協會의 後身이기는 하지
 만 아무것도 물려 받은 것은 없었다. 따
 라서 이때부터 旧協會는 사라지고 새로
 이 출발하였다. 뜻을 모으고 약간의 기
 금과 성의로 사무실을 차리고 가구직기
 를 마련하였다. 會의 운영을 맡은 會長
 과 任職員 일동은 좌절할 수는 없고 오
 히려 용기백배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향
 하여 분투하였을 따름이었다. 그래도 모
 자랄때는 理事님들의 出捐이 불가피한
 때도 있었다.

일년뒤 初代 會長님은 병고로 운명하
 시자 協會葬으로 양지바른 산소에 奉安
 하였다. 그 유족은 감사의 뜻으로 故人
 이 쓰시던 건축서적 일부를 협회에 기증

한 것으로 안다.

실인즉 당시 총무이사이시던 金在哲 (3
 대 회장) 선생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
 퇴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2代會長에 오른
 것이다. 殘任期를 마치고 선배님이신 金在
 哲 선생은 지방으로 회장출마차 지부장과
 상의하였던 모양이었다. 이때에 2級建築
 士를 없앤다는 공적이 제기되었으나 본인
 이 우려한 바대로 어떻게 없애느냐에 대
 해서는 논의된바 없었다. 技術士法의 관계
 인사들의 의견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깨
 달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과제들이었다.
 2급건축사에게는 당시 1급 건축사의
 자격을 얻을수 있도록 개방하여 두었는
 데도 아랑곳 없이 지내다가 거저 1급이
 되는 것으로 짐작한 것은 큰 오산이 아
 날수 없었다. 또 하나 金在哲 회장님은
 본인의 동문 선배이시고 연장자인 탓으
 로 당연히 2代會長으로 모셔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도중에 왜 사임을
 하였으며 出馬遊說란 무슨 뜻인가. 본인
 에게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물러 날것을
 왜 그랬을까, 불가사의한 일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아니한다.

창박을 내다보면 높이 솟은 빌딩, 멀
 리 아파트 건물군은 모두 새로운 창조물
 이고 우리 건축사의 손을 거친것이라는
 자부심보다도 위대한 도시문화의 건설역
 군이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동안
 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 진것은 우
 리 모두의 영광이 될 것으로 본다. 建築
 士로 자처하면서 건축설계란 개인의 영
 업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봉사로서 보답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부단한 기술연마와 인

간덕망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協會의 잠음도 없지 아니하였다.
 總會때에 부질없이 시시비비하는 일로
 「총회꾼」이란 말도 있었고, 설계도서 마
 비 등으로 代書房匠人이란 비방도 없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제는 모두 사라지
 고 지성과 기술 그리고 덕망을 갖춘 건
 축가로 비약된 것은 기뻐할 일들이다.

회원의 비위도 있으나 이는 재물의 탐
 욕이 지나친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개인을 위하여 동료 建築士에게 막대
 한 손실을 끼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보
 다 우리들을 위하는 겸허한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한다. 덤핑이나 일을 가로채는
 일들은 소인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것
 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참된 建築士가
 아니라는 뜻도 있다. 물욕보다도 건축예
 술 창조에 헌신하는 일에 치중할 때 좋
 은 設計制作이 가능하고 아울러 존경받
 는 建築家로서 추앙될 것이다.

20년 건축사 생활에 만족스러운 일도
 많았고 파오도 적지 않는듯 하다. 다만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더욱 힘쓸 것이고 會
 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강한 발전을 기원
 하면서 오늘이 있을때까지 함께 일하고
 서로 아껴주시던 여러분에게 더욱 감사
 하며 20년 협회를 지켜보면서 외길을 걸
 어온 建築士의 現役으로는 하직할 때가
 되었다고 마음 먹고 있다.

역대 회장님 · 이사님 그리고 임직원들
 의 따뜻한 정성에 한국인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가득함을 새삼 느끼면서 회원여
 러분의 지성과 덕망을 갖춘 大建築士로
 대성하시기를 비는 바이다.

이제부터는 地位向上을

姜 明 求 / 本協會 4代 會長



協會의 나이가 쌓임에 따라 어려서부터 지켜보던 나에겐 감회가 남다른바 있다. 그 발전하는 모습이 마치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그 어려운 예비고사도 거뜬히 거쳐 이제 으젓한 대학생으로 자란 모습을 보게되니 믿음직하고 든든한 마음에 참으로 대견도하고 다행스럽게 그지없다. 協會가 벌써 創立 20周年이 되었다니 새삼 세월이 유수같다는 느낌이 더욱 진하다.

해방과 더불어 제일먼저 설립된 建築學會가 그 당시로서는 유일한 건축인의 협회였고 건축인들은 누구나 입회하였으나 學會는 學術的이고 工學的이어서인지 얼마있다 수복후의 서울을 재건하기 위한 實際設計를 작품화하려던 의욕적인 젊은 건축가들은 건축이 오로지 공학적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창조성과 예술성이 더 앞서야 한다며 작품성을 더욱 중시한 소수 건축가들과 따로 모여 建築作家協會(현 建築家協會)를 결성하였는데 실은 혹시나 기존 建築學會와의 분파, 분열의 인상이나 오해가 생기지나 않을까 몹시 조심스러운 가운데 창설되었다.

그러던 5~6년후 이번에는 설계업무를 주로하던 建築士들이 모여 建築士協會를 뒤늦게 창립하였는데 벌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이렇듯 건축인들의 단체가 청부업자협회는 세쳐놓고도 새가지나 생기게 되어 일반 사회인들이나 건축학도들이 각 協會를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 되었으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합이 힘들다고 인식되던 일반 사회인들이 建築에는 아예 무관심하게 되고 만

것이나 아닌지...

아름은 일반사회에 건축에 대한 계몽은 절실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建築學會는 기술적 문제와 학술연구로 우리나라 건축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文敎部의 지원으로 그 성과는 크다.

建築家協會도 주로 건축의 예술적인 창작능력이 강한 건축가들로 구성되어 건축작품 향상에 이바지하며 현재에는 U. I. A. (국제건축가연맹) 가입단체로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新建築의 선양 홍보에 크게 공표하고 있다. 文公部의 후원으로 藝總 산하단체이다.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건축계는 일원화가 되지 못한채 건설부, 문화공보부, 문교부 등에 각각 속하고는 있으나 이렇듯 복잡한 건축의 전반을 하루 속히 일반사회에 숙지시키기 위하여서도 土協會 뿐 아니라 건축관계 전협회가 각자의 역할을 일반에게 宜撫할 일은 우리들 건축인 전체의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

제일 막내동이 建築士協會는 법적절차에 의한 設計圖書 임무를 영위하는 建築士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마지막 協會로 建設部의 감독하에 있으면서 실무경험을 통하여 建築法 建築士法의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

다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건축계는 일원화가 되지 못한채 건설부, 문화공보부, 문교부 등에 각각 속하고는 있으나 이렇

듯 복잡한 건축의 전반을 하루 속히 일반사회에 숙지시키기 위하여서도 土協會 뿐 아니라 건축관계 전협회가 각자의 역할을 일반에게 宜撫할 일은 우리들 건축인 전체의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다행히 建築士協會는 건축의 3형제중 막내 임에도 현업을 하고있어 그중 제일 부자이고 단결력도 강한 편이라 兄弟를 제쳐놓고 먼저 貰房도 면하고 다소 여축도 있어 이제는 오히려 어려운 돈을 도둑고 建築집안을 위한 가장노릇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집안 형편을 끌어올리기까지의 고생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많은 홍역을 겪어야 했을 것이고 때로는 낙제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또 초기때는 회의꾼들의 모임이라는 무시까지 받아가며 도서등록문제 1·2급 문제, 보수규정문제, 건축사법, 또는 덩핑문제 등으로 많은 애로와 난관들이 증첩했으나 해를 거듭 할수록 차근히 밀고나와 이제는 3형제중에서도 A학점을 딴 우등생으로 이주 능률한 청년이 되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을 위하여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최후로 극복하여야할 문제—건축사들의 사회적 신뢰도를 확립해야 할 큰 짐이 우리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設計圖書의 질적 향상을 위한 報酬規定의 엄수로 건축사 전반의 지위향상과 인격도야가 최우선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우수한 청년이 대성하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확고한 길잡이로 삼아야 된다고 본다.

20년의 回顧

韓 昌 鎭 / 本協會 7代 會長



白日夢 같이 어리둥절한 세월이다. 바로 엇그제 일 같은데 20년이 지나갔다는 것이 어이가 없으면서 뭔가 쓸쓸한 감회다.

적어도 두번은 山川이 변한 셈이다. 그리고 그 사이 갓난 아기는 成年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20년전 그 때의 “나”와 지금의 “나”

20년전 그 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과 여진들은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나.

허둥대면서 여유도 멋도 없이 지나오다가 이런 기회에 되돌아보게 된다.

그 때와 오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곧 그 때와 오늘을 생각해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 저것 自己對話를 통해서 다시 조명해 본다는 것이다.

일찍 Cambridge대학의 역사학 교수 E. H. Carr이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20년전의 “나”, 약한 30대 후반 젊음을 대변한다고 날뛰면서 술한 무례를 저지르고 선배들을 괴롭히고들 했다. 그러다 보니 土協創立 發起人으로 이미 유명을 달리하거나 멀리 80객으로 이민가서 살고 계시는 선배들과 시비를 따졌었다. 그것이 바로 얼마전의 일같이 생생하기만 하고, 아직도 그분들의 말소리며 持論들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나”, 단지 조금 늙은 것 같기는 해도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헛살아 왔다는 회한이 있다. 답답한 이야기지만 아직도 제대로 철이 든 것 같지가 않다.

도대체 所信을 이루어 본적이 없다. 다

벗나간 것이다. 철저한 空間性的 추구와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려 했던 나의 간절한 소신도 무너지고, 건축인으로서의 사회봉사와,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Client 입장에서의 봉사에서도 조금도 보람을 가지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다.

나 스스로 주변머리 없고 주착없는 소치에 피로울 때가 많았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얼마나 피로왔을까. 아직도 곤잘 고집을 부려놓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지혜가 떠오르는 만각에 후회와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 봐야 이미 지나친 것 되살릴 수 없다.

어제의 “우리”, 그것도 사실은 별수가 없었다. 發起人會에서 만든 정관이 하루 밤 사이에 변조되어 두고 두고 괴로움을 당한 일. 대가들께서는 土協創立을 반대하신 분들이 많았었다.

오늘의 “우리” 20년의 역사는 과연 영광만일까.

엄청난 변화는 인정된다. 그러면서도 뒤 그렇게 변한 것이 없는 우리들의 사회적 地位나 받고 있는 處遇, 그리고 우리끼리의 해소시킬 수 없는 갈등 같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자랑스러운 회관도 마련했고, 회원들의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설계의 수준들도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고 협회지가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 모두가 成長을 뜻하는 것도 사실이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비교한다면 얻은 것이 많다고 평가해야 하겠지.

불과 20년사이, 그 사이에 너무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건축 30년? 우리가 보고 자란 바탕이래야 뻔한 것, 우리가 배운 건축이래야 역시 뻔한 것, 아직은 실험과 연수

의 과정을 열심이 뒤쫓아가고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고작 흉내와 이해에 바쁜 형편에서 잘못 저지르고 있는 오류도 문제고 지나친 오만도 문제이며 대중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는 불신도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우리가 안고 있는 직능단체로서의 역할과 구조적인 약점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役割에 대한 확고한 定立이 없이 서로 상반된 모순을 지닌채 잘해나가 보려고 하는데서 그 어느쪽도 잘 안되어 나가고 배로는 그 한 쪽이 다른 쪽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도 있다는 것. 즉, 언젠가 말한 적이 있는 協會로서의 건축사 권익보호라는 방위적 역할과 하나의 문화로서의 발전을 전제토한 연구단체로서의 역할, 이 두 역할을 다해야 하는 二律性を 여하히 슬기롭게 기능해 가느냐 하는 일이다.

단체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무력하고 방대한 일 양에 비하면 너무나 소외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높은 지능도(學歷 등)에 비해서는 너무나 非知性的인 모임,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아닌가 한다.

건축가의 Image를 빛나게 하는 P.R. 보다는 우리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수렴할 수 있는 몇몇한 자세와 슬기가 중요하다.

영광스럽든 후회스럽든 어제는 다시 울리었다. 그리고 來日은 여전히 未知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어제의 연속일뿐인 오늘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오늘 할 일의 올바른 완수를 결단해 가면 나중에 歷史的 대화가 또 이루어질 따름이 아닐까.

벗들에게 感謝하며

李圭福 / 本協會 8, 9代 會長



우선 「協會20年の回顧」라는 주제하의 글월을 부탁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人間이 태어나 스무 해를 맞이하면 소위 成人式(冠禮)이란 것을 행하여 「한人間으로서의 완전한 正立이라는 의미를 널리 알리고 축하 하듯이 協會로서의 스무 해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면에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 막상 이 글을 쓰기 위해 펜을 들고 나니 지난 일들이 한꺼번에 뇌리를 스치는 感懷 또한 깊은 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닌가 ...

本人은 역대 유능하신 선배님들의 代를 이어 임원과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하에 8·9代 協會長으로 선출 되었으며 본인이 재임할 당시는 시기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여러 불리한 점들이 유난히도 많았던 점 기억에 생생하다.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순전한 타의에 의해 본인이나 회원 여러분들께선 願하지도 않은 統合豫算實施 문제라든가

대의원 선출에 따른 定款改正문제 또 정화 차원에서 야기된 會員間의 不協和音 등이 기억에 남으며 한편으로는 당시 會長으로서 좀 더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당시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世上일이 매양 그러하듯이 협회일 역시 당시의 여건 속에서는 누가 大任을 맡아 진행시키더라도 自身 하나만의 의욕과 적극성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음을 스스로 자위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과는 달리 숙원 사업인 建築士 設計報酬 料率 개정안과 建築士 所得標準稅率 인하 조정안을 통과시키는 기쁜 일들도 있었으며 협회 창립 이후 최초로 각 支部間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지부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추억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時間은 지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따르듯이 이렇듯 몇 자 쓰고 나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 協會 創立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며 오늘의 建築士協會에 발전을 안겨주시고 이제는 유명을 달리하신 初代 金舜河 회장과 회원들의 생각이 간절해 진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명복을 비는 바이다. 創立 20周年을 맞이한 協會에 본인이 願하는 것이 있다면 회원 여러분의 福利 增進과 權益擁護를 위한 제도상의 확고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參與意識과 단결을 또한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본인의 任期中에 있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굴곡없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위의 여러 벗들을 대신하여 이 回顧談을 올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協會의 무궁한 발전을 祈願드리는 바이다.



제 7 회 지부장회의를 주관하면서



제 1 회 회장배정할 축구대회를 마치고

더욱 심心하고 叡智를 모아

金 萬 盛 / 本協會 11代 會長



우리協會가 어느새 創立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창립 당시부터協會에 관여 해온 나로서는 萬感이 교차하는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건축을 나의 천직으로 알고, 동안의 20대에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청춘을 불살아 왔던 지난 20년간은 내 개인의 作業과 함께協會일에 몰두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된다.

協會는 창설 당시 그야말로 맨손 빈털터리로 시작되었다. 서울시 지부 임원을 맡고 도서등록 업무를 시작했으며, 예산이 확보 안된協會의 살림을 꾸려 나가느라고 회원의 사무실을 빌어 한 귀퉁이에서協會일을 시작했다.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멋진 빌딩을 갖게된 환경과 비교하면 참으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볼 수 있어서 뿌듯한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協會를 운영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그중 사무실 유지비 문제가 늘 큰 문제였다. 당시協會는 서울시 지부가 운영의 모체가 되어 있었으며 지부장이었던 나는 매월 막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셋방 살이를 해야 했었는데 이를 면하기 위해 그야말로 일대 용단을 내렸다.

일부 임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서린동의 아담한 건물을 사들였다.

이 건물이 모체가 되어 오늘의 훌륭한 협회건물이 마련된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무리를 해서라도 건물을 구입하기를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오늘날 우리는 2천여 회원을 거느린 대協會로 규모가 커졌으며 큰 살림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큰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원을 비롯

한 회원의 협력과 자각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지난날 내가 협회의 임원으로 일을 할 때 멀리 앞을 내다보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지만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없다.

눈 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다보면 큰 일을 못하게 된다. 國際化時代를 맞은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기술향상을 도모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협회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모토이다.

66모래알 처럼 삭막한 인간관계에서 탈피하여 서로를 아끼고 화합하는 풍토 조성이 우리의 화급한 일이라고 충언한다.

그럼으로써 2천명의 대 식구를 거느린 우리協會는 이제 회원 상호간에 진실한 친구로서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건축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협회를 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는 건축인이 되어야 되겠다. **99**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協會는 몇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치 인간이 탄생해서 젖을 먹으며 걸음마를 배우듯이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 장년기를 맞는것 같이 우리協會도 그간 수많은 파란곡절을 겪으면서 오늘과 같이 성장해 왔다.

협회 창설 때부터 관여한 나로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관심을 쏟으면서 지켜 보고 있다.

많은 회원을 거느린 우리 협회는 지역 복지문제에 있어서 지역 나름으로 고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 될 수가 없으나 임원들과 회원이 가슴을 열어놓고 꾸준히 협력해 나간다면 발전의 디딤돌이 하나 하나 쌓여 튼튼한 협회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특히 우리 업계가 몇년동안 불황기를 맞아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합심하고 예지를 모아 건축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는 한때 협회를 직접 이끌어왔던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전회원들에게 충정어린 고언을 하고져 한다.

모래알 처럼 삭막한 인간관계에서 탈피하여 서로를 아끼고 화합하는 풍토 조성이 우리의 화급한 일이라고 충언한다.

그럼으로써 2천명의 대 식구를 거느린 우리協會는 이제 회원 상호간에 진실한 친구로서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건축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협회를 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는 건축인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 20년동안 협회일에 음으로 양으로 관여한 바 있는 나로서 때로 후회와 회의도 느낀 바 있지만 결국 우리 건축인들이 합심 노력하면 큰 일을 할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나는 언젠가 단상에서 인사말을 하는 중에 친구가 있으면 영원히 죽지않는다는 영화대사를 피력한 적이있다.

우리의 발전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똘똘 뭉쳐 영원한 친구로 협력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화합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協會創立 20돌을 맞으며

金斗燮 本協會 12代 會長



本協會가 創立總會를 갖고 발족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언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20돌을 맞아 어엿한 성년기에 접어들었으니 창립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회를 느끼며 한편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실감나게 한다.

돌이켜보면 창립당시 회원 213명으로 발족하여 일정한 사무실조차 없이 전전긍긍하며 주머니 돈을 털어가며 無로부터 시작된協會가 오늘날 2천300여 회원으로, 현대적인 自體 會館까지 마련하고 연간 18억 여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창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전 회원과 더불어 경하하여 마지않는다.

지난 20년간의 경위는 고사하고 그동안協會를 이끌어주신 전 임원 현재 회장과 임원님들 그리고 전 회원이 한 마음이 되어 협회를 아끼고 사랑하여 물질양면으로 협력, 협조한 결과가 오늘을 낳았다고 판단하며 前任會長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들인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회고하면 본인이 12대 회장으로 취임하던 1978년말 당시는 대내외적으로 협회가 어렵고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다.

對外的으로는 "오일쇼크"로 인하여 세계 경제의 혼미속에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침체일로에 있어 회원들의 作品 活動에 제동이 걸려 사무실 운영난에 봉착함으로써協會의 歲入豫算의 격감으로 협회가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건축사법이 개정되어 이로 인한 갈증속에 회원간에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계속 발생을 빚어 1년에 4명의 會長이 경질되는 등 치욕적이고 험난한 해였다.

더욱이 이런틈에 편승하여 일부 몰지각한 언론인이 야당 국회의원까지 동원하여 협회에 병주고 약주며 좌지우지 하던 때이기도 하다.

또한 本人의 任期中 主務部인 건설부장관도 신현식 장관에서 고재일 장관으로, 다시 최종환 장관으로 바뀌어 3대의 장관을 모셔야 했고 실상가상으로 회원간의 불협화음으로 本協會 발족 이래 말썽과 뒷공론으로 빚어진 고질적인 문제로 7 차에 걸쳐 20여종에 달하는 내용의 投書 혹은 告發을 당하여 시경과 검찰을 번갈아 드나들며 해결하던 일이 지금도 가끔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곤 한다.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때였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역대 회장중에서 가장 不運한 會長이었다고 느끼며 이런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주어진 임기동안 일사불란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나 자신을 돌이켜 볼때 흐뭇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당시 본인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任員陣과 협조하여 주신 일부 會員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사의를 표하며協會史에 길이 남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협회창립20주년에 즈음하여 본협회의 장래를 위하여 당면한 난제 하나를 제언코자 한다.

本人이 會長으로 재임시 1979년도 一般會計 예산이 5억여만원이었다. 당시의 협회사정으로는 예산을 절감치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용단끝에 本會를 비롯 各市道支部의 직원을 대폭 감원하고 分所 직원 전원을 감원하여 보조금으로 대체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 등을 감액하여 1979년도 제 1 회 임시총회에서 협회창립 이래 유래없는 1억여만원의 減額更正을 단행하며 1979년도는 3억 7천

여만원, 1980년도 역시 계속 증축예산을 편성하여 3억 9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본회와 전국시도지부 살림을 무리없이 운영하였었다. 그때부터 5년이 지난 1985년도 예산이 18억여만원이고, 당시 전국 살림을 4억원 미만에서 집행하던 예산이 1985년도에 이르러 직원의 봉급과 수당의 예산이 몰려 5억여만원으로 팽창된 막대한 浪費豫算으로 운영되고 있다.

1986년도 예산도 지난번 定期總會에서 18억여원으로 봉과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협회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궁금하다. 統合豫算의 수립 목적은 예산절감이었다. 세입에 맞추는 세출도 문제려니와 장차 협회를 어떻게 불고갈는지 심히 우려된다. 지금이나 수년 앞을 점쳐 보아도 회원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 작품의 량은 한계가 있어 장래를 낙관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緊縮豫算으로 국가의 살림살이를 영위하고 있는 차제에協會에 몸담은 회원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다.

豫算을 많이 쓴다고 해서 협회가 발전하고 會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각종 기구의 팽창 이에따른 직원의 증원 등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이다. 이제 우리는 무릅을 맞대고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할 때라 판단된다.

협회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最低의 豫算으로 最大의 效果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겠다.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오늘의 예산 팽창을 자정한 것이 아닐는지...

진정 會員에 의하고 會員을 위한協會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당면한 이 난제부터 풀어야 하지 않을까...

20周年 有感

具 玠 會 / 本協會 13代 會長



協會가 발족한지 어언 20년 成年의 나이가 되었다. 이제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감개가 무량하며 천사 만학을 헤아리게 한다.

그동안 協會는 長足の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나라 建築文化의 산실로서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자부한다.

이는 오로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모든 會員이 피나는 努力과 誠意로써 社會에 봉사하는 사명감과 나라의 召命에 헌신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사회는 흔히 5대사회인 가운데 하나로 建築不條理를 꼽고 있으며 마치 建築士가 주범인양 떠돌고 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다. 물론 수많은 建築士 가운데 일부 극소수 不實會員이 관련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善意의 대부분 회원들이 본의아니게 매도되는 일은 목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우리 회원들은 오히려 建築不條理에 대하여 公憤을 느끼고 있다.

우리들 建築士는 어느 전문직업인 이상으로 고매한 인품과 심오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형예술인이라 자부하면서 생업에 전념하고 있다.

建築設計가 치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회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보며 될 수도 없다. 淸貧落道란 建築士의 길을 두고 한 말과 같이 생각될 정도이다.

이제 돌이켜 20년을 회고하고 새로운 내일의 청사진을 펼쳐보는 것도 의외가 있다고 하겠다.

본협회의 20년을 회고할 때 胎動期로부터 시작하여 前半期는 격동의 시기였다고 볼수 있다. 構成會員의 異質性과 階層의 벽이 두꺼워 協會의 주도권에 대

한 시시비비가 적지아니 소요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회원이 협회에 비협조적임으로써 내부적 갈등마저 심하였으며 會長이 불신임되는 불상사도 있었다. 協會내의 불협화음은 끝내 외부의 간섭을 유발하기도 하여 곤욕스러운 일들이 꼬리를 붙고 일어났으며 일일히 열거할 수 없는 大少事件들이 히다하였다.

●● 우리들 建築士는 어느 전문직업인 이상으로 고매한 인품과 심오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형예술인이라 자부하면서 생업에 전념하고 있다.

建築設計가 치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회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보며 될 수도 없다. 淸貧落道란 建築士의 길을 두고 한 말과 같이 생각될 정도이다. ●●

그러나 後半期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會員들의 入會(자질이 다른계층) 등으로 회원의 構成分布가 변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資質改善을 기하게 되었으며 자연추세에 따라 고질적인 병폐를 수습하기에 이르러 최근 수년간에 팔목할 만큼 協會의 모습이 변모되었다. 그 실상은 발행되는 會誌에 의하여 분명히 비교되고 판단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協會는 아직도 「회원을 위한 회원의 協會」로서는 미흡한 상태라고 보이며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과제들이 있다고 느낀다.

그중 會員의 권익문제는 지상명제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영계약법의 개정은 물론 協會의 차원높은 본질의 개선

연합회제도 소위 士職者의 수난기라 할지 몰라도 전문직자의 사회성 보호 내지는 육성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會長 또는 任員들만의 委任事項은 아니다. 전국회원 모두가 다같이 단합된 힘으로 협동하고 일부 고질적인 부실회원은 과감히 발본하여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 지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建築不在”란 유행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다시 말하여 “建築士不在”라는 의미와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협회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 대처 할 문제중의 하나라고 보며 不遑하여 再再開質이란 기상천외의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라고 염려된다.

國土의 綜合計劃 측면을 본다면 건축전문가를 소외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더러 都市計劃分布 또는 都市設計등이 土木 전담의 것으로 착각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더욱 “建築不在”를 심화 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90년대를 앞두고 또한 도약을 기약하는 2천년대를 앞둔 역사적 시점에서 20주년을 맞는 協會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건축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끝으로 협회에 요망할 한가지는 개점 휴업상태의 많은 회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세한 建築士의 생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특정대재벌이 합법을 표방하고 건축사를 고용함으로써 설계용역 분야까지 침식하는 변태에 대하여 과단성 있는 대응책을 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會員을 위한 協會로서의 方向定立

金 枝 泰 / 本協會 14代 會長



유수와 같은 세월속에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더해가 안타깝기만 하다. 흘러간 세월과 함께 지나온 발자취를 뒤 돌아보면 萬感에 빠져들고, 흘러간 時空 속에 한 인간이 걸어온 여정과 함께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희노애락의 숭한 사연들로 인생과 삶에 대한 그 무엇을 생각해 한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밝은 내일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래에 대한 보다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문제해결의 무한한 가능성과 용기를 갖게해 준 것이 아닌가싶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협회는 어언간 두 번이나 변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成年이 된 협회를 바라보는 본인으로서의 만감이 오가, 그야말로 감회가 깊다. 지금의 나의 심정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自手成家한 인간외지의 한 사나이를 우러러보는 심정과 같으며 특히 협회의 任員 또는 長으로서 관여했던 본인으로서 남달리 생각하게 되는 바가 적지 않다. 비록 재임시에 얼마나 회원의 權益保護와 社會的地位向上 또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自省하여 볼 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회원들의 협조와 성원에 보답코자 열심히 노력하고 뛰었던 행적으로 큰 잘못없이 그 임무를 마칠 수 있게된 것을 자위할 따름이다.

참으로 흘러간 세월속에 많은 것이 변모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光復 후의 발전과정을 보자. 40년대의 混亂, 50년대의 戰化, 60년대의 經濟開發, 70년대의 高度成長, 80년대의 先進國을 향한 발돋

움 등의 단계를 거쳐 오늘과 같은 나라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

이와같은 나라의 발전 역사 과정과 함께 협회도 더불어 자라온 것이다. 65년도 창립이후 단체발족에 따른 과도가, 70년대의 토양숙에 뿌리내리기 위한 혼돈기, 이러한 어려운 세월을 지난 뒤에야 겨우 80년대의 안정과 발전을 향한 궤도를 달려가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成年이 된 협회는 2천3백여명이란 회원을 갖는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세월속에 다른 건축단체에 비하여 장족의 발전을 가져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劃期的인 體質改善을 통하여 협회는 명실상부한 사회단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은 지난날 협회와 더불어 있었던 많은 사건들중에서 몇가지 회상되는 落穂같은 것을 적고자 한다.

첫째 이야기로는, 82년도 가을 협회 14代 會長 就任에 따른 인사 차 주무당 국인 建設部長·次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을 찾아 뵈었는데 한결같이 협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고 취임에 따른 축하 인사보다는 그간의 협회의 作態에 대한 불만과 질책의 충고를 많이 듣고 나온 것이다. 먼구스러울 뿐아니라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괴로웠다. 그분들의 요망은 말썽과 소음이 많은 협회를 속히 체질개선을 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참신한 단체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재구실을 착실히 하는 협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옳은 이야기다. 따지고 보면 협회로서의 使命感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建築文化

中興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데 단체의 취약점에서 오는 不協和音과 회원간의 不信風調 등으로 협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게 사실이다. 끝내는 사회적으로 불신과 지탄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던 까닭에 그러한 충고를 듣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두번째로는, 建築士로서 그 직능을 인정받고 직업으로서 확립된 시기는 아마도 63년도 말 건축사법제정 공포를 본 이후부터라 여겨진다. 그동안 4 차에 걸친 개정의 발자취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개정작업도 쉽지 않지만 개정내용에 따른 法운영상의 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다. 지난 82년도에 士法 3 차 개정 내용에서 제43조(공무원외제)는 우리 회원들께 적잖은 충격을 준 조문이었다. 인신 구속이 가능한 이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法개정을 협회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동분서주한 결과 84년도 4 차의 법개정에서 시원스럽게 삭제된 것이다.

물론 현재의 법도 좀더 연구 검토하며 개정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自由職業人이며 建築造形創作業務에 여념이 없는 건축사를 어떤 특정한 업무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로서 어떻게 建築士가 경우에 따라 공무원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세째로는, 10여년간 정들었던 종로서린동의 회관대지는 도시재개발 사업에 묶이어 83년 10월말까지는 꿈쩍없이 떠

나야할 형편인데, 대지를 팔고 會館을 新築할 적당한 대지를 물색하여 사들인다는 일이, 개인의 경우에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公人인 나로서는 정말 일생 일대의 모험에다 도박과 다름없는 큰 사업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착수 후 치밀한 계획을 갖고 진행시켰지만 문제는 시간적으로 조여오는 절대절명의 위치에서 큰 착오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지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다. 天佑神助의 보살핌과 아울러 이대 관여했던 임직원과 도와주신 분들의 일사불란한 자세와 일치단결된 힘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단결된

힘이 없었던들 과연 所定期日내에 會館 着工이 가능했을까?

돌아보전대 20년전 남의 셋방으로 전전하다 자기 힘만으로 새 집을 마련한 어느 家長의 감회어린 마음과도 같다고 하겠다. 오늘 우리 建築士會館은 어디다 내놓아도 조금도 손색없는 造形藝術的 空間을 지닌 건축인 동시에 회원의 殿堂으로서 또는 대화의 광장으로, 건축사들의 사회적 자부와 긍지를 갖게하는 명실상부한 예술작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앞으로의 협회는 보다 능동적

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 없는 협회란 존립할 수 없다. 회원은 협회를 내것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즉 主人意識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활성화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강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말고 좀더 관심을 가져달란 뜻이다. 협회는 어디까지나 회원을 위하여 일 할 때 존립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회원을 위한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활발이 전개되어야 하며 무슨 사업이든간에 이는 어디까지나 회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체신부고시 제146호

고시

1. 우편법 제37조의 2 및 건축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고층건물 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재질·구조 및 표시사항을 우편법시행규칙 제14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규격(B) 1종을 추가 고시함과 아울러 일반주택용 우편수취함 권장규격을 신규 고시한다.

가. 고층건물용 우편수취함 규격

(1) 규 격 (A, B형중 자유선택)

형별	몸체			투함구	
	높이	가로	깊이	높이	가로
A형	23cm	30cm	12cm	3cm	27cm
	이상	이상	이상		16cm이상
B형	14cm	24cm	30cm	3cm	23cm
	이상	이상	이상		10cm이상

(2) 재 질

두께 0.80mm 이상의 강판 또는 스텐레스판

(3) 구 조

○가로 상자형일 것.

○투함구는 앞면 중앙 윗부분에 위치하고 우편물 투입에 안전한 구조일 것.

○개폐문은 우편물을 용이하게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되고, 동시에 자물쇠장치가 되어 있을 것.

(4) 표시사항

○전면에는 동호수 및 정명 또는 상호를 표시해야 함.

○우편수취함에는 상업광고를 표시해서는 안됨.

나. 일반주택용 수취함 권장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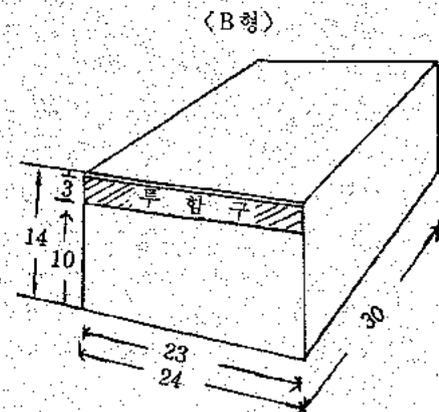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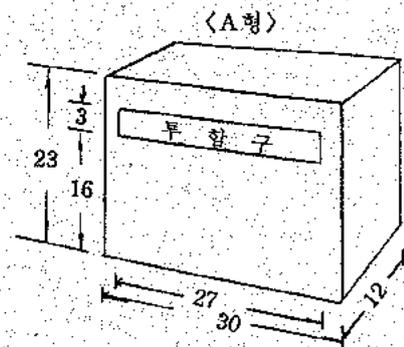
(1) 규 격

○상자형으로서 높이 23cm 이상, 가로 30cm 이상, 깊이 12cm 이상일 것.

○투함구는 3~3.5cm 크기로서 전면상단에 위치할 것.

(2) 재질 및 구조.

고층건물용과 같고 빗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協會發展과 士法



姜奉辰
本協會 5, 10代 會長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와 같이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원천적 원인은 건축사법에 그 존재가치가 보장되고 발전인자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건축사법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1536호로 제정 공포된 후, 1977년 12월 31일, 1980년 1월 4일, 1982년 4월 3일 및 1984년 12월 31일의 4회에 걸쳐 개정된 것이 현행 建築士法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특별법인 建築士法의 규정에 의하여 창립된지 어언간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이제 협회창립 20주년을 맞아 「협회 20년사」를 발간 함에 있어, 「협회 20년의 회고」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집필 의뢰를 받고 보니, 협회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개 무량하여 무엇을 먼저 써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다.

그것은 창립당시, 회원수 300여명에, 연간 예산액 300여 만원에 불과하고, 협회자체 사무실이 없어, 중구 회현동 3가 2번지 소재 初代 故 金舜河 會長의 개인사무실에 더부살이로 입주 발족하고, 이사회는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김순하 회장의 자택에서 개최하던 협회가, 20년이 지난 오늘에는, 회원수 약 2천300여명에 연간 예산액도 약 18억원이란 거대한 협회로 성장했을뿐 아니라, 강남구 서초동에 자리잡은 建築士會館은 건축계에 그 위용을 자랑할 만큼 비약 발전하여 隔世之感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와같이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원천적 원인은 건축사법에 그 존재가치가 보장되고 발전인자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건축사법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1536호로 제정 공포된 후, 1977년 12월 31일, 1980년 1월 4일, 1982년 4월 3일 및 1984년 12월 31일의 4회에 걸쳐 개정된 것이 현행 建築士法이다.

얼른 보기에는 일반적인 法律制定과 조금도 다른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 建築士法이야말로 5.16혁명 이후 설치된 國家再建最高會議(현 국회와 동일한 기

능을 가진 입법기관임) 마지막날(1963년 12월 16일), 法案提出審議로부터 最高會議 通過公布까지 만 2개년에 걸쳐 파란만장, 우여곡절을 거듭한 건축계의 논쟁끝에 겨우 햇빛을 보게 됐다는 것을 아는 建築人은 그리 많지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같은 입법과정에서의 논쟁은 공포 후에까지 계속되어 마침내 建築士試驗 應試拒否란 후유증까지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다.

논란의 대상이 된 주요골자는 i) 設計圖書의 登錄問題, ii) 應試資格 年限問題, iii) 免許에 관한 특례문제, iv) 新協會設立까지의 職務代行問題 등이었다.

이중 i) 設計圖書의 登錄問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항에 관해서는 지면관계로 논급을 생략하고, 논제의 평론이라 할 수 있는 i) 항의 設計圖書의 등록문제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建築士法 제정 공포당시의 이에 대한 條文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제22조(設計圖書의 登錄) 건축사협회의 會員이 저작한 설계도서는 建築士協會에 登錄을 받은후가 아니면 行使할 수 없다.

즉, 1977년 12월 31일 건축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14년 동안은, 현행법과 같은 申告制가 아니고, 登錄制였던 것이다.

이 條文은 현 協會의 전신이었던 「從前의 大韓建築士協會」에서 最高會議의 지시를 받아 법안의 초안작성 때에 삽입한 조문으로서, 당시 그 성격과 필요성

22條와의 相對性關係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었다.

i) 신법이 공포됐을 때, 無免許者 및 二重職者가 저작한 설계도서의 행사를 방지하고,

ii) 위와 같은 불법설계 행위를 봉쇄함으로써, 新法에 의하여 설립될 새로운協會가 회원의 權益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iii) 협회에 설계도서를 登錄함으로써 建築에 관한 統計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 수립에 공헌할 수 있고,

iv) 회원의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納稅義務를 정당하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심의 도중, 건축계 일부에서

i) 建築士의 自由를 부당하게 속박하는 협회가 될 우려가 있고

ii) 회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協會가 圖書登錄을 강요하여 中間搾取 機關으로 될 염려가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本條削除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었으나 삭제할만한 명분이 못되었기 때문에 圖書登錄규정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大韓建築士協會는 이 設計圖書의 登錄制度 덕분에 오늘과 같이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圖書登錄制度를 전국에 실시하게 됨으로써協會는 본부를 비롯 각市道支部와 주요도시의 分所에 이르기까지 결속된 組織網과 강력한 事務體系를 확립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협회기구가 방대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방대해진協會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을 것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협회의 운영비는 결국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데, 建築士協會는 국내외의 어느 건축사단체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會費制度를 채택한 것이다.

즉, 모든 회원이 균등하게 매월 내는 월정회비 외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실적에 따른 일정비율에 의한 실적회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 이 실적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은 회원이 설계도서를 협회에 登錄할 때 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그 율은 매년 협회의 정기총회에서 회원 스스로가 결의,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개발계획 정책에 수반한 고도성장의 물결에 따라, 건축경기가 상승하고, 국토건설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원의 업무량도 급격히 증대 되었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실적회비 납부액도 매년 증가했기 때문에 협회는 일취월장의 발전을 거듭 하였다.

호사다마란 속담도 있듯이 이 무렵에, 건축계 일부에서 또다시 圖書登錄制의 폐지론이 대두되어 왈가왈부하다가, 마침내 1977년 12월 31일 法律 3074호로 개정된 것이 아래와 같은 현행법인 것이다.

제22조(設計圖書의 申告) 건축사협회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즉, 종전의 登錄制가 申告制로 바뀐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종전에 협회발

전의 원동력이 됐던 登錄制가 개정됨에 따라, 협회는 그 운명이 시행령 여하에 좌우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건축계 일부에서는 차라리 시행령을 제정할 때, 건축허가후 다시 말하면 설계도서의 행사후, 일정기간 내에 申告토록(事後申告)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 하는 사람도 많았었다.

심지어 主務當局 실무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미 초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는 협회를 무력화해서 발전에 제동을 걸고, 설계활동을 자유화 하려는 일부 건축인들의 책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협회 집행부가 비상한 노력과 섭외활동을 벌인 결과, 1978년 10월 6일 대통령령 제9183호로 다음과 같이 시행령의 전문개정 공포를 보았던 것이다.

제21조(設計圖書의 申告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申告는 建築許可申請前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正面圖, 平面圖, 追定工事 金額 및 설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상기조문중 下線을 그은 부분은 1981년 6월 24일 設計圖書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母法은 종전의 「登錄」을 「申告」로 개정됐지만, 시행령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事前申告」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종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

慶尚北道支部篇



慶北 支部長 金 永 吉

支部長 人事

建築士界의 연혁 20년사를 맞이하고 보니 만감의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20년이란 세월을 더듬어보면 오늘의 건축사계의 실상과 허상을 조명치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慶北 建築士界만 하더라도 자질과 품위, 또한 업무전 사무소 운영 실태가 시대적인 변천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전국적인 회원수의 폭발적인 팽창력이 예상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싯점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和睦에서 總化를 이루는 길 밖에는 별 도리가 없겠습니다.

한때 사회의 일각에서는 建築士界를 가리켜 "지성의 몰락조상"이라고 힐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을 무대로

전전하는 일부 사이비 建築士들이 면허대여, 명의 대여 등 따위의 죄임에 빠져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에 대해 공박하는 질책의 소리였습니다. 몇몇 지역의 몇몇 사람이 그리하였지만 드내기 建築士의 모호한 행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여지없이 기존 건축사계를 궁지에 몰아 넣었으며 결국에는 전체 建築士의 위신을 추락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 현실은 현실이기에 통감하는 바 하루 속히 진실보의 화합 단결의 기치를 높여 보자는 것입니다. 쇠신된 업무 신장을 위하여 다시 한번 명심하여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支部現況

1) 創立과 成長過程

1965년 처음으로 건설부에서 실시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3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965년 11월 13일 창립총회를 동대구 로타리 구락부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초대 支部長으로 이성해 회원을 선출하였으며 감사 3명, 감사 2명을 선출, 임원진을 구성하고 대구시 중구 동문동 13번지에 支部 사무실을 개설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支部 創立 당시 포항, 경주, 안동, 김천, 예천 등 5개 분소를 설치하였다가 1973년 7월 25일 영주 분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구미분소는 1975년 1월 설치하였다가 1977년 4월 폐쇄한 후 1979. 11. 1일 다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예천분소는 1977년 4월 폐쇄되었고 1980. 11. 1일에는 문경분소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모두 7개 분소에서 도서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支部는 4번의 사무실 이전을

거쳤는데 1982년 1월 1일 大邱市가 直轄市로 승격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大邱直轄市支部가 분리 설치되어 慶北道支部는 현재의 위치인 대구직할시 중구 동인2가 114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支部 創立 당시 회원 수는 221명이었으며 대구직할시 지부가 분리됨에 따라 현재는 회원이 59명으로 줄었지만 16개 市郡에 분포되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역대 지부장과 임원 현황, 분소장 명단, 분소별 회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支部 운영 방침 및 진로

本 支部는 年輪으로는 成年期에 접어들었으나 大邱直轄市支部가 분리된지 4년도 채 안된 실질적인 現實로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유아기로 생각된다. 지역이 방대하고 또한 지부 사무실이 대구직할 시내에 있는 관계로 여러가지 남다른 애로 사항도 많으나, 전체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각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할 것이며, 참신한 建築士像을 정립하여 회원의 權益伸張과 地位向上을 위하여

任 員 現 況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소 재 지	전 화
지부장	김 영 길	포항종합건축사사무소	포항시죽도동43-22	2-4731
간 사	전 성 팔	경산건축사사무소	경산군경산읍중앙동335-3	82-0387
	이 우 상	봉화건축사사무소	봉화군봉화읍포저리353-65	2213
감 사	조 무 환	포항종합건축사사무소	포항시죽도동43-22	2-4731
	이 상 만	금오건축사사무소	구미시원평동518-3	52-6351
	조 성 현	제일·경일건축사사무소	경주시노동동9-1	3-7743

여 정진할 것이다. 또한 회원간의 융화 단결을 위하여 지부 운영을 활성화하고 비위 회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福祉會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건축분야 전반에 대한 대민홍보 활동도 전개하여 건축주 등 일반인들의 건축 업무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 主要 業務 推進 및 實績

1. 설계도서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支部 및 分所에서 설계도서 검토를 실시.
2. 設計 및 監理 업무의 분리 시행으로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에 노력.
3. 매년 행정 관서와의 유대강화와 건축사 행정업무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 및 건축 관계관과의 간담회 실시.
4. 보조사와 보조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보조원증 발급(83년)
5. 건축 행정 민원상담실 운영
6. 회원 사무소 실태 조사 실시
7.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모내기 일손돕기 운동 전개
8. 전국소년 체육대회(포항·경주)시 1천만원 성금 기탁

4) 主要 事業計劃

1.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건축실제 작품 전시회 개최
2. 보조사 및 보조원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건축사보에 대한 건축 관계 실무교육과 정신교육 실시
3. 회원의 복리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복지 활성화와 방안 연구
4. 회원의 융화 단결을 위하여 회원 친목 단합대회 개최
5. 신문이나 방송에 회원 업무나 지부행사 등을 소개하여 실질적인 홍보활동 전개

歷代支部長

대수	직 위	성 명	대수	직 위	성 명	대수	직 위	성 명
1 대	지부장	이 성 해	5 대	지부장	이 근 상	9 대	지부장	김 재 우
2 대	지부장	이 근 상	6 대	지부장	이 근 상	10 대	지부장	김 재 우
3 대	지부장	이 근 상	7 대	지부장	윤 옥	11 대	지부장	손 재 수
4 대	지부장	이 근 상	8 대	지부장	이 연 억	12 대	지부장	손 재 수

分 所 長 名 單

지 역	성 명	사 무 소 명	소 제 자	전 화
포 항	최 종 배	최종배건축사사무소	포항시죽도1동34-1	73-2421
경 주	이 영 기	동아건축사사무소	경주시노동동9-1	2-2680
구 미	박 재 광	건축사사무소 동산	구미시원평동518-3	52-4375
안 동	송 길 환	건축사사무소 화산건축	안동시삼산동125-19	2-3641
김 천	김 영 철	현대건축사사무소	김천시남산동23-10	2-2263
영 주	김 성 종	신영건축사사무소	영주시휴천2동642-52	2-3688
문 경	장 상 현	영림건축사사무소	문경군점촌읍점촌4리261-2	2-5673

分 所 別 會 員 現 況

관 할 분 소	행정구역별	회 원 수		
		진 축 사	2 급	계
지 부 직 할	경 산 군	2	1	3
	영 천 시		2	2
	칠 곡 군	2		2
	달 성 군		1	1
계		4	4	8
포 항 분 소	포 항 시	15	3	18
	울 진 군	1		1
	영 덕 군	1		1
계		17	3	20
경 주 분 소	경 주 시	5	2	7
계		5	2	7
안 동 분 소	안 동 시	3	1	4
계		3	1	4
김 천 분 소	김 천 시	2		2
계		2		2
영 주 분 소	영 주 시	2	1	3
	봉 화 군		1	1
계		2	2	4
문 경 분 소	문 경 군	2	1	3
	상 주 군	1	1	2
	예 천 군		1	1
계		3	3	6
구 미 분 소	구 미 시	6	2	8
계		6	2	8
합 계		42	17	59

다세대주택설계계획안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68호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유형인 다세대주택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국민주거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적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이를 널리 보급코자 다세대주택 설계계획안 현상공모를 실시한 바 지난 7월 15일 부터 8월 31일 까지의 공모기간에 총 368명이 응모하여 3차에 걸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수상자를 선정하였기에 그 명단 및 당선작의 도면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세대주택설계계획안 당선작품

	작품명(유형별)	심사결과	성 명	사 무 소 명
2세대	외부 계단형 (규모별 3종)	당선작	배화수	공간연구소
		당선작	오성운	오성운건축사사무소
		당선작	윤경식	한국유진종합건축사사무소
단 층 형	가 작	당선작	임길성	경동건축사사무소
		가 작	손진락	신신건축
		가 작	이명철	상원건축사사무소
각세대 2층형	가 작	당선작	김동주	선진엔지니어링
		가 작	윤정태	울산대건축과
		가 작	전애경	정원엔지니어링
3세대	외부 계단형	당선작	이선옥	대우건축
		가 작	장현숙	(개 인)
4세대	내부 계단형 (규모별 3종)	당선작	김승석	환건축연구소
		당선작	이종민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
		당선작	김창식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외부계단+ 편복도형	가 작	이종현	건축문화설계 연구소
		가 작	이세훈	건축사사무소 세화
		가 작	임길성	경동건축사사무소
외부 계단형	당선작	이문우	예성건축사사무소	
	가 작	이종현	건축문화설계연구소	
	가 작	이종현	건축문화설계연구소	
6세대	내부계단+ 외부계단형	당선작	조진형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신
		가 작	장려상	우원건축
	외부계단+ 편복도형	당선작	이문우	예성건축사사무소
		가 작	김주연	아 키 흥
		가 작	임길성	경동건축사사무소
		가 작	이문우	예성건축사사무소
내부 계단형	당선작	김석민	대호건축사사무소	
	가 작	유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가 작	장려상	김우석	아람건축연구소	

다세대주택설계 계획안 장려상 (학생작품)

작 품 명 (유형별)	심사결과	성 명	학 교 명
4세대 (외부계단+편복도형)	장려상	이한중	성균관대학교
2세대 (각세대 2층)	장려상	유영배	단국대학교
4세대 (내부 계단형)	장려상	박호관	단국대학교
4세대 (내부 계단형)	장려상	이승호	명지대학원
4세대 (내부 계단형)	장려상	신교영	충남대학교
6세대 (외부계단+편복도형)	장려상	조원익	충남대학교
4세대 (내부계단)	장려상	유재경	인하대학교
3세대 (외부계단)	장려상	최득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심사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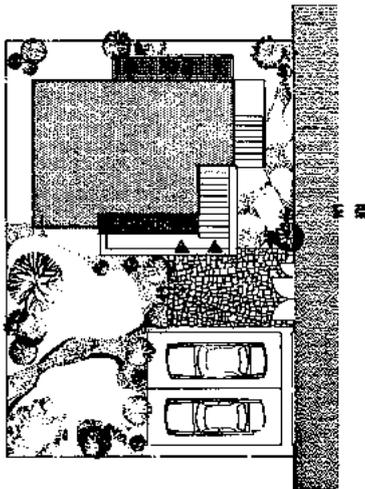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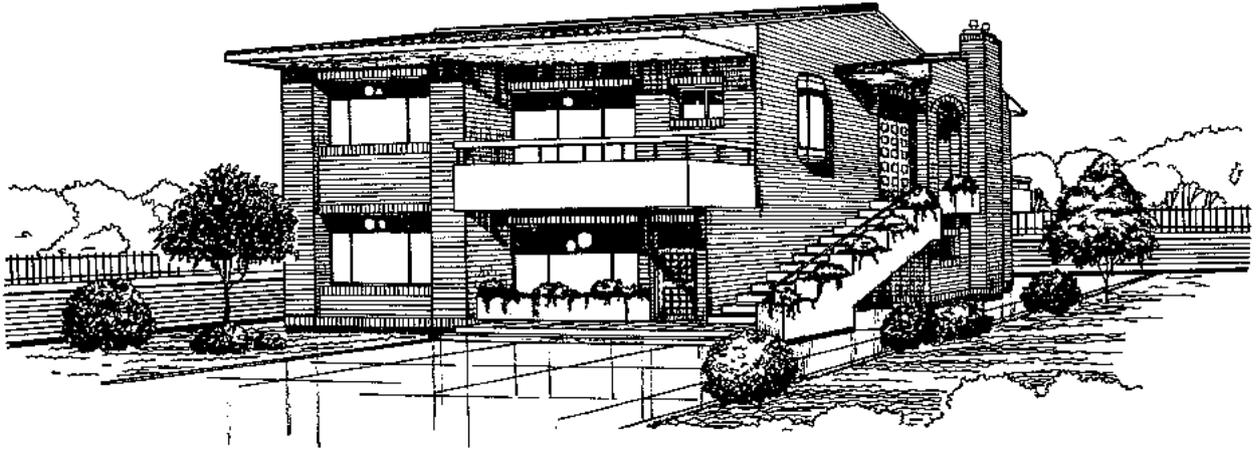
- 위원장 : 오 응 석 (본협회 회장)
- 위 원 : 배 중 명 (건설부 건축과장)
- 한 규 봉 (대한주택공사 건설본부장)
- 나 상 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김 희 훈 (대한건축학회 참여이사)
- 이 영 희 (본협회 이사)
- 조 구 현 (본협회 실내디자인 분과위원장)
- 간 사 : 한 중 언 (본협회 이사)

2세대 2층 외부계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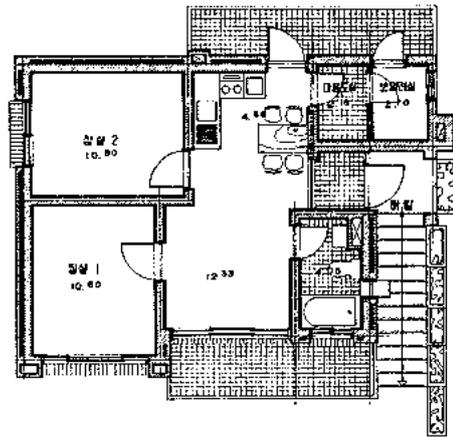
윤경식·송국찬 (한국유진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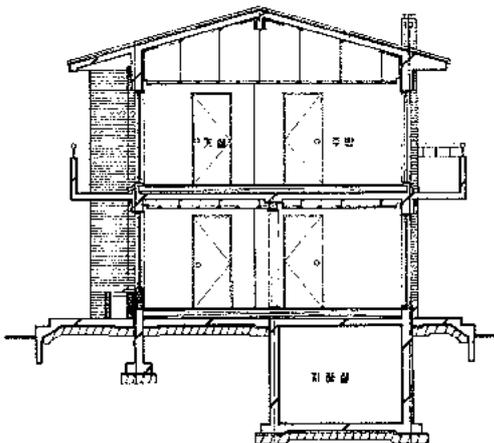
- 대지면적 : 230.91㎡
- 건축면적 : 59.00㎡
- 건폐율 : 25.55%
- 용적율 : 45.02%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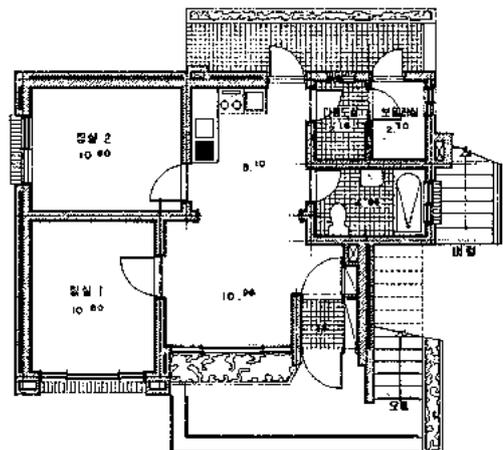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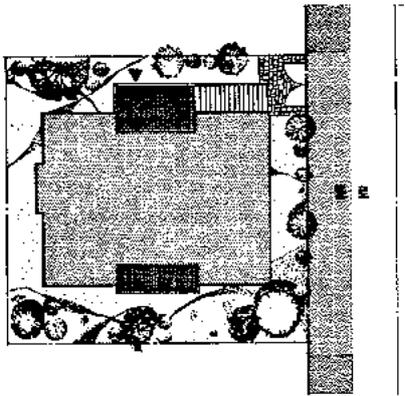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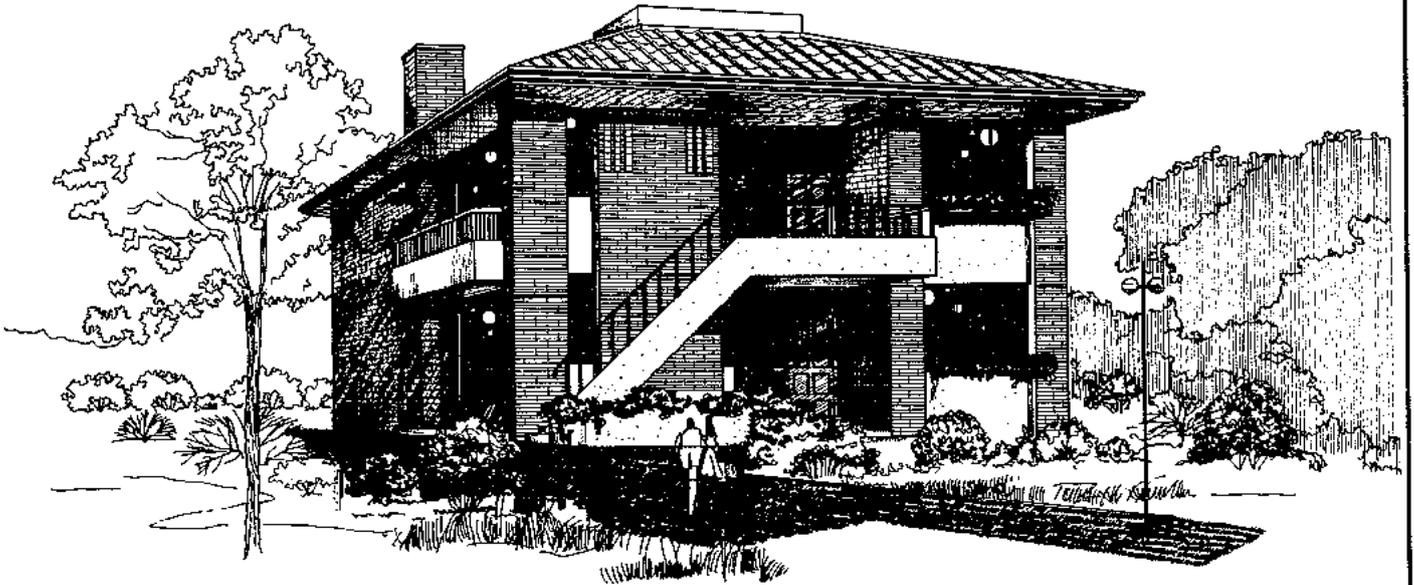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세대 외부계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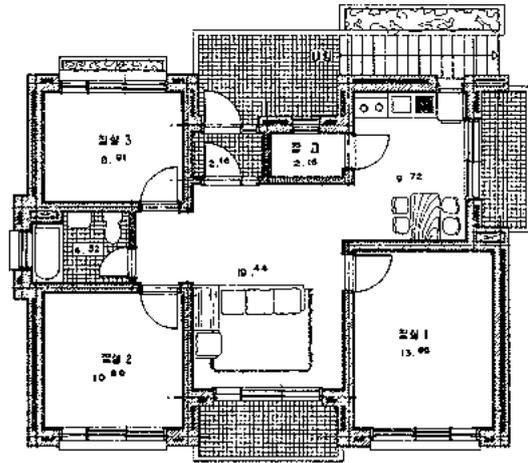
오성윤 (오성윤건축사사무소)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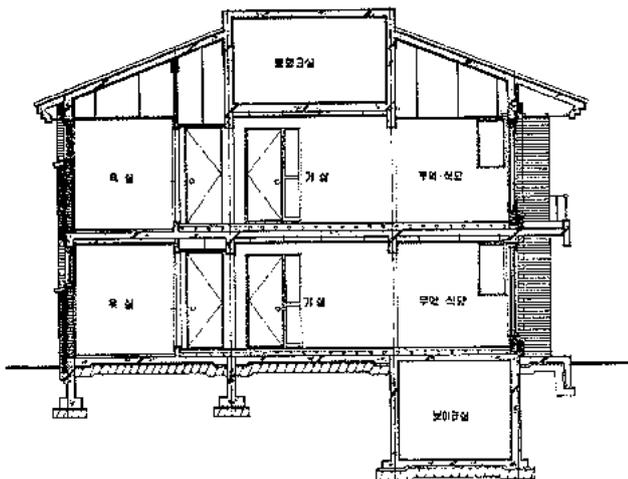
- 대지면적 : 174.15㎡
- 건축면적 : 78.21㎡
- 건폐율 : 44.91%
- 용적율 : 82.07%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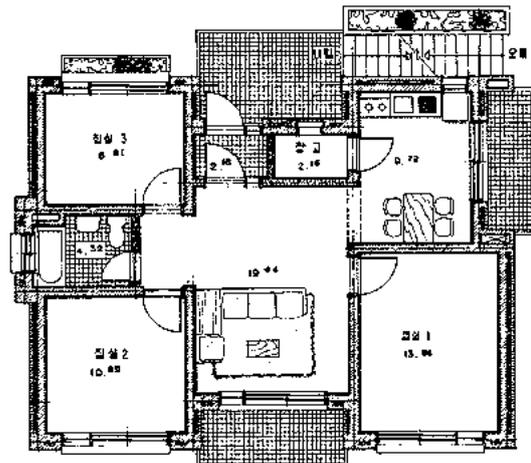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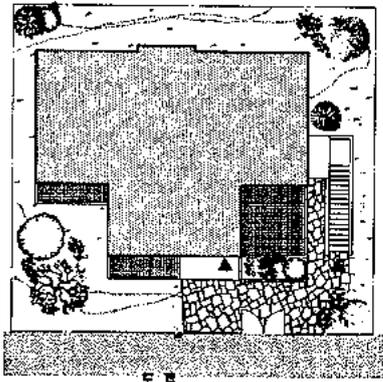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세대 외부계단형

배화수 · 이현준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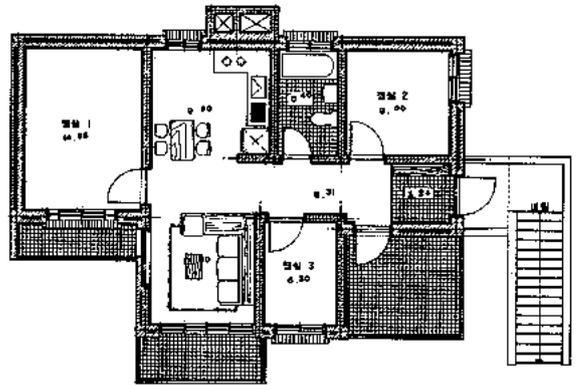
설계개요

- 대지면적 : 210.00㎡
- 건축면적 : 83.16㎡
- 건폐율 : 39.60%
- 용적률 : 66.85%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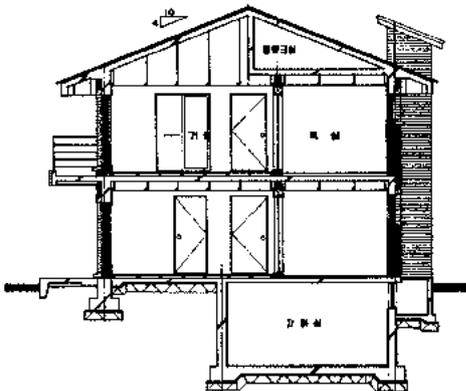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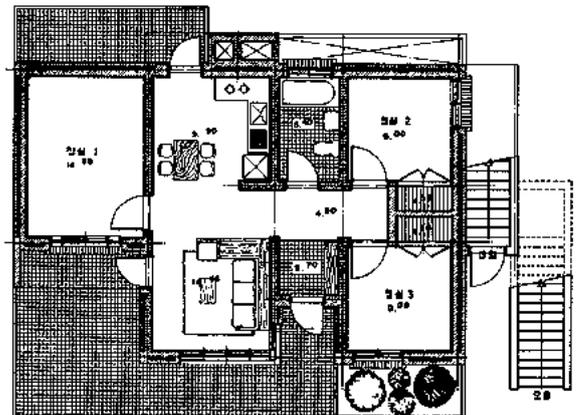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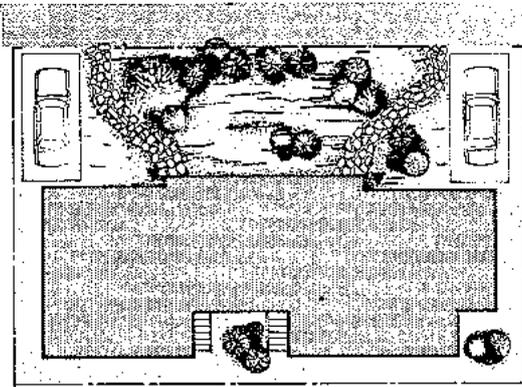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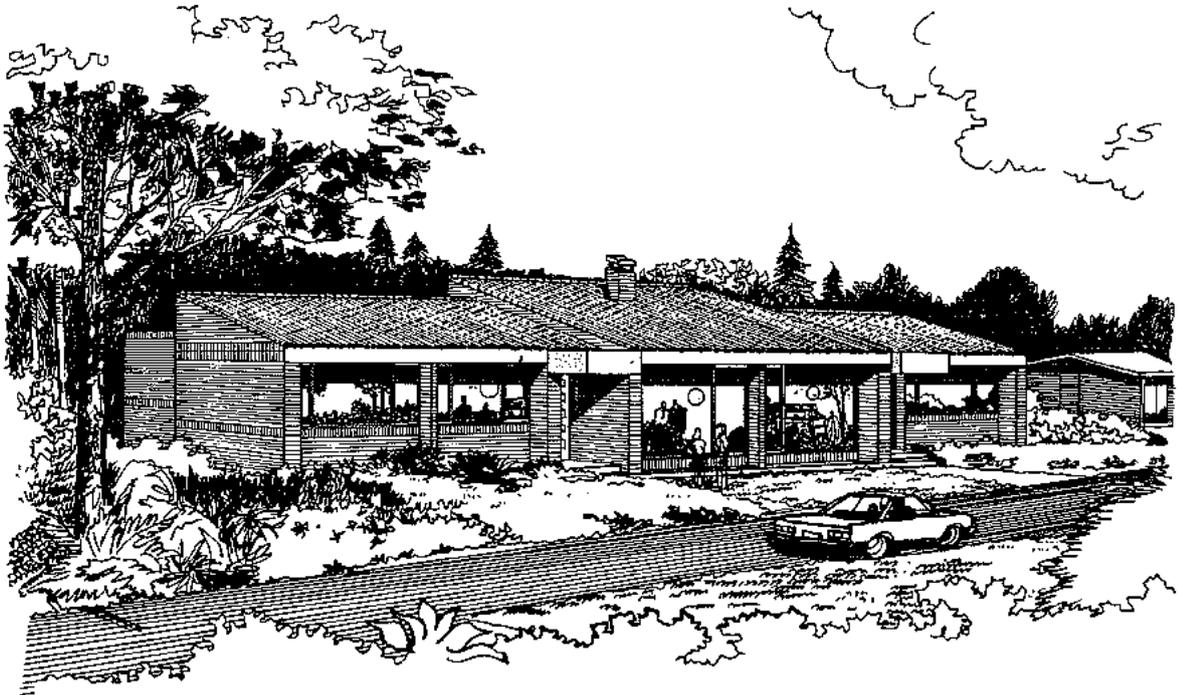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세대 단층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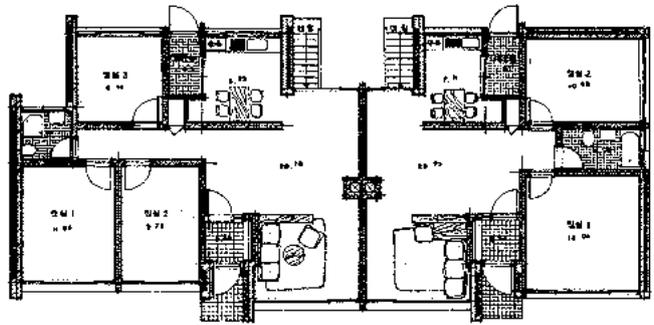
김동주·전애경 (선진엔지니어링)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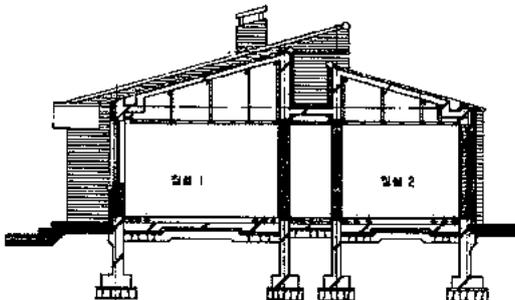
- 대지면적 : 324.00㎡
- 건축면적 : 144.36㎡
- 건폐율 : 44.55%
- 용적율 : 44.55%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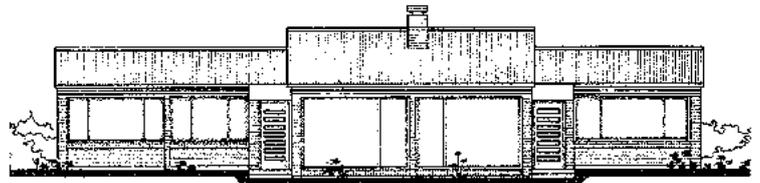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단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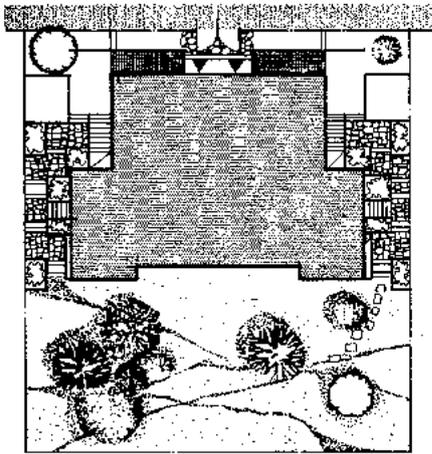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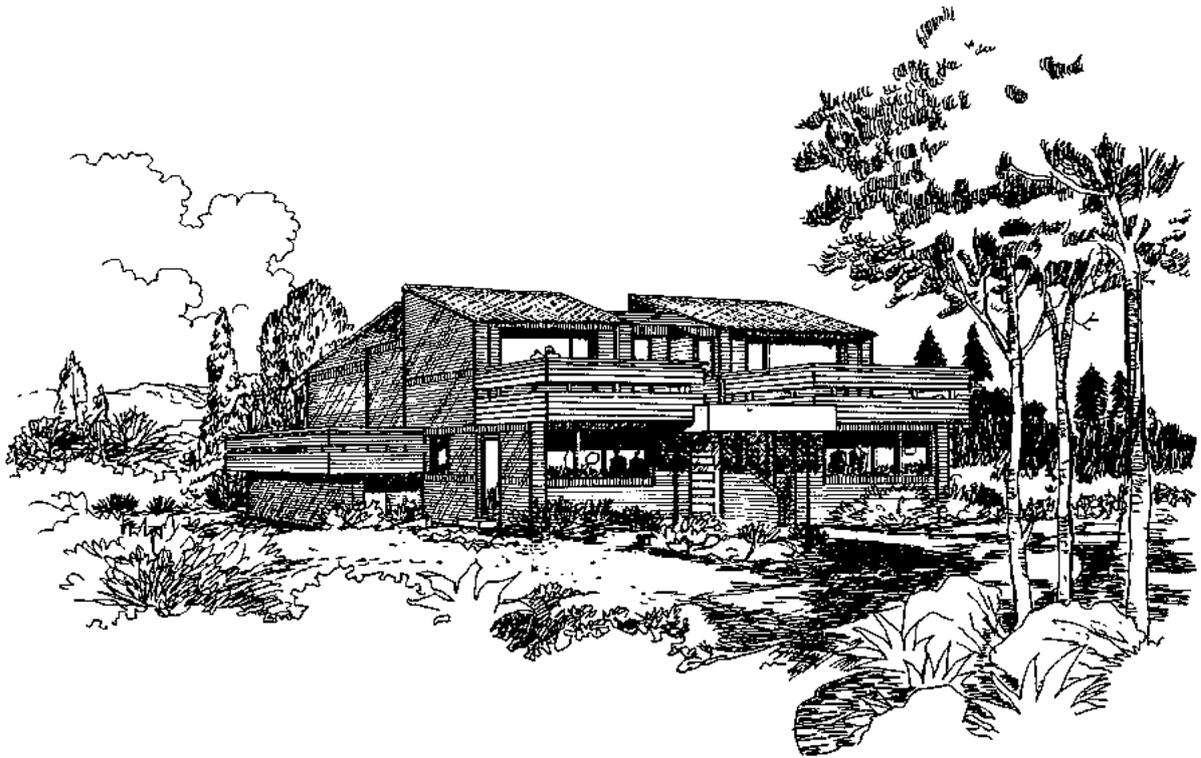
배면도

2세대 각세대 2층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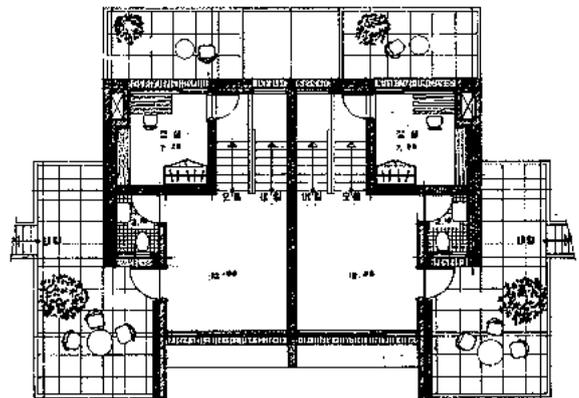
김동주·전애경 (선진엔지니어링)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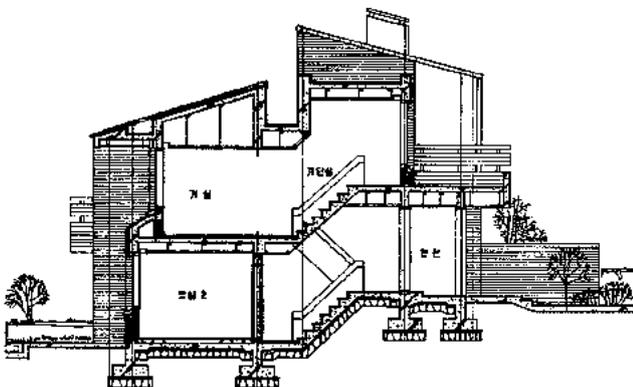
- 대지면적 : 328.52㎡
- 건축면적 : 102.42㎡
- 건폐율 : 31.17%
- 용적율 : 46.54%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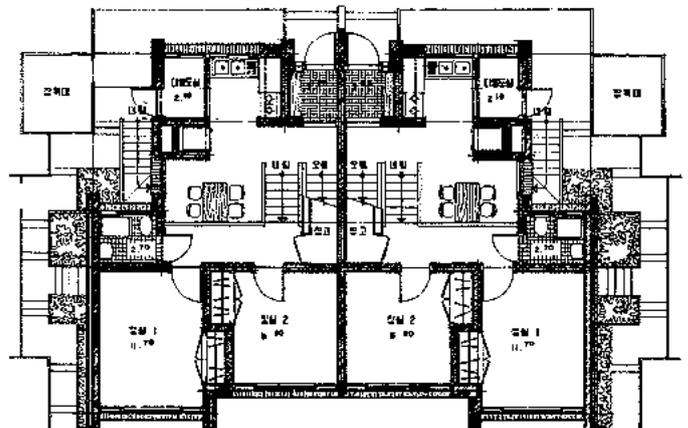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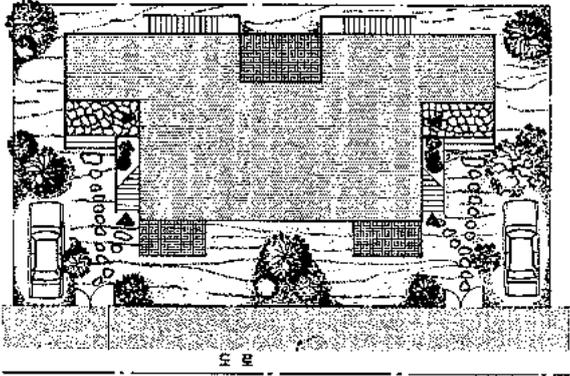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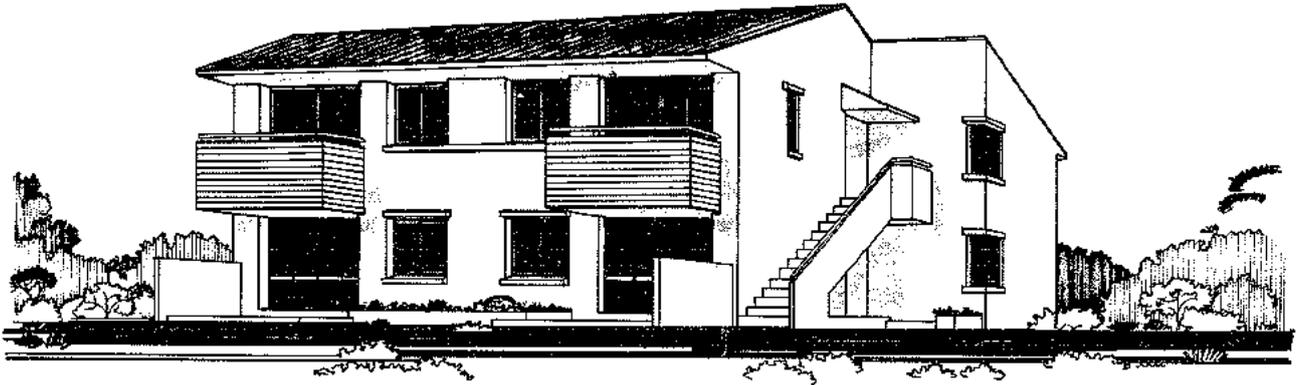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세대 외부계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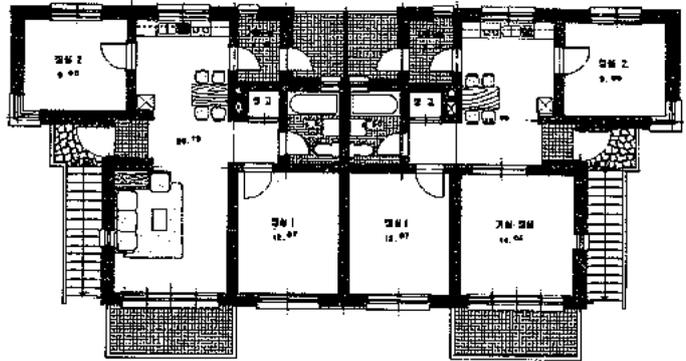
설계개요

- 대지면적 : 324.00㎡
- 건축면적 : 134.64㎡
- 건폐율 : 41.55%
- 용적율 : 79.50%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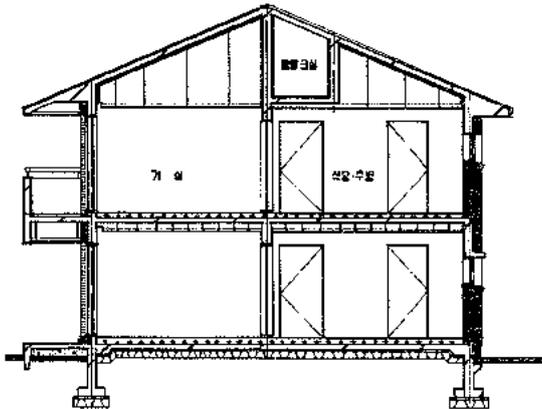
이종현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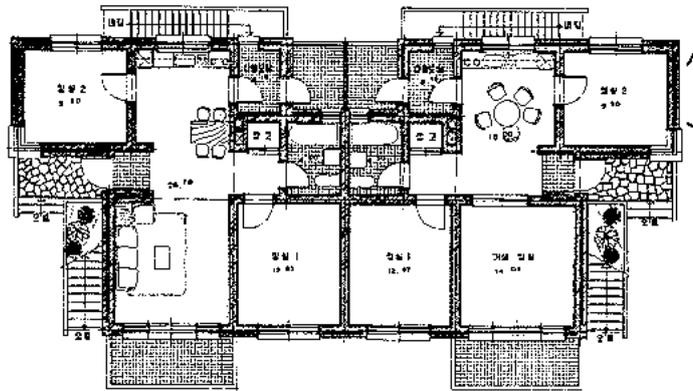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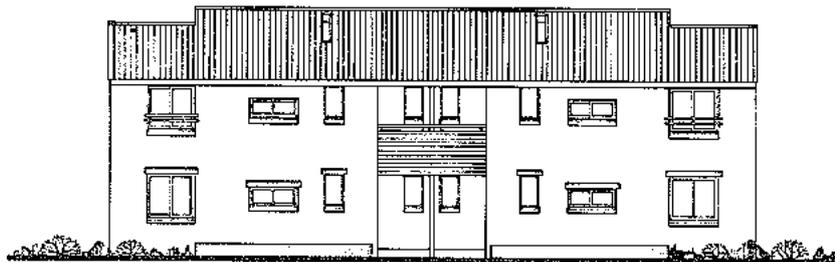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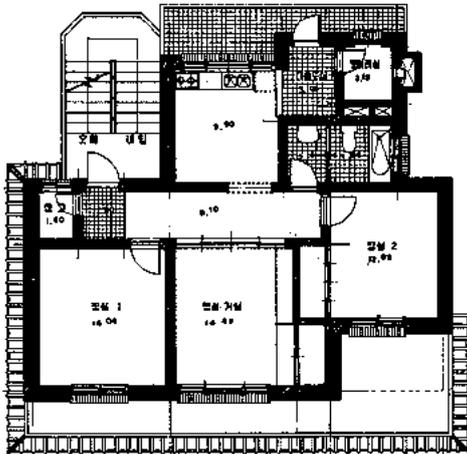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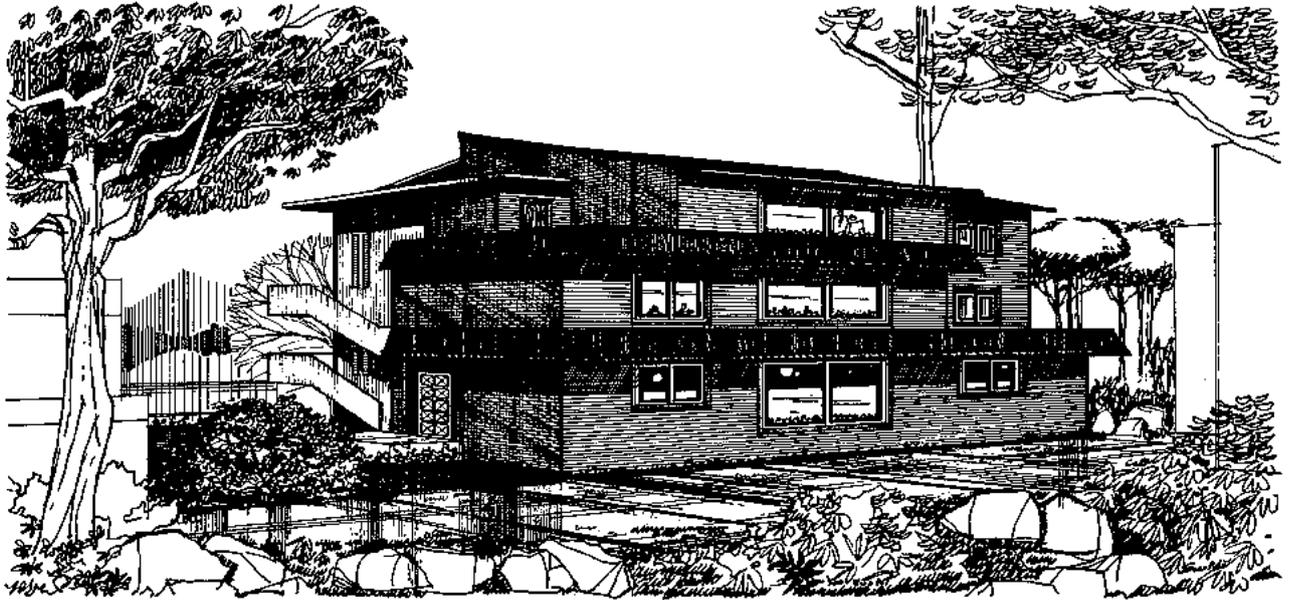
배면도

3세대 총별 1세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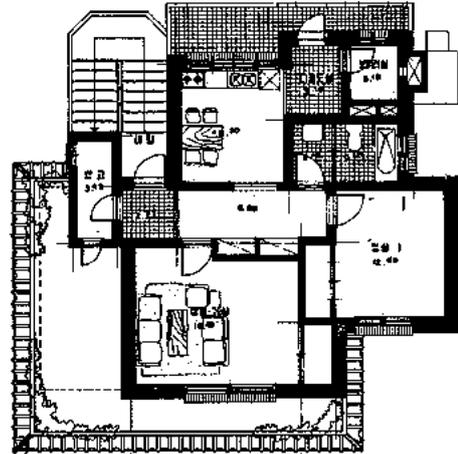
이선옥 (대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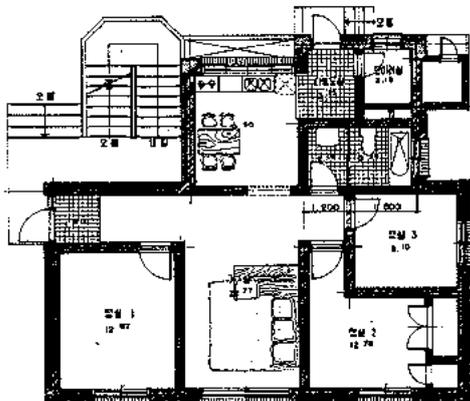
- 대지면적 : 307.74㎡
- 건축면적 : 98.56㎡
- 건폐율 : 32.03%
- 용적율 : 78.28%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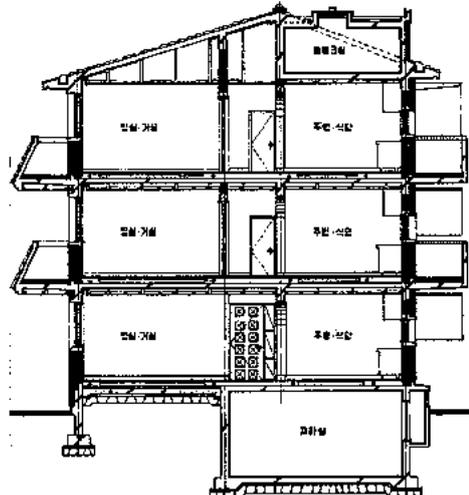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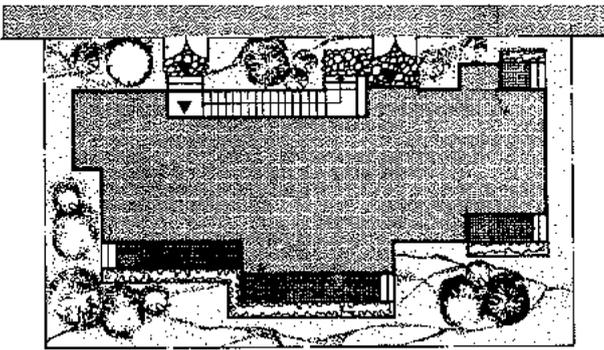
단면도

3세대 2층 외부계단 및 편복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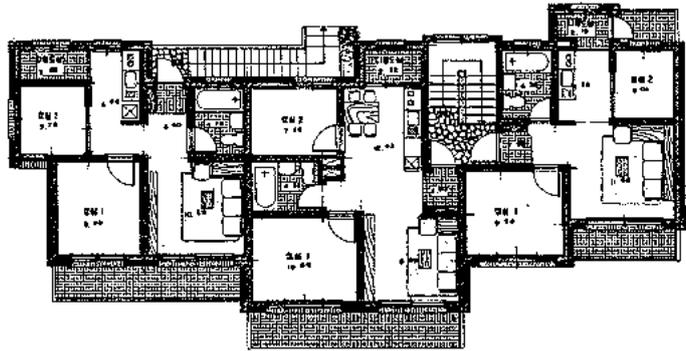
이문우 (예성건축사사무소)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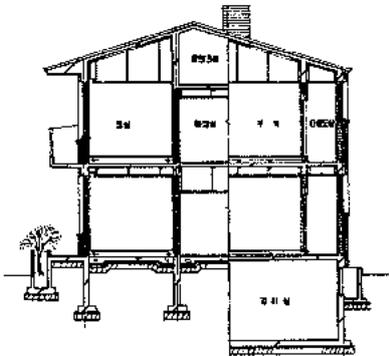
- 대지면적 : 329.43㎡
- 건축면적 : 144.32㎡
- 건폐율 : 43.81%
- 용적율 : 81.09%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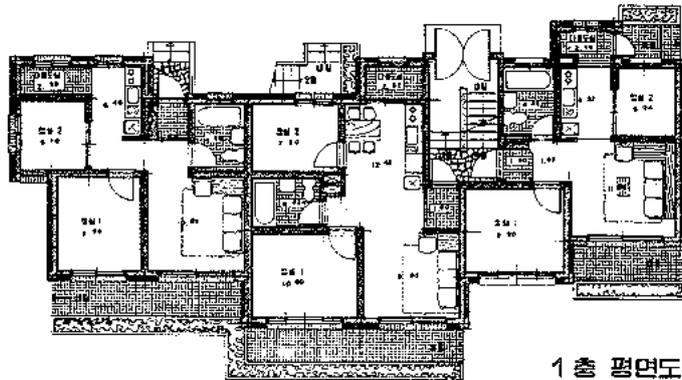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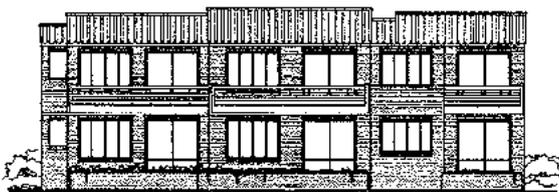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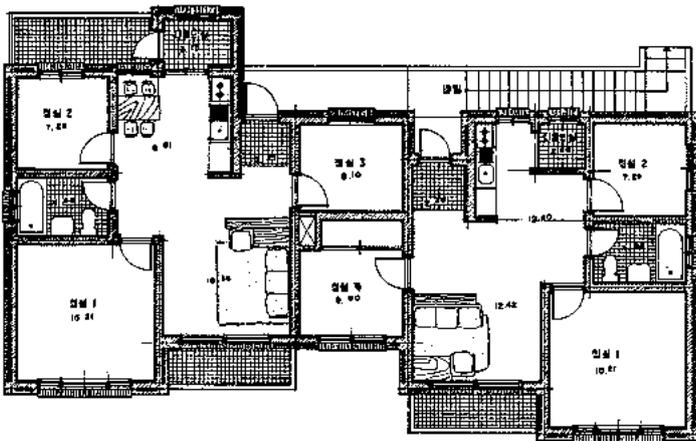
배면도

4세대 2층 증별 2세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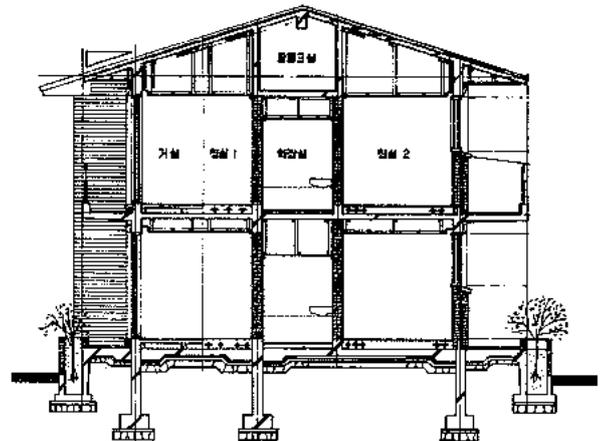
이문우 (예성건축사사무소)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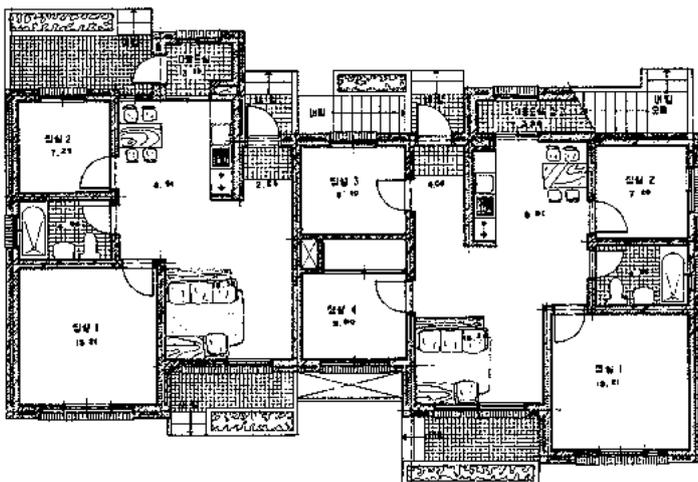
- 대지면적 : 326.40㎡
- 건축면적 : 145.80㎡
- 건폐율 : 44.67%
- 용적율 : 84.43%
- 구조 : 조적조



2층 평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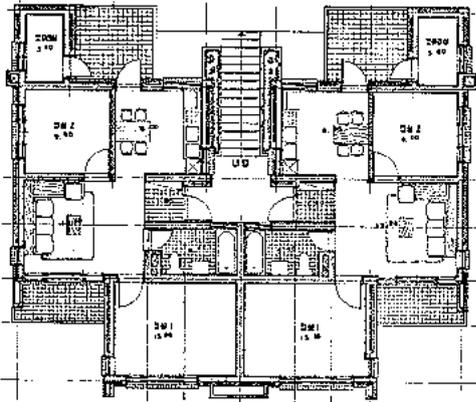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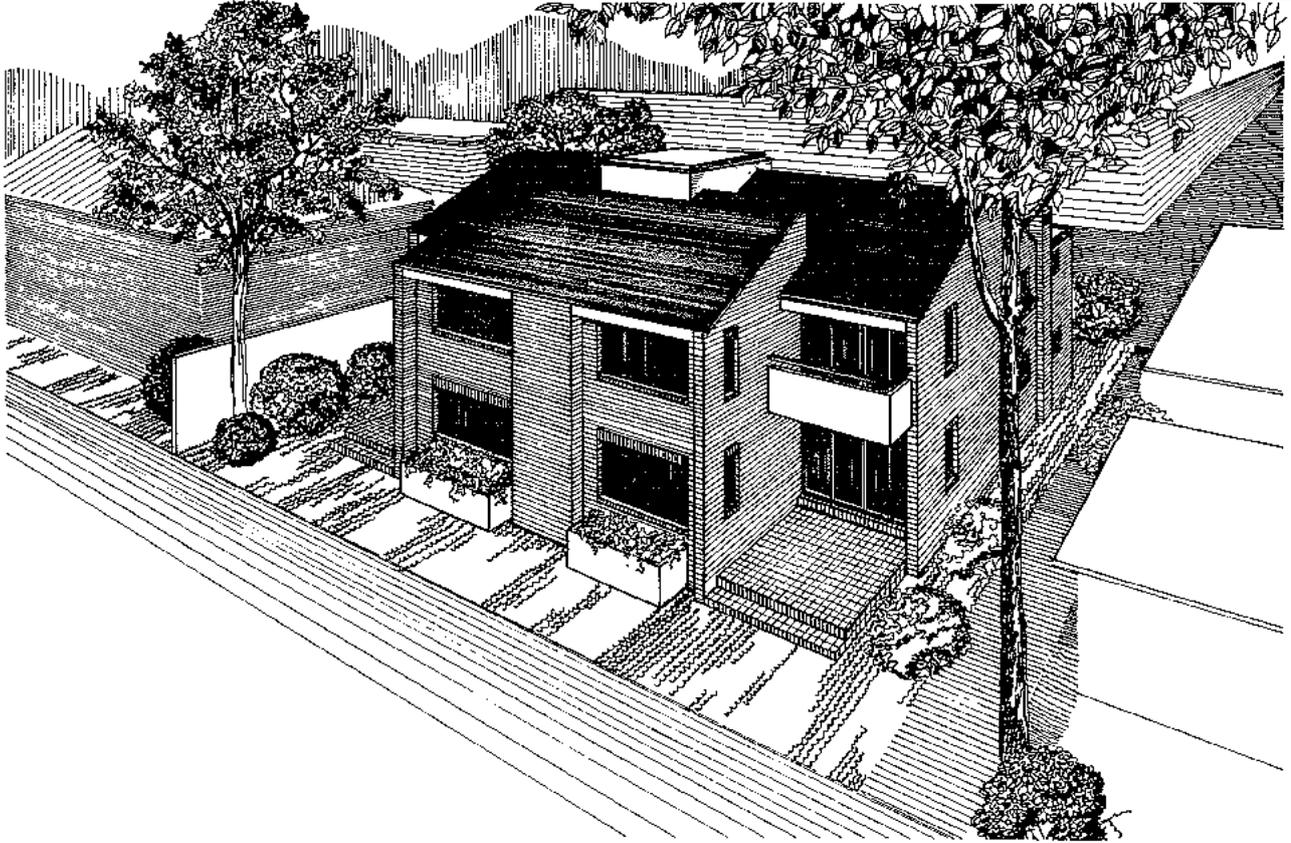
배면도

4세대 내부계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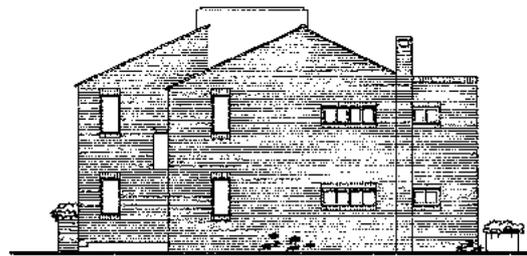
이종민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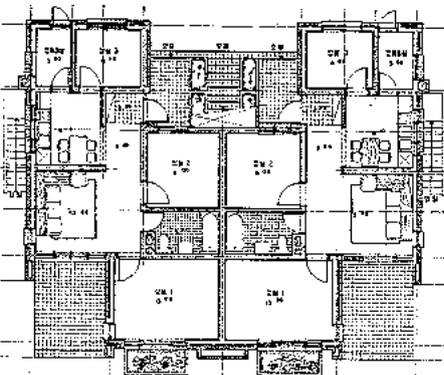
- 대지면적 : 289.00㎡
- 건축면적 : 139.30㎡
- 건 폐 율 : 48.20%
- 용 적 율 : 89.28%
- 구 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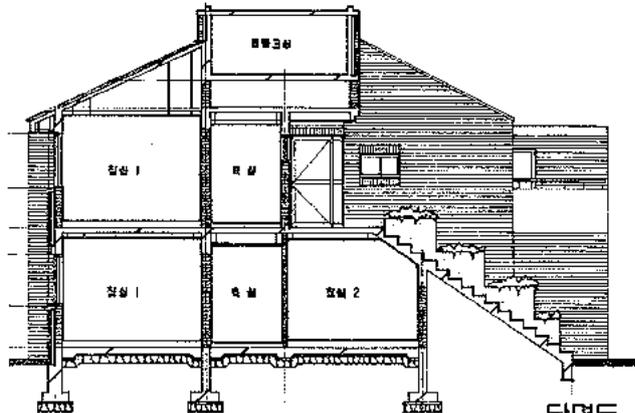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측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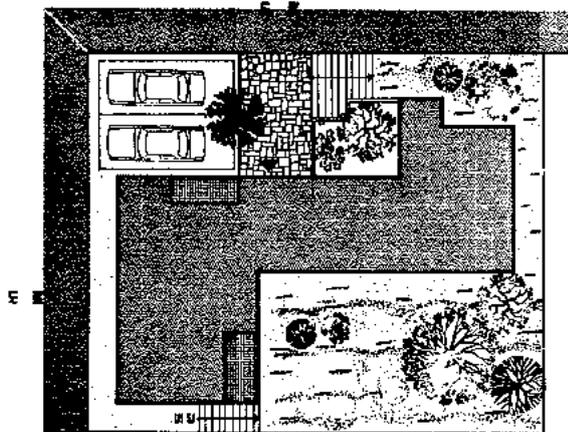
단면도

4세대 2층 내부계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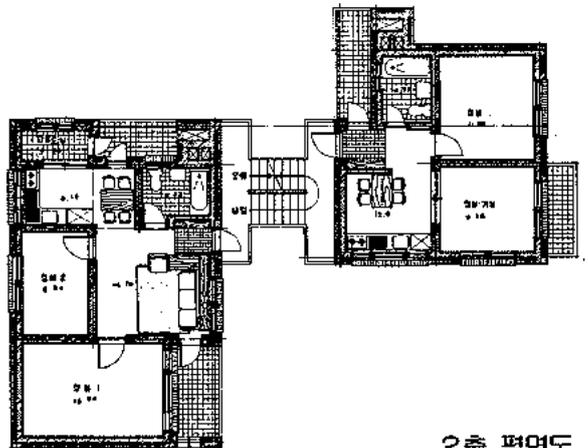
김창식·김명근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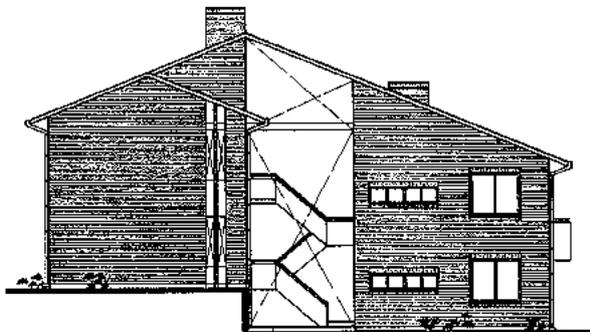
- 대지면적 : 328.32㎡
- 건축면적 : 109.02㎡
- 건 폐 율 : 33.21%
- 용 적 율 : 64.96%
- 구 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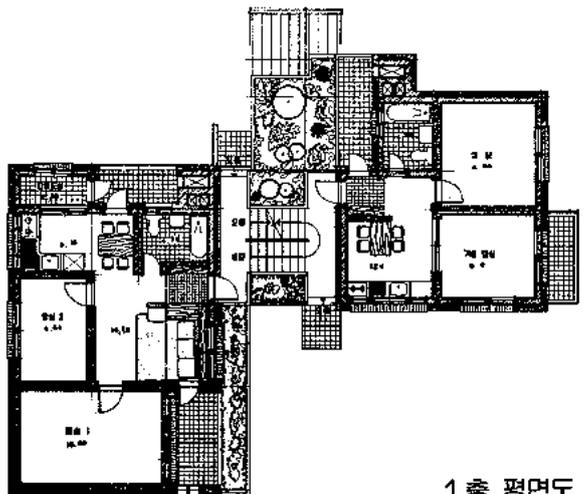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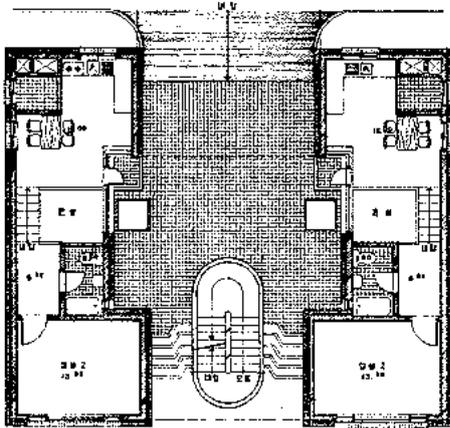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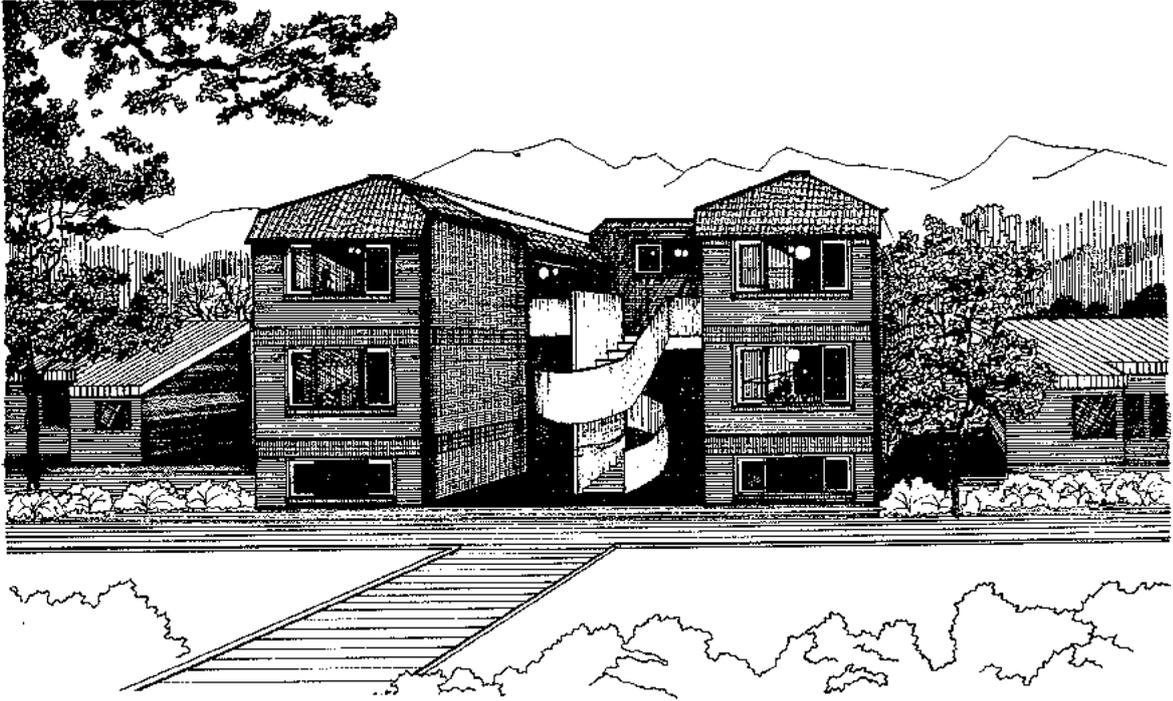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4세대 내부계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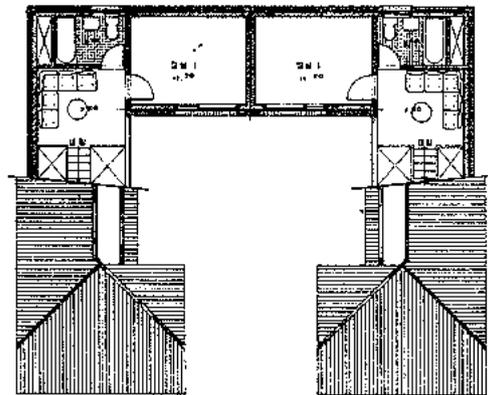
김승덕·조성원·나동균 (건축사사무소 환)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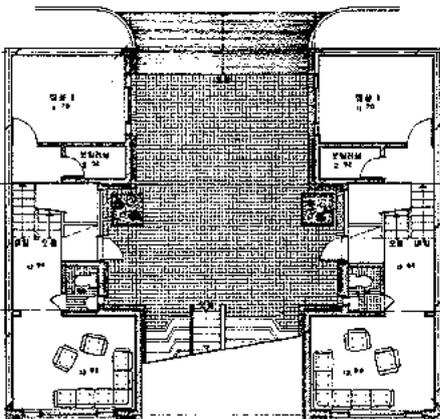
- 대지면적 : 279.68㎡
- 건축면적 : 94.92㎡
- 건폐율 : 33.93%
- 용적율 : 109.06%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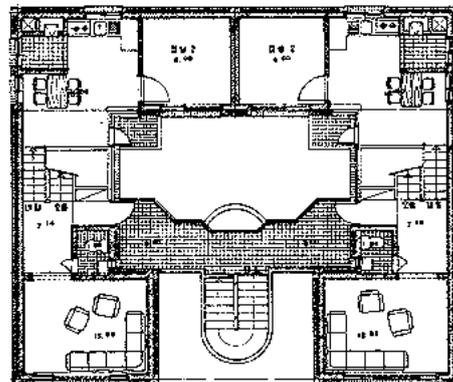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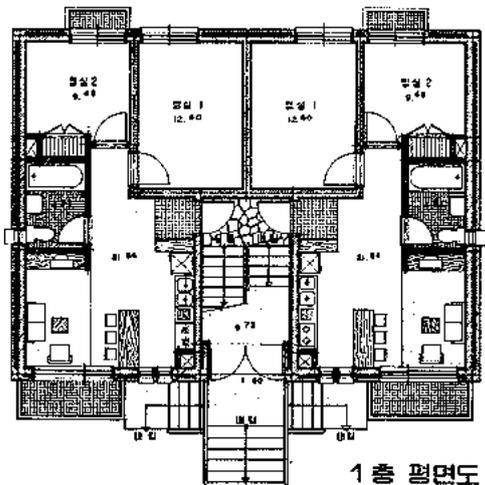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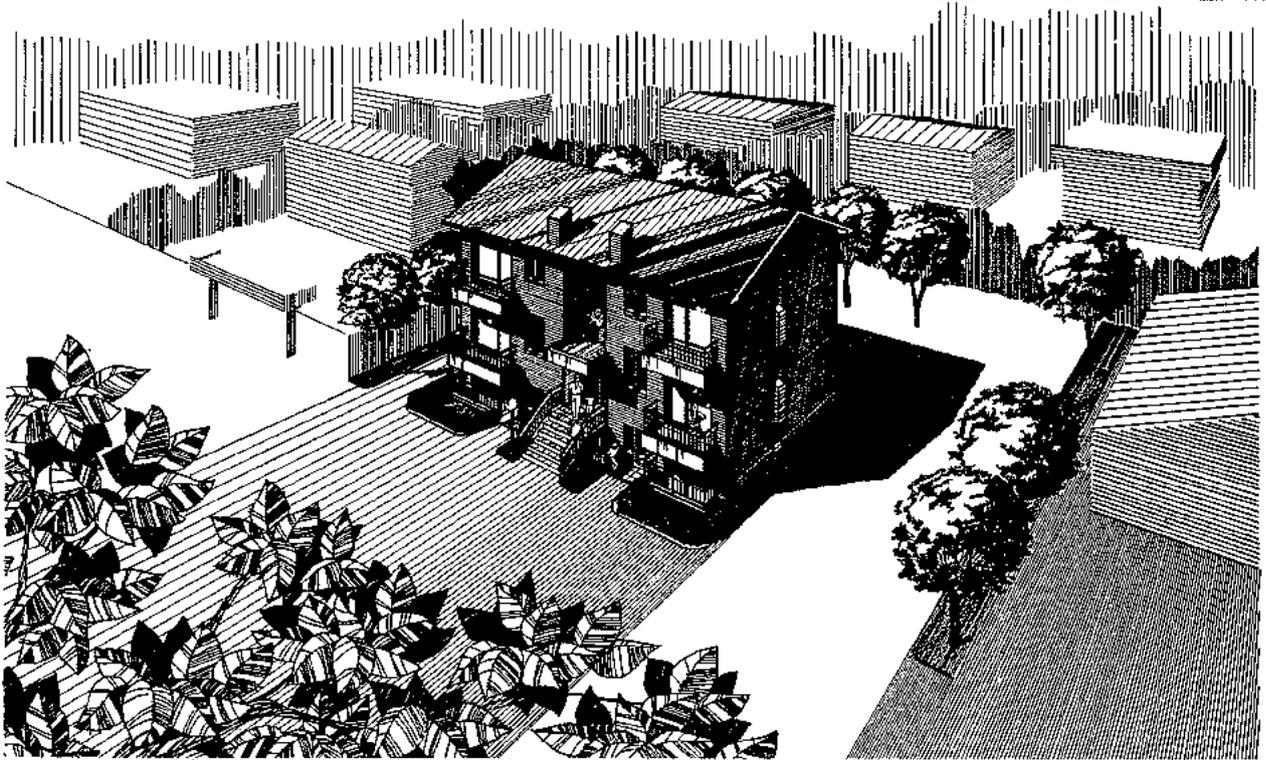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6세대 3층 내부계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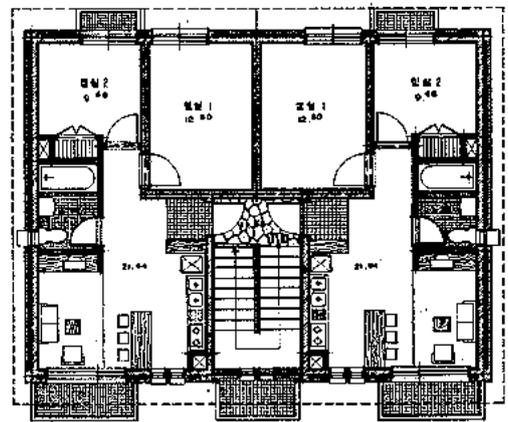
김석민 (대호건축사사무소)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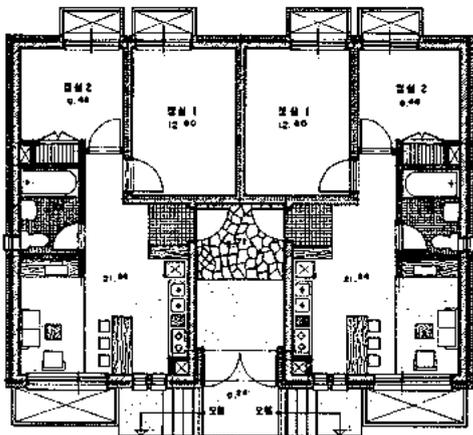
- 대지면적 : 300.00㎡
- 건축면적 : 114.00㎡
- 건 폐 율 : 38.00%
- 용 적 율 : 108.56%
- 구 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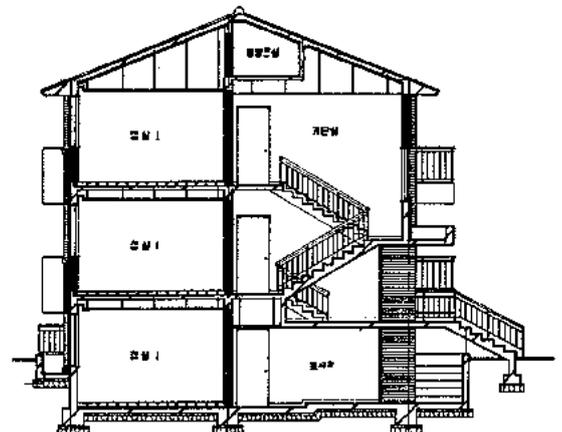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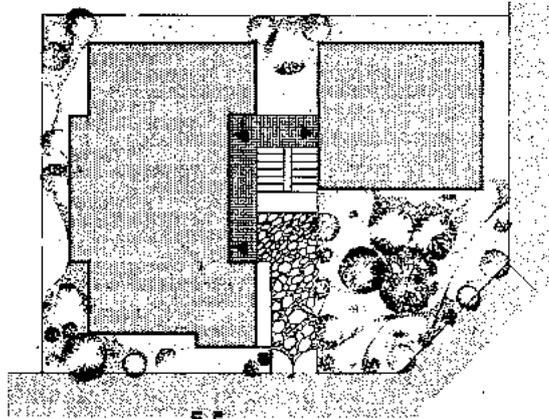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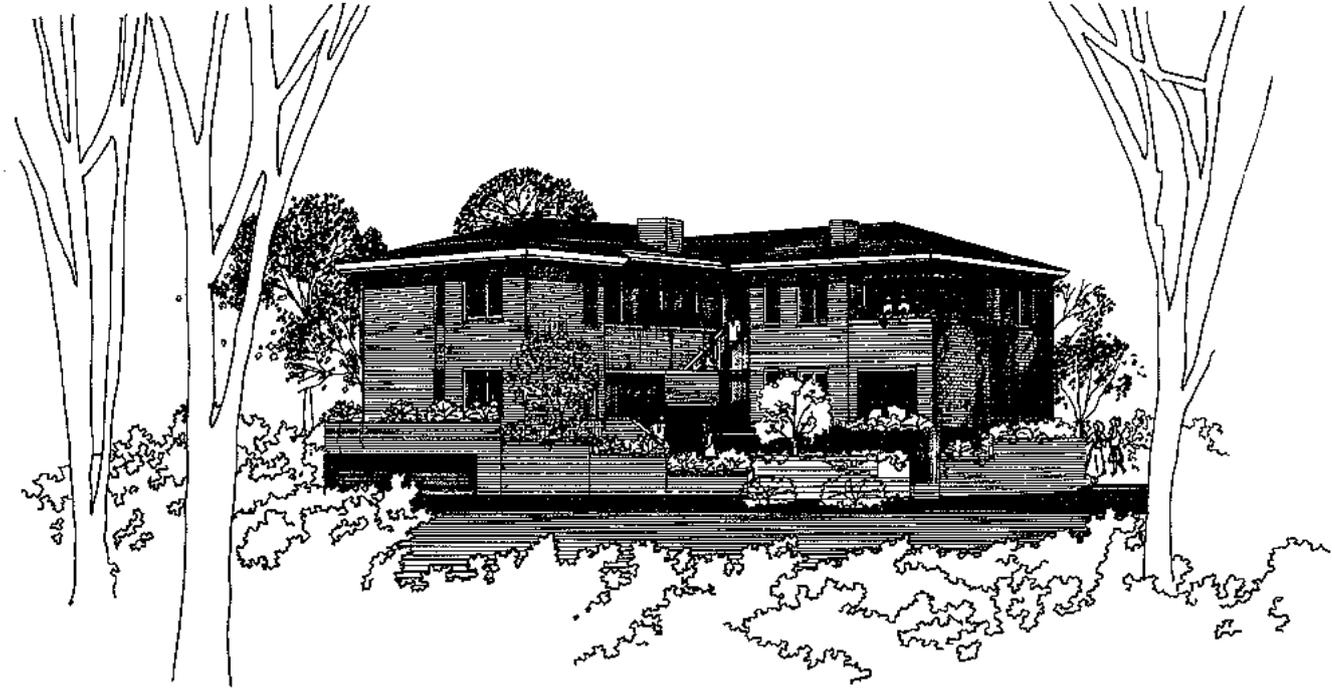
단면도

6세대 2층 외부계단+편복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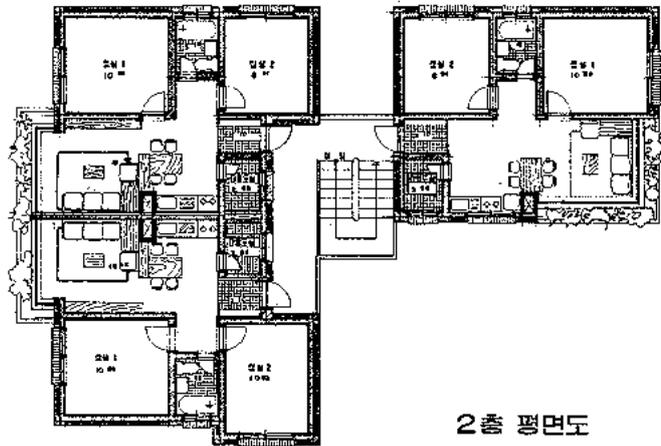
임길성 (경동건축사사무소)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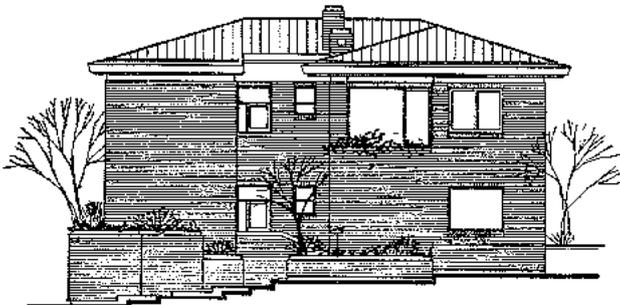
- 대지면적 : 327.70㎡
- 건축면적 : 155.32㎡
- 건폐율 : 47.30%
- 용적율 : 88.18%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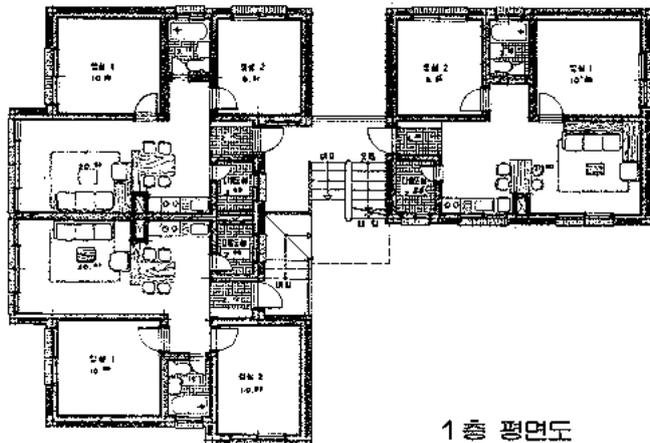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정면도



1층 평면도

昌慶宮 通明殿



張 順 鏞
三成 건축사사무소

1. 연 력

太宗18년(1418)에 壽康宮을 건설한 후 65년이 지난 成宗14년(1483)에 수강궁터에 昌慶宮을 營造하면서 成宗15년에 通明殿도 건립되었다. 그 후 140년만인 仁祖2년(1624)의 李适亂에 소실된 것을 仁祖11년(1633) 4~7월에 仁慶宮의 靑瓦家 36間을 철거하여 그 목재로 通明殿을 중건하게 된다. 중건 후 20년인 孝宗3年(1652)에는 昌慶宮 창덕궁에 대한 보수공사가 시행되면서 通明殿은 變와공사 및 마루귀틀교체 등의 보수가 있었다."

중건 후 150여년이 지나 正祖14년(1790)의 대화재로 다시 소실된 채로 40여년간을 지나다가 純祖30년(1830)의 대화재로 피재된 건물들을 純祖 32~34년의 복구공시에 通明殿도 함께 재중건 된다.

그후 日政期에 昌慶宮을 昌慶원으로 개조하여 일반의 관람장으로 변모되면서 궁궐로서의 면모는 사라지고 유원지화하였으나 다행히 昌慶宮의 正殿인 明政殿

을 비롯한 중요건물만이 일부 현재까지 남아 있으나 부속건물 및 圍아등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通明殿 건물의 내부는 칸막이가 없어 지는 등의 부분적인 변조는 있었으나 외관은 큰 변형없이 간간히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純祖代에 증진된 이후로 130여년의 풍상을 겪은 건물로서 李朝末期의 건축기술의 수법을 간직하고 있는 重要한 건물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청안에 걸린 通明殿이라고 쓴 편액도 順조의 御筆로 알려지고 있다.

2.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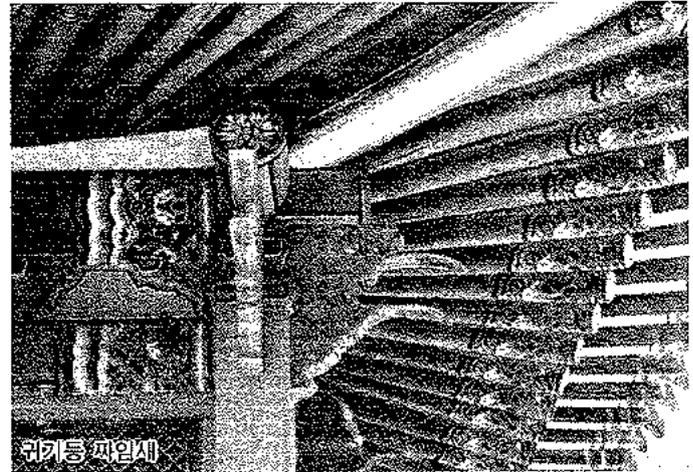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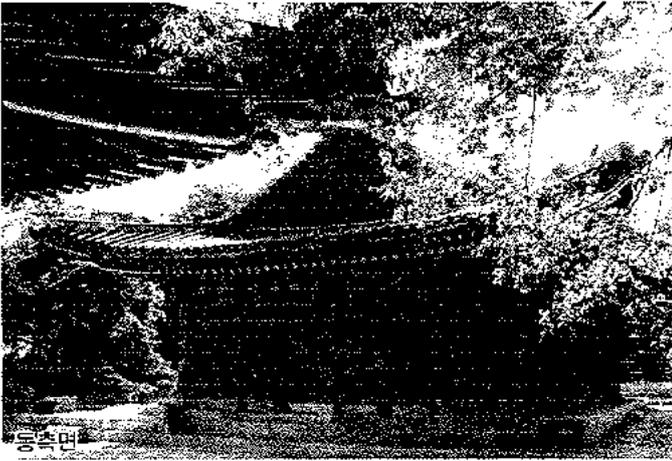
通明殿은 昌慶宮 內殿의 燕寢中の 하나로 王妃가 常臨하는 中宮殿 즉 坤殿이다. 이 건물에서 외관상으로 확인한 특징중의 하나는 지붕에 용마루가 없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慶福宮의 交泰殿, 昌德宮의 大造殿, 慶熙宮의 隆福殿과 會祥殿을 들 수 있으나 現存하는 것으로는 通明殿과 1917년의 昌德宮의 화

재로 大造殿이 소실되자 景福宮의 交泰殿, 康寧殿 등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材瓦로 건립한 大造殿의 둘 뿐이다.

당시의 궁궐내의 시설물과 궁내사연에 대한 기록인 宮闈志에는 이런 건물을 無樑閣이라 표현하였다.

지붕의 용마루를 생략한 이유에 대한 확실한 문헌이나 자료는 아직 접해본 일이 없기에 단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략된 것으로 추리 할 수 있다.

궁궐내의 중요건물로는 공식적인 행사시 사용되는 正殿(景福宮의 근정전, 昌德宮의 인정전, 덕수궁의 中和殿, 昌慶宮의 明正殿 등)과 國王이 평시에 집무하는 便殿(昌德宮의 宣政殿, 昌慶宮에서는 복원에정인 文政殿 등)과 王妃가 거처하는 坤殿이 있다. 그런데 유교를 숭양하고 불교를 억제하던 당시대로서 國泰民安을 주도하는 王室을 굳건히 하려는 의도에서 建築에서도 先代로부터 풍미하여 내려온 東洋의 陰陽五行思想 또는 風水地理에 입각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국초의 한양의 都城과 宮地를



정하는 과정이라든지, 王室의 묘소를 정함에 있어서도 장기간 地宮을 동원하여 전국의 吉地를 찾아 明堂터를 잡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여서라도 吉地로 만들려는 예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구히 국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방대한 노력 끝에 정한 都城內의 王宮안에 핵심적인 건물인 王殿, 便殿과 坤殿을 營建할 때에 건물의 배치와 座向, 규모 등등의 모든 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역시 陰陽五行思想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陽인 便殿에 대해 陰인 坤殿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龍字가 들어가 있고 건물에서 脊椎格인 용마루를 삭제함으로써 단순하고 확실하게 건축적으로 음양을 조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구조설명에서도 언급되지만 외적인 용마루를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지붕속의 종도리에서도 陰數인 짝수를 사용키 위해 종도리도 하나가 아닌 둘을 배치하는 특이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3. 건물의 개요

1) 배치 및 평면

명정전의 북서측으로 창덕궁 근방에 남향으로 자리잡았으며 건물의 북측으로는 계단식 花階로 처리되고 동측에는 養和堂이 있고 서측에는 石橋가 설치된 蓮池가 장방형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연지에는 石臺와 怪石이 놓여지고, 연못의 북측으로는 우물에서 부터 장대석으로 만든 道水路가 가설되어 연지 북측의 석축에 배치된 石漏槽로 물이 공급되도록 구성함으로써 건물의 북측과 서측의 경관은 전원 속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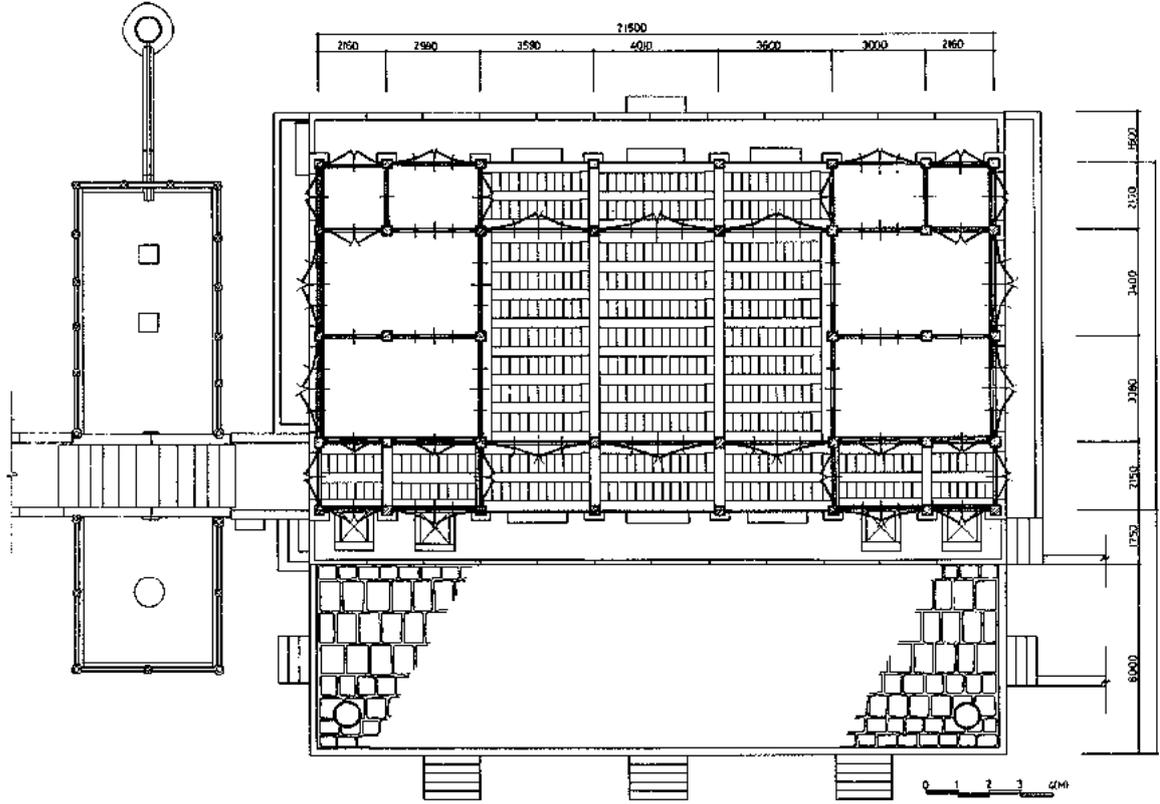
정면 7칸, 측면 4칸에 면적이 722평 정도의 큰 규모인 건물의 정면에는 장대석 1벌로 쌓은 기단 앞으로 다시 불규칙적인 크기의 박석으로 포장된 폭 6m에 달하는 넓직한 月臺가 3벌대의 장대석 기단으로 구축되었다. 월대의 상부 좌우에는 드무가 놓여져 있으며 이것은 실용적으로는 화재를 막기 위한 방화수통 역할도 되겠으나 그보다는 도철문(養養文)이 새겨진 드무와 그속에 담긴 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火氣를 누른다는 呪術的인 사상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구한말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東闕圖形에는 통명전 서측과 서남측에 부속건물이 있고 남쪽과 동남쪽에는 문간채와 행랑채가 있으며 동쪽의 養和堂과의 사이에는 담장이 있어 이담장이 북측과 서측의 花階를 둘러싸 宮內의 일곽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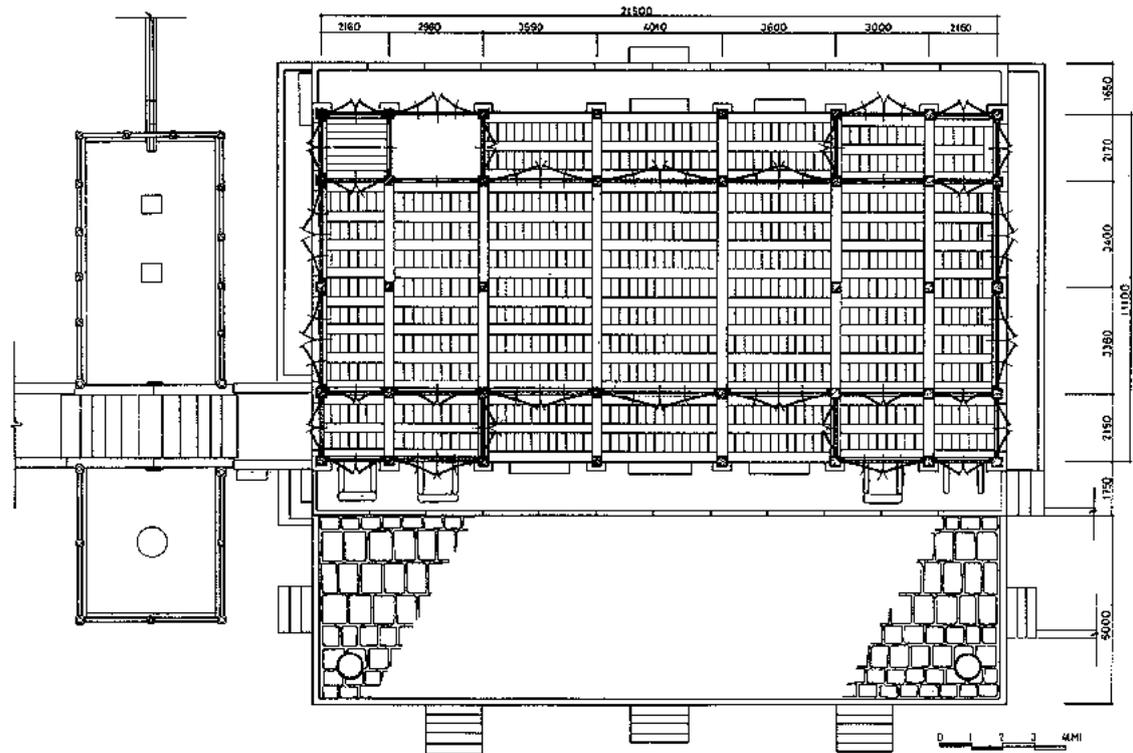
건물의 중앙의 3칸은 대청으로 구성되어 평상시의 거실로 사용되고 좌우로는 온돌방이 있고 이 온돌방의 앞뒤로는 退房이 있어 內人들의 入直室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칸막이가 철거되고 전체가 마루로 깔려져 있다. 원상태는 건물 전면의 좌우에 함실아궁이 있어 뒷마루 밑으로 들어가 온돌방에 불을 지피도록 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함실아궁의 석재 윤곽만 남긴채 기단과 동일하게 포장되어 있다. 아마도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개조되면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

2) 外觀 및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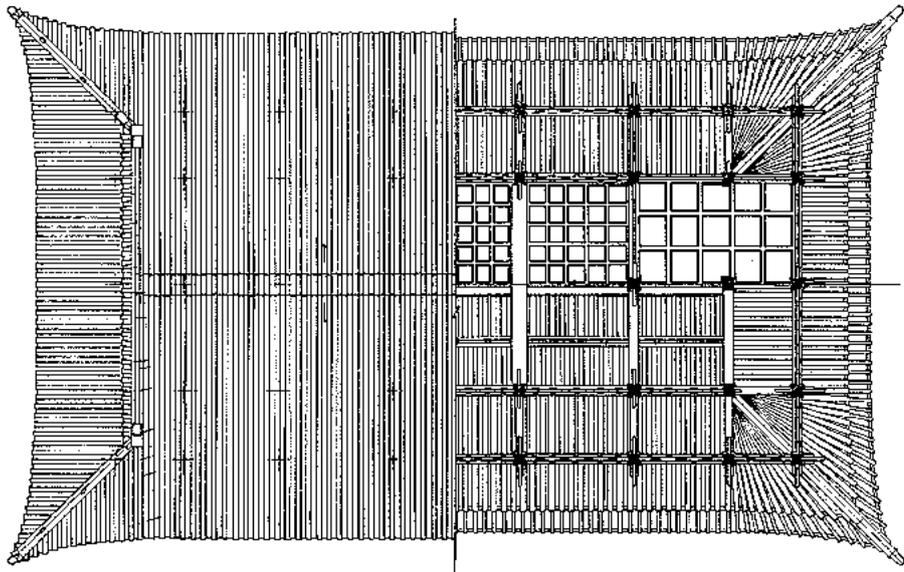
2고주 7량집에 2익공 겹처마 팔작 구조이며 대청부분이 궁관이 달린 떠살 분합문위에 높직한 교살창이 있고 그외의 4면은 머름중방위에 卍字살분합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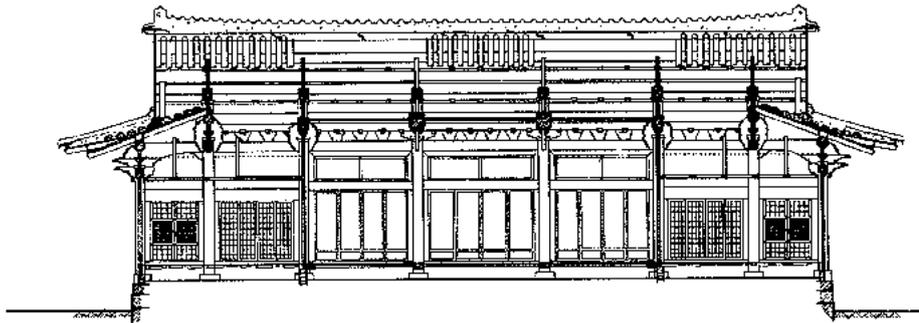
본명전 부원 평면도



본명전 평면도



통명전 양사도 및 지붕 평면도



통명전 횡단면도

그 위의 교살창으로 외관이 구성된다.

후면의 대청 밑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
를 교살창처럼 透刻한 여모판(廉隅板)²⁾
이 설치되고 전면에는 디딤돌 좌우로 여
모판에 구멍을 내고 그 위에 구멍을 잘
게 뚫은 철판(風穴鐵板丁具)³⁾을 덧대었
다.

앞뒤의 퇴보의 끝은 고주에 창방과 같
은 높이로 연결되고 대청은 고주위의 중
도리에서 우물받자로 처리되었다. 대량
위로는 짧은 동자주에 중중도리의 창방
이 걸리고 종보위로는 판대공을 세우고
창방으로 받친 종도리가 통상의 구조법
과는 달리 짝수로 구성되며 종도리 사이
에는 순각판을 대었다. 종도리를 짝수로
구성하는 것은 창덕궁의 大造殿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王妃殿을 땅(地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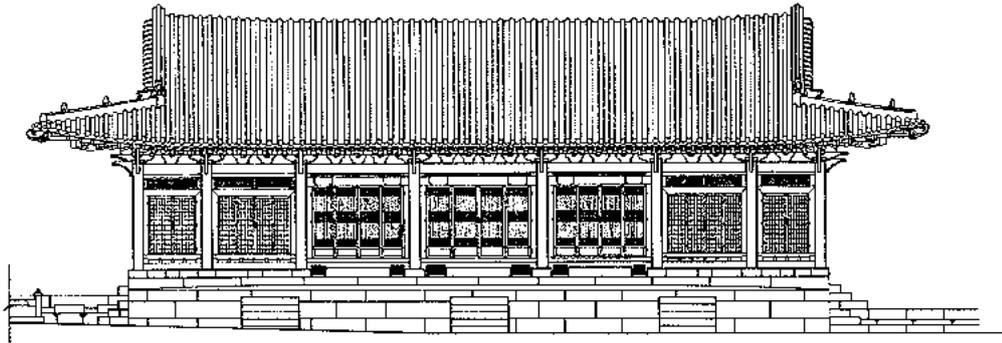
이라는 의미를 갖는 坤殿이라고 부르듯
이 궁궐건축에서 陰陽五行思想과 결부시
키기 위한 수법으로 종도리를 陰數인 짝
수로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온돌방 중앙의 고주위에는 안초공이 설
치되고 그 위에 종도리가 측면의 서까래
를 받고 그 위로 고주를 세워 종보를 받
도록 하였다.

3)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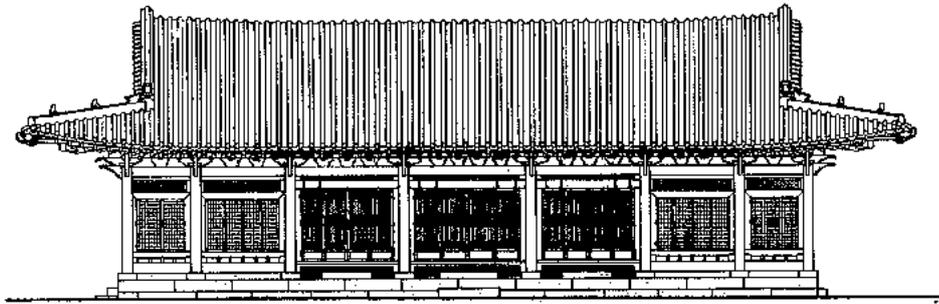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붕에 용
마루가 삭제되면서 이 부분에 특수한 기
와를 사용하였다. 1830년의 창경궁의
대화재로 소실된 건물들을 1832~1834
년간에 시행된 중건공사의 보고서격인
昌慶宮營建都監儀軌에는 이 기와를 曲瓦
라 표현하였다.

曲瓦의 숫기와는 밑변길이 55cm, 상변
최대수평길이는 65.2cm이고 양단부는
일반의 숫기와 규격과 비슷하나 중앙부
는 폭 16cm, 높이 15cm이며 중앙이 양단
보다 14cm정도 휘어 오른 기와이며, 밑
변의 접선각 38°, 상변 접선각 46° 정도
로서 평균하여 42° 정도의 기울기이고 따
라서 숫기와의 굽어진 각도는 96°정도가
된다. 제작방법은 보통의 숫기와 2장을
연결하여 모양을 갖춘다음 구운것처럼
중앙부의 표면이 양단부와는 다른 표면
색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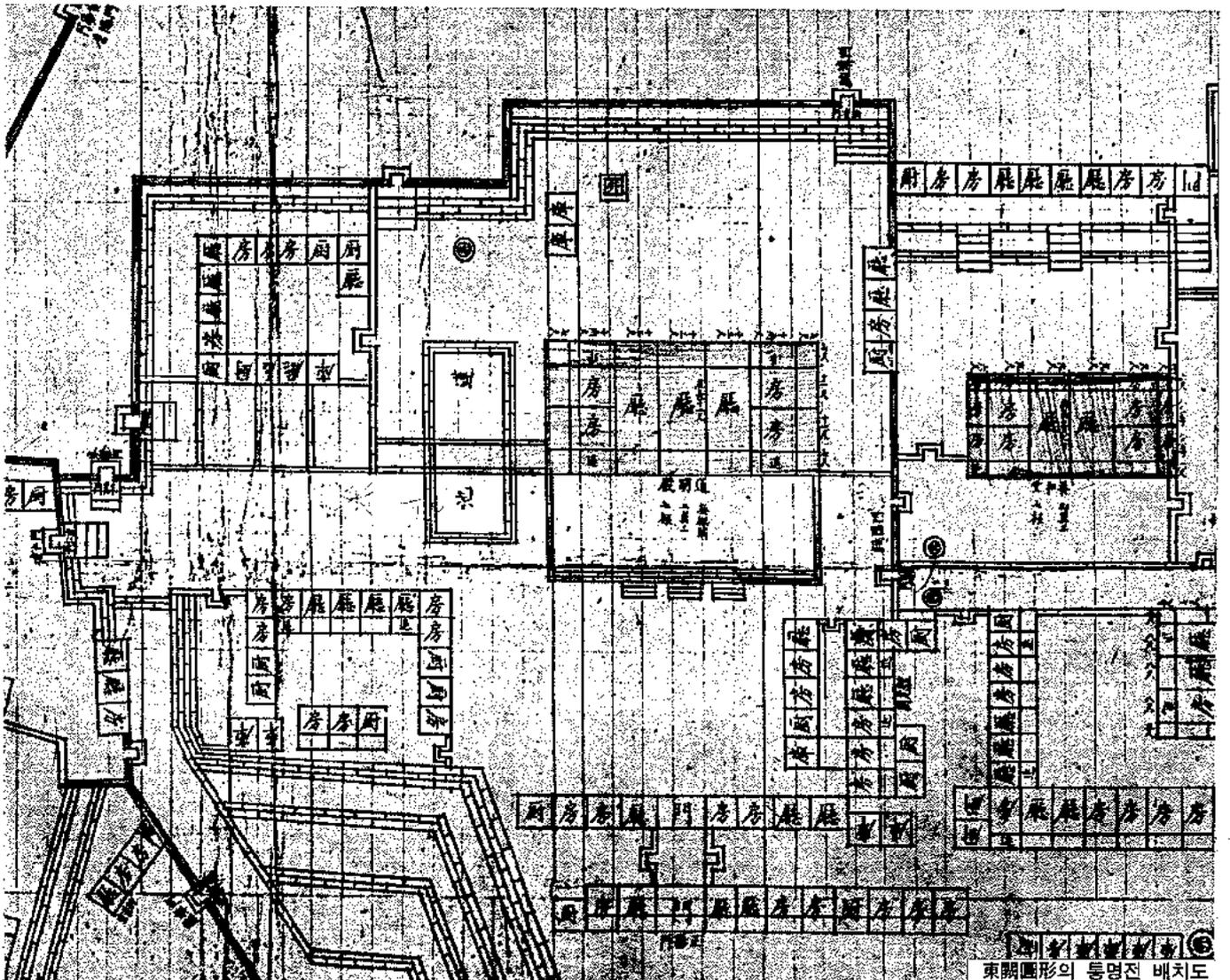
曲암기와는 밑변 길이 63cm, 상변의
최대 수평길이는 68cm에 폭 30cm정도의
대형기와로서 숫기와보다도 더 긴편이며
숫기와와 마찬가지로 중앙부가 18.5°
가량 휘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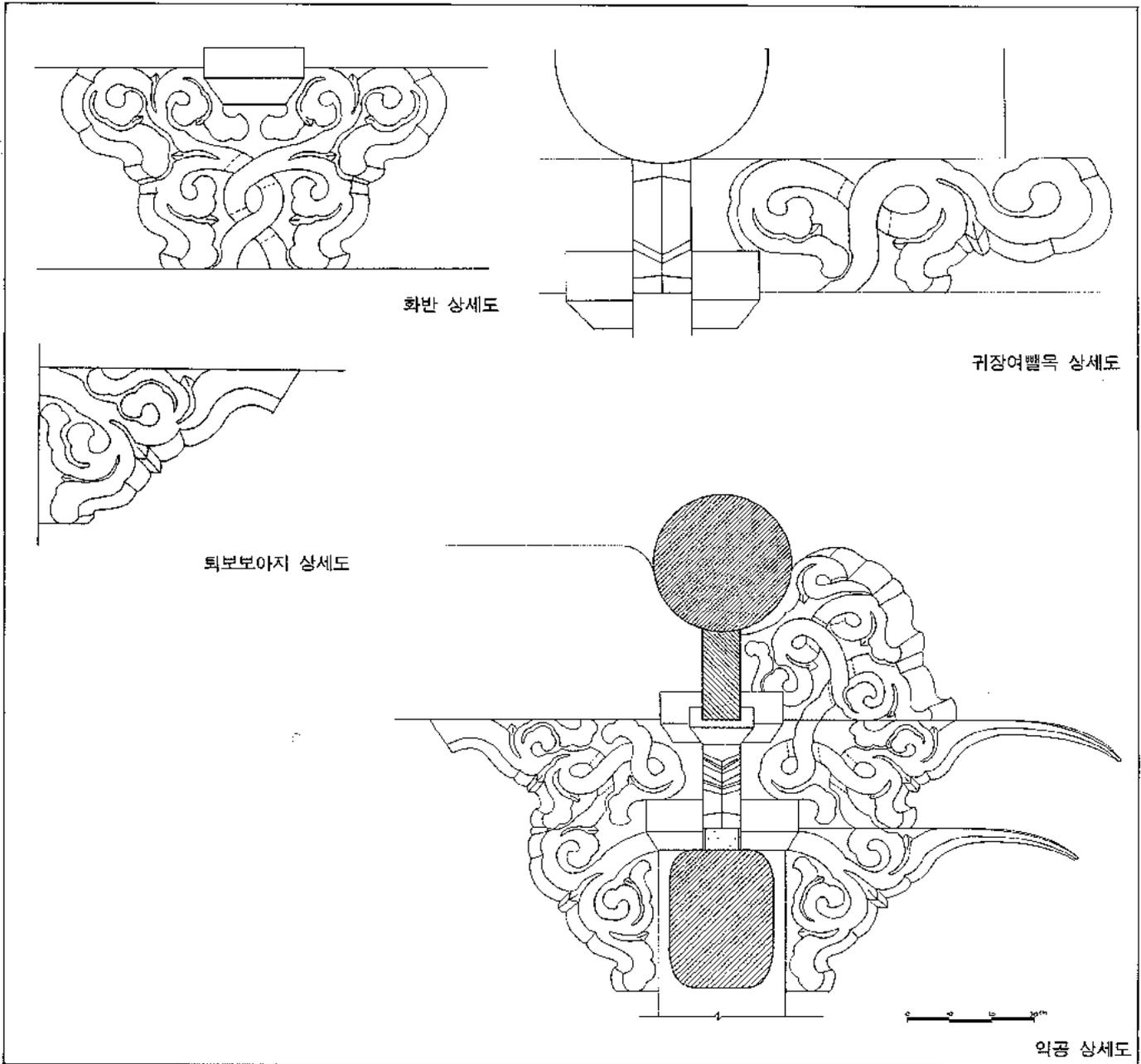
동명전 정면도



동명전 배면도



東闕圖形의 동명전 배치도



지붕의 장식물로는 합각마루 하단과 추녀마루 上端에龍頭가 있으며 추녀마루의 雜像이 현재는 2개씩 뿐이나 원래는 5~7개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래끝에는 吐首가 끼워져 있으며 합각마루 중앙부에는 용마루가 없는 관계로 아무런 장식물 없이 曲瓦로 처리되고, 각 지붕마루는 회반죽의 양성마루로 처리하였다.

박공부 중앙의 기와도 통상적으로는 숫기와의 중앙에 배치됨에 비해 이 건물에서는 암기와의 배치되고 모끼연도 중앙에 배치되지 않고 등글게 구부린 모끼연 개관이 중앙에 자리잡았으며, 박공판도 중앙부 하변을 상변의 곡선에 맞춰 등글게 처리하고 지내철을 박았다. 합각벽은 풍판에 줄대로 구성된다.

4) 단청

단청의 구조는 모로단청이며 기둥과 벽선, 인방 등은 석간주 가칠이고 창호는 뇌록색으로 가칠하였다. 도리 및 창방의 머리초는 색직휘 다음에 온바탕 연화머리초에 장단 삼청 황의 순으로 늘휘 3휘를 놓고 쇠침과 녹실 다음에 황실은 없이 먹당기로 끝난다. 대량의 머리초도 도리와 마찬가지로 연화머리초이나 직휘에 쇠코결련금, 늘휘 다음에 황실이 추가되어 있다. 퇴보는 앞목초 뒷목초가 다같이 주화관자머리초이며 직휘와 늘휘는 도리와 마찬가지로이다.

연목은 휘없는 연화머리초이며 연목부리는 6판연화초이고 도리부리 및 추너부리는 태평화로 시문하였다. 단청의 우물천장 반자에는 배색을 달리한 연화다

섯송이를 배치하고 그 주변에는 초틀임을 한 초틀임연화반자초이다.

【참고문헌】

- 「東闕圖」: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 「東闕圖形」: 일명 구한말배지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 「宮闕志」: 憲宗代編과 高宗代編
- 「朝鮮古蹟圖譜 卷十」: 조선총독부, 1930
- 「昌慶宮營建都監儀軌」: 1834
- 「韓國의 古宮」,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0
- 「韓國建築大系Ⅲ 丹青」, 張起仁 韓寅成, 善成文化社, 1982
- 「朝鮮朝王宮 重要建築物指定調査書 (I)」, 文化財管理局, 1984. 12

建築藝術論考(Ⅰ)

崔 椿 煥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근년에 와서 건축학계 내에서는 국내 의를 막론하고 建築論(theory of architecture) 또는 建築美學(aesthetics of Architecture)에 관한 이론이 많이 논의 되어 오고 있다.

이들 이론들의 추구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建築의 本質은 무엇인가?” 또는 “건축이 구현 해야할 참다운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인 해답을 구하는 일이라 볼수있다.

인간이 만드는 물건들은 어떤 목적에 충당토록 만들어 지는데, 건축은 인간의 생산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이면서, 인간생활의 모든면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다른것과는 비교 안될 정도로 복잡하고 多面的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이것은 인간의 生存·生活·活動 그자체가 물질·정신의 모든 세계구성요인과 관계 되고 시대·지역·집단·개인에 따라 다른 文化를 형성영위 하는것에 대한 충족물이 되어 하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의 모든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문화전체중의 건축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고 건축문화와 타문화, 즉 경제·정치·사상·사회·종교 등과의 교섭, 관련을 파악할 필요가 생겨 이에 따라 건축의 특질을 논의하기 위하여 건축기술론, 예술론, 경제론, 사회론... 등, 건축존재의 어떤 일면을 다루는 건축론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러 건축론중에서도 藝術論 또는 建築美學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건축이 건축가의 예술적 재능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一次的 總合에 의하여만 들어지고 건축을 제작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나 이를 사용하고 감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다 같이 우선 건축의 아름다움과 인간 감성에 와 닿는 어떤 감흥을 바라게 되는데, 이러한 감흥을 넓은 의미의 藝術性이라 지칭할때, 인간의 생활이 합리성, 물질성, 실리성에 대한 욕구를 추구함과 동시에, 아니 그 이상으로 인간심성의 근본에는 감성적, 이념적인 어떤 가치의 취득을 이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 인간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가치를 美學에서는 넓은 의미의 “美”라 보는 것이며 이 美를 인위적,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인간활동을 예술이라 보고 고대로 많은 철학자, 미학자, 예술가, 건축가들이 건축의 예술성을 중시하여 온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건축과 예술과의 관계와 건축의 예술성에 대한 기초적인 성격에 관하여 後記한 참고문헌에 주로 준거하여 요약 개설하여 볼까 한다.

건축의 예술성을 고찰함에는 건축이 예술의 범주내에 속하는 하나의 사상이라는 전제하에 예술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선행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藝術의 本質

우리들이 일상 접하고있고 또 별로 생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쓰고 있는 藝術이라는 말은, 이것을 학문적으로 다루어 藝術의 本質을 규정하고자 할때 그리 쉽게 一義的으로 또는 통념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임을 이를 다루고 있는 美學관계 문헌을 일별할때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藝術本質의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藝術이 인간문화의 큰 분야의 하나로 시대, 장소에 따라 예술의 영역에 변동이 있고 또 예술 그 자체를 보는 관점과 입장이 달라서, 이에 따라 많은 이론과 학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의 표현에 있어서도 고대에는 고대예술이 현대인에게는 현대예술이, 유럽인에게는 유럽예술이, 중국에는 중국예술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며 전개되어 오고 있는바, 이는 결국 예술의 기능이 인간의 생명감·미감에 따르는 감동을 각기 다른 방법과 형식을 통하여 표현하고, 생명에 대한 자각과 인간존재를 지향하는 시간·공간에 대한 인식의 방법, 세계와 인간에 대한 관념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대에 와서는 美와 藝術에 대한 학문적 인식의 입장과 연구방법

이 극히 다극다양화하여, 철학적, 관념론적 방법의 연장선상에 현상학적, 예술 심리학적 연구방향, 분석철학의 영향하에 기호론·의미론, 구조주의의 방법적 응용 등이 있고 해석학 예술사회학등 미학 방법론이 복잡 다단하게 각국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이를 연구들의 재통합을 꾀하는美學의 기초이론의 재정립, 또는 미학사의 재검토 등의 연구가 행해 지고 있음을 엿 볼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학의 전문연구자가 아닌 우리들 건축학도로서는 예술의 본질이라는 철학적·미학적 또는 예술학적 정의의 개념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다음에서 나름대로 예술의 본질규정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본다.

예술이라는 용어의 기본개념, 내용을 말뜻의 유래에서 부터 찾아보면, 동양에서는 “藝術”이라는 말이 일제기 中國의 「後漢書」(安帝記)나 書畫(藝術傳)에 보인다고 하나, 이 말의 개념은 技術·藝術·學術 일반과 呪術·點術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 현재 우리들이 쓰는 예술의 용어개념과는 크게 다른 것이라 한다. 현재의 예술개념의 용어는 영어, 불어의 art나 독어의 kunst에 대한 日本人들의 해석에 의한 것으로 1900년초 사용되어 온 정착 이후 말이다.

그런데 이 art가 기술일반을 뜻하는 라틴어의 ars에 유래하고 이 ars가 고대 회랍의 tekhné와 동의어로서 이것 역시 넓은 의미를 지녀 오늘의 예술(회화·조각·음악·건축등)이외에 변론·조선·의술·체육·입법등에서 부터 수렵·요리에서 심지어 화장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제조기술 일반을 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술일반으로 부터 예술이 분리된 개념으로 설정되기 시작한것은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러 바사리(Giorgio Vasari, 1511~1574, 이태리 건축가, 화

가, 근대미술사와 미술비평의 시창자로 일컬어짐)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서양미학의 시발어라고 보는 플라톤이즘(Platonism)의 성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서양문화사에서 철학의 뿌리를 회랍의 Socrates(470 - 399 B. C.) Platon(428 - 349 B. C.), Aristoteles(384 - 322 B. C.) 에 두는 것과 같이 미학 전반의 근원 역시 이를 3자에 두고, 르네상스시대와 칸트 이전 까지 예술에 대한 사상은 플라톤이 중심인 이들 3자의 것, 즉 플라톤이즘의 연속이라 보는데, 실상 칸트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모든 학자들의 미학도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플라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양의 미학의 뿌리와 줄기가 플라톤의 미학사상인 이상, 이를 안다는 것은 예술의 본질을 고찰할때는 그 대의를 안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최고의 美인 「絶對美」는 인간이 철학적인식에 의하여 얻어지는 理念的인 美로서 육체적·물질적·감각적 美의 단계, 인간의 마음의 미, 즉 人倫行爲의 美의 단계, 普遍的知인 學問의 인식에서 얻어지는 美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 4단계인 超越的·絶對的인 「絶對美」에 도달되는데, 이 「絶對美」는 모든 美의 근원이며 종극이고 그 자체가 美인 절대적인 어떤 원형(idea)인 것이다. 또 이러한 美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이를 열망하고 추구하는 사랑(erós)를 바탕으로 해야만 얻어 지는 것이다. 결국 「예술의 창조」란 이러한 절대미의 天才에 의한 구체화인 것이며 또한 天才의 創造란 인간의 神의 인도를 받아 神이 제시하는것을 감지하여 그것을 사람의 표현방법에 의하여 변역함으로써 가능한 일로써, “神속에 몰입하는것” 즉 영어의 enthusiasm(황홀)속에서, 인간 세계에서 이룩될수 없는 높은 곳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며, 創造란 「이테아」를 모방하여 物象에 정착시키는 것 이라고

말한다. 또한 예술은 「最高의 原理」를 갖어야 하는데, 이 최고의 원리란 美는 항상 節度와 調和에서만 이룩된다는 것이며, 知·行爲·藝術의 완전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調和하는 것을 아는것 이라고 단정한다. 그렇게 해서 플라톤은 「美學」은 「美 그 자체의 學」으로써 “모든 학문에서 출발하여 美學에 도달함으로써만 인식의 완전을 얻는다”고 말하여 諸學의 최상위에 美學을 위치 시켰다.

이상에서 본 플라톤이즘은 일종의 神秘主義와 理性主義의 統合觀念이라 볼수 있으며 靈感說(theory of inspiration)의 古典的形式이라 할수 있다.

이와 같은 고대의 플라톤이즘의 기술과 예술론은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러 전기한지의 철학과 미학상의 美·藝術에 관한 이념을 통일·집약하여 그의 저서 「判斷力批判」(1790)에 독창적인 이론을 수립, 그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대과학적인 論理가 美에 적용되어 과학적 엄정성을 갖고 藝術의 분석이 이룩되었다.

칸트는 自然活動에 對比하여 인간이성바자리에 의하여 기술을 기계적기술(mechanisch)과 아름다운 기술(bellissime arti)로 구분되어지고 이를 이어 近代哲學과 美學의 이론적체계를 구축하고 現代哲學·美學의 방향제시의 근거가 되었던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에 의하여 美와 藝術이 학문적체계의 이론이 정립되어 인간문화속에 확실한 위치가 획득되어 졌는데, 칸트는 당시 까지 의지에 의한 활동과 소산을 일반적인 기술(Kunst)이라 지칭하고 이를 다시 지식만에 의한 생산활동인 機械的技術(Mechanisch Kunst)와 快樂 직접목적으로 하는 感性的技術(ästhetische kunst)로 구분하고 이 감성적기술을 感覺表象의 快樂 목적으로 하는 “快樂한 기술”과 美的判斷의 근거를 이루는 快樂 목적으로 하는 “아름다운 기술”(schöne kunst) 즉 藝術로 구분하였다. 이때에 藝術은 아름다운것 이라는 전제

즉 藝術=美라는 관념하에서, 예술이 理性·道德·功利에 속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인 미적가치를 창조하고 충족시켜 주는 기술로써 정의 하였거나, 칸트가 정의하는 美에는 人爲的 美보다 自然美가 우위에 있어, 이 自然美는 世界原因인 최고 예지자인 神의 理性에 의하여 산출된 어떤 종류의 예술이라 보고 '自然'은 自然自體인 동시에 예술로써 보일때 아름답다고, 藝術은 우리들이 藝術로써 의식하면서 또한 自然과 같이 보일때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藝術은 세계의 理想的構造를 인간의 技에 의하여 美的 理想으로써 表象(representation) 하는것, 다시 말해서 藝術에 의하여 인간이 단순히 자연의 은혜만을 향수 하는 것이 아니라 主體的으로 세계의 理想構造를 美的形相속에 직관하고 표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관념의 칸트美學은 예술의 모든 이론을 완결 한것은 아니고 근대이후의 모든 예술론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미와 예술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기원을 제시했다는 의미로써 중요한 것이다.

美에는 여러가지 美的 양태와 종류가 있어서, 우미·화려·숭고·신비·장엄·유머(humor)등의 美的 관념이 있고 더욱이 현대예술에서는 추한것 까지도 예술의 소재로 취급되어서 美가 시대·민족·개인등에 따라 반드시 동일한것이 아니어서 하바트 리드(Herbet Read, 1893-1968)는 그의 저서 The Meaning of Art (1931)에서 "美感이란 역사에 따라 非固定·不確實한 것이고 변화가 많은 현상이다.

우리들은 아름다운것이 예술이라 하던가 모든 예술은 아름다운것, 또는 아름답지 않은 것은 예술이 아니다 라고 예술과 아름다운것을 동일시하나 藝術은 반드시 美가 아니며 美術과 美는 아무런 필연적 관계가 없다"라 하여 美가 藝術生成의 目的因이 아니고 形相因이라 말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술창조는 美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창조된 작품이 대략 美라 불리워 지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現代美學을 대표하는 美學者의 한사람인 수리오(Etienne Souriau, 1892-1979)는 藝術을 정의하여 "藝術이란 하나의 實在(being, être)를 표현하는 形을 가지고 그자신 의미를 갖는 유일·완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實存在케 하는 과정의 총체이다"라 말한다.

이러한 수리오의 예술관에는 예술의 非寫像의 성격이 강조되어 있다. 즉 어떠한 예술이던(연극, 문학, 회화... 등) 예술속에 표현되는 것은 순수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되고 인간에 의하여 관념된 정경된 현실이 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언제나 "인간이 부가한 자연"이여야 되는것으로, 완전한 寫實主義가 될때는 결국 作者는 없어지고 현실과 동일한 것이 될때 예술은 예술적인 것을 중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이 질주하는 그림을 그릴때 말의 배가 거이 땅에 닿고 앞뒤발이 거의 일직선상에 오게 그림을 그릴때, 이를 보는 사람은 뛰는 말 입을 수궁하고 현실에 없는 형태를 잡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예술의 제작자가 단순한 현실의 寫實이나 再現을 하는 조각자가 아니라 思考에 대하여 새롭고 순수한 창작을 행함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예술은 특유의 방법에 의하여 현실을 轉位·象徵·超克하여 卑俗한 현실로 부터 현실을 넘어선 세계로 移行시켜, 自主的인 存在中에 建立하는 세계인 것이다. 그리하여 低次元으로 부터 高次元으로 이루는 예술의 계층은 비속한 현실로 부터 멀어질수록 완전한 예술로 승격하는 것이 되어 현대의 抽象藝術이 모든 예술의 하나의 도달점으로 이해되는 타당성을 부여 받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수리오는 藝術을 "의식적

인 인간작품에 의한 美的 제작"이 아니라 "현실의 樣式化이며 存在의 昇格, 形式的 創造"라고 정의지어 진다.

이말은 다시 요약되어 인간에 의한 순수한 창조의 세계가 예술의 세계이며 製産的인것은 非藝術이라는 말이 되며, 창조된 예술의 걸작만이 예술이 부여하는 엑스터시(extasy, 황홀)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2. 藝術의 分類

건축의 藝術性을 살피기에 앞서, 諸藝術이 예술의 범주 속에서 어떻게 분류되며 건축예술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美學者 藝術學者들은 여러가지 입장에서 다양하게 예술의 분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예술의 복잡한 구조를 완전히 정리·분류하지는 못한 듯하다.

이를 여러가지 분류에서 비교적 건축예술의 고찰에 도움을 주는것 두가지만 약속하여 본다.

우선 데쉴(Max Dessoir 1867-1947)은 예술을 공간예술과 시간예술로 통예대로 분류하고 그것을 作用媒體의 종류에 따라 形象에 의한 造形藝術과 音聲, 몸놀림에 의한 音樂藝術로 분류하고, 이것을 다시 表現內容이 어떤 連想을 이르게 하는 현실의 사물을 묘사, 재현하는 것인가, 또는 현실에는 존재치 않고 연상을 일으키지 않는 자유로운 表象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도방예술과 자유예술로 구분하여 예술을 4대별한다. 다음에 그는 공간예술 즉 조형예술을 다시 세분하여 2차원공간에 성립하는 평면적인 것과 3차원공간에 성립하는 입체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3차원 공간예술을 空虛部를 갖는 것과 充實體의 것에 따라 구분하여, 건축을 3차원 공간예술로써 공허부를 갖는 것이면서 그 표현 방식이 非模倣的, 主觀的, 抽象的, 自由藝術이라 규정한다.

이 분류에서는 여러 예술종에서 몇가지 대표적인 회화, 조각, 건축, 시, 음악 등에 한정하여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 위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분류는 너무 단순하여 모든 예술의 분류에는 미흡할

뿐더러, 근본적으로 많은 종류의 예술이 시간성과 공간을 같이 내포하는 예술현상임이라 볼때 근본적기준설정이 불합리함을 인정치 않을수 없을 것이다.

다음에 전술한 수리오에 의하여 작성

데수아의 예술분류

○예술의 시스템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조각 회화	몸 시	모방예술: 일정의 연상을 일으키는 현실 형태예술
건축	음악	자유예술: 연상을 일으키지 않는 비현실 형태예술
조형 예술 (표현수단-공간·형상)	음악 예술 (표현수단-음성·자태)	

○공간예술·조형예술의 시스템

2 차 원 적		3 차 원 적		
		공허부를 갖음	총 실 체	
모방·객관적	회화·관화		조각	구체적표현
자유·주관적		건축	기념구조물 공예	추상적표현

되어 많은 공감을 얻고 그를 미학자로 유명하게 만든 분류표를 살펴본다.

이 분류표의 대전제는 모든 예술의 시스템은 처음과 끝이 없다는 관념하에 분류표를 圓型으로 구성하였으며 이것을 3중등심원으로 하여 제일 안쪽원에 예술의 인식을 이끄는 「感覺質」(qualité sensible)인 線, 色, 音, 語音등을 설정하고 제2원에 작품을 구성하는 形式이 非現實的인 形式 그자체가 작품의 속성인 예술들 그가 말하는 一次藝術을 배치하고, 외곽원에는 무엇인가 현실의 사물을 나타내는 再現的性格을 띤 예술들, 二次藝術을 놓고, 右半圓部에 대체적으로 공간성이 강한것, 左半圓部에 시간성이 추가되는 예술로 구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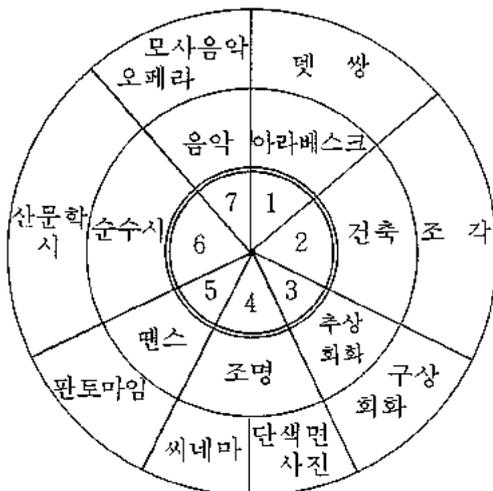
이와 같은 분류표는 다음에 도시하거니와, 이들 美學者들의 예술속에서 건축 예술이 어떻게 취급되어 지는가를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분류표에서 건축예술의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은 공간이 主素材가 되는 공간 예술이며 感覺質에 있어서는 3차원적인 보륨(volume)에 의한것이고, 內容보다는 形式에 의한 예술로써 분류되어 진다.

기서 內容藝術·形式藝術이라는 칭호는 예술이 표현하는 것이 현실의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용어로써, 수리오가 말하는 2차예술과 1차예술, 데수알이 지정한 모방예술과 자유예술, 기타 具象藝術과 抽象藝術, 再現藝術과 表出藝術, 客觀藝術과 主觀藝術등의 용어에 각기 대응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Denis Huisman, L'ESTHETIQUE. Collection QUE SAIS JE? N°635,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4.
 久保伊平治譯, 美學, 文庫7セジユ, 白水社, 東京, 1984. 今道反信編著, 講座美學 I~IV,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84. 森田辰一, 建築論, 東海大學出版會, 東京, 1978.

수리오의 예술분류



- 1. 선 2. 보륨 3. 색 4. 빛
- 5. 운동 6. 음성 7. 악음

“바람직한 건축사 상(像)”

장 상 진
동신건축사사무소

부조리의 척결이니 정화니 하는 어휘는 보조원 시절부터 건축사 회원이 되고도 십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결같이 들려 오고 있다. 그 슬한 결의대회와 구호, 그 많은 벌칙조항과 당국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정화의 필요성이 계속 주장 되고있음은 어인 일일까? 고도로 발달된 현대 의학에 있어서는 병의 원인만 알게 되면 그 치유방법의 발견은 시간 문제이며 실제로 많은 병들이 정복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모든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시켜 암세포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약물이나 기술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간 많은 노력에 의해서 1차적인 부조리는 거의 정화 되었다고 보여지나 좀더 고차적인 분야에서의 정화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이유는 정상적인 건축활동과 부정적인 건축활동간의 구별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를 구별하려는 필요성을 못느끼다 보니 이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오히려 적합한 것 같다. 공사 감리를 하다가 일조권을 몇 CM 위반했다던가 설계비 덤핑을 하여 건축사 품위를 손상시킨다든가 하는 행위는 우리 건축사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는 않으며, 만약 이런 일들이 만연하여 문제가 심각해지더라도 조금 더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단시일내에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건축계를 치명적이고도 만성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은 다른 부문에 있다고 보며 이제부터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을 모색하는데 전력 투구 해야만 한다.

우리를 대변하는 “건축사”지에서 요즘 소개 되는 건물들 보면 고급주택, 고급건물, 고층빌딩의 일색이며, 더구나 바람직한 건축활동을 했다고 찬사와 상을 받는 건물들의 대부분도 이런 유(類)의 건물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민의 입장에

서 볼 때 집을 지으려면 싼든 좋은 건축사에게 설계와 감리를 맡겨야 한다. 서민들의 생의 결정체인 방1칸은 세놓고 2칸을 주인이 사용하는 20평형 주택은 완벽한 설계가 이미 확정 되어져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인지? 6교대 내지는 8교대로 운영되는 공장 종업원의 식당에 대해서는 이미 만족 할만한 정답이 나와 더 이상 개선 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솔직히 이런 경우 건축사의 입장에서 설계비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이를 연구 개발하여도 빛도 나지 않는 건물이라 대충 손해가지 않는 한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서민에게는 20평형의 집이라도 평생을 담뭍혀 모은 온가족의 생명줄이자 일생의 보람인 것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건축사협회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자명해짐을 알 수 있다. 사회의 저변과 그늘진 곳을 애정을 가지고 돌봐준다는 것은 생색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설계비 덤핑의 폐해가 얼마나 큰것인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가끔 주객이 전도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설계비를 얼마 받았느냐는 것보다는 건축주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주었느냐가 더 중요하리라고 본다. 즉, 천원을 받고 팔백원 만큼의 일을 해 준 사람이 이천원을 받고 천원만큼의 일을 해 준 사람보다 훌륭하다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해야만 한다. 덤핑을 하지 않고 설계비를 제대로 받는다는 생각과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흔히 빠지기 쉬운 유이독존(唯我獨尊)적 이기심과 자만심이 접쳤을 때, 서민들의 눈에 건축사가 어떻게 비칠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느 전문직종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우리 건축사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이 와중에서 일을 수주하다 보면 주관적이고도 독선적인 논리로 상대방의 작품내지는 인물을 깎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몇년전 치과에서 보철을 한적이 있다. 얼마후 다른 이(齒)가 나빠져 다시 보

철을 해야했기에 지난 번의 치과를 찾았더니 이전을 하고 없어 그 근처의 다른 치과로 갔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한마디로 지난번의 시술자를 돌팔이로 몰아붙이고서 자신은 기술이 뛰어나며 회생정신이 투철한 자라며 마치 제2의 슈바이처나 된 것처럼 자랑했다. 그가 아무리 자기 P·R을 해도 의사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로만 받아 들여질 뿐이지 하등의 자랑거리가 못되는 것 같았다. 나의 관심은 단지 의료수가(酬價)에 있었다. 그가 제시하는 금액은 실제로는 썩 가격일는지 모르지만 호주머니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비싼 기분이 들어 좀 각자고 했으나, 협정요금 운운에다 극히 독선적이고도 아전인수적인 설득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것은 나 역시 고객에게 이 의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나의 등에 식은 땀이 흐름을 느꼈다.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는 당연히 스스로 찾아야 하며 자기 P·R도 필요 하겠지만, 항상 객관적인 자세로 자성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 같다. 그동안 우리 회원수도 늘어나고 각자 노력도 많이하여 사회에 이룬 업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아짐은 사실이다. 반면에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냉정한 눈초리로 주목하고 있음도 알아야겠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언행은 항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또한 봉사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무에 종사하다 보면 각종 법규나 규재등이 상호모순 되거나, 지방과 서울, 지방과 지방의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비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조항으로 현저한 불이익을 당한 건축주가 항의라도 하면 책임전가와 변명에만 급급하고 한수 더 떠서 덩달아 불평만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개선과 발전은 영영 멀어지고 말것이다. 나 아니면 누가 이런 곳은 일을 하겠느냐는 사명감을 가지고 밤을 세워서라도 연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하여 이를 관철 시킬려고 적극 참여하는 건축사가 되어야겠다.

感傷紀行 3



金 錫 澈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텐

'85. 5. 24 라데뵁스

라데뵁스는 새로운 도시의 신선한 한국면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잠시동안 이루어진 도시다운 실수와 흥분과 과장이 있다. 현대건축이 추구해온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옛 도시의 필연이었던 사실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많은 사람의 실질적 참여보다 몇몇 전문가가 만든 가설무대 같은 도시다. 여러 다른 레벨의 구성, 자동차와 보행자의 입체적분리, 건축공간의 도시공간과의 접속, 일조와 바람과 사람의 흐름이 고려된 건물군의 배치와 넓은 녹지공간의 확보등 오래된 도시들이 갖지 못한 것은 갖추고 있지만 정작 옛도시들이 갖는 도시형식의 의미중 상당부분이 잊혀지고 있는것 같다. 도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 생각한다. 도시계획이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의 차지가 되고, 도시에서 계획이라는 개념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많은 사실들이 왜곡되고 있다. 상징형식 대신 기능개념이 우선하고 개연성 대신 윤곽속의 자유형

식만 강조된다. 제한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큰 일이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부지런하지만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든 강남에 사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새로움의 장소다. 강남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증오와 환멸의 느낌이 덜친다. 중심업무및 상업시설군 주위의 아파트군은 다양한 것도 아니고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닌 약간 어정쩡한 구성인데 멀리서 볼 때 신기하였던 원통형 아파트군은 가서 보니 역시 도형적 구성에 끝난 입면유희와는 별것이 없다. 목소리는 크고 말은 많은데 알맹이가 없는 건축군이다. 토지의 입체구성을 상징하는 지하차도와 주차장의 어둡고 소리나는 공간들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85. 5. 25 배리 대학도시

거대한 숲속 공원속에 외국인학생을 위한 기숙사촌이있다. 국가가 무료로 외국학생을 공부시키는 프랑스인들의 자부심도 대단하지만 언뜻 눈에 드는 기숙사

촌의 분위기가 감탄스럽다. 로 포르뷔제의 스위스 학생관과 브라질 학생관을 보았다. 건축공부의 시작부터 압도되었던 포르뷔제의 작품을 보게되었다. 하바드의 카펜터센터이후 처음 다시 그의 작품을 본다. 숲속에 문득 나타난 스위스학생관은 우선 아름답다. 이십여년전 사진에서 보던 선언적 분위기보다는 오래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벨로티워 정면창의 조화로운 강함은 옥상의 터진 벽과 벨로티의 강인한 디딤과 아름다운 비례를 이룬다. 벨로티 밀물지나 낮고 넓게 펼쳐진 지층과 계단탑으로의 내부공간 전개는 포르뷔제적 공간의 유연한 흐름과 변조를 과시한다. 뒷측 지층부의 경사진 돌담과 계단실 그리고 복도 뒷벽벽면의 접침은 그러나 좀 혼란스럽다. 과격이 영켜 의도는 알겠는데 억지스럽다. 당게씨의 대학원 졸업설계가 이 건물의 모방이었고 특히 이 뒷면에 강한 영향을 받고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웃는다. 그러나 자유스러운 지층부, 벨로티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토지, 병목공간과 이를

틈 매카서를 만난다. 잠시만이었던것 같은데 벌써 석달이다. 도면을 보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다. 거의 완벽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문제가 아직 또 있다. 스테이지 도아의 위치와 기능, 소극장의 장치 반입, 조명 형식등에 아직 허술한 구석이 많다. 의상실이나 디자인룸의 실지에 익숙하지 않아 다이어그램식으로만 정리한 셈이다.

차를 탄다. 안내판의 로마, 부다페스트, 모스크바등의 글자를 이상한 나라에 온 듯한 느낌으로 본다. 시내길가에 그냥 연결되어 있는 보통 지하철역에서 천리 만리 어느곳으로든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사실같지가 않다. 한 인간의 상상력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철저히 왜곡될 수 있다니. 기차는 모든 좌석에 문이 달려있다. 비비칸 센터의 세익스피어극장 같다. 오래된 주철제의 역사를 지금도 고치고 있다. 최근에 고치고 덧 붙여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플랫폼은 신선하고 밝다.

철길 연변의 집들은 속도속에 놓여진 어디서나 비슷한 건물들이다. L군의 집은 기차역에서 15분가량 산으로 들어간다. 산길이 녹음에 젖었다. 산림속같은 길은 그러나 곧 집집들이 들어선 조그만 마을로 이어진다. 떠엄 떠엄 집들이 서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펼쳐지는 아랫정원과 넓은 숲들은 전혀다른 한 세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띄어 떨어진 곳의 또한 분위기는 자신속에 단계적으로 침잠되어가는 회화적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 목조집 특유의 밝음이있다. 서울서 10여년 떨어져사는 가족들 한가운데 앉아 모처럼의 서울식사를 즐긴다. 먹고 마시고 취해서 다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소파에서 두시간을 잤다. 밤12시가 되어서 호텔로 돌아온다. 호텔로 오는 자동차길은 기차길과는 또 다른 정경이다. 마을가운데를 차가달린다. 숲이있다가 마을이 나타나고 다시 숲이 나타나면서 런던으로 향한다. 줄울선 삼층 집들이 길에 나란하게 든든한 무게를 하고 서있다. 단순한 형식속의 유머러스한 변조들이 마을마다의 독특한 분위기를 이루고있다.

틈 매카서를 만난다. 잠시만이었던것 같은데 벌써 석달이다. 도면을 보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다. 거의 완벽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문제가 아직 또 있다. 스테이지 도아의 위치와 기능, 소극장의 장치 반입, 조명 형식등에 아직 허술한 구석이 많다. 의상실이나 디자인룸의 실지에 익숙하지 않아 다이어그램식으로만 정리한 셈이다. 객석이나 무대는 이제 어느정도 되어 있으나 아직 뒷무대 형식은 디테일이 부족하고 조명, 음향등의 기술정보가 아직없어 평면의 윤곽이 실제적이지 못하다. 주무대와 옆무대및 뒷무대간의 연결장치도 아직문제다. 틸에게 부탁해서 연습실, 의상실, 디자인실등을 다시 본다. 마침 연습실에서는 저녁공연을 위한 리허설이 한창이다. 무대의 부분을 일부 만들어놓고 연출진이 죽 둘러 앉은 가운데 피아노 반주로 마치 실연같이 진행한다. 중간중간 중단시키고 소리지르고 신경질 내는 연출자를 본다. 무대위에 서는 사람, 뒤에서 일하는 사람,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 이것을 보는 사람—연극이나 오페라는 마치 인생의 축소같다. 의상실은 염색공장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서 염색에 바쁘다. 역시 이곳도 창고가 많이 필요하다. 디자인실은 모형실 같다. 여러 디자인너들이 그리고 만들고 있다. 최종의 것은 실지의 무대를 1/50정도로 만든 모형속에 모형으로 만든다. 색채와 디테일까지 다 만든다. 현장에서의 작업은 거의 확대만 하면 필정도까지 일한다. 프로세니엄 뒤의 복잡한 밑무대와 윗무대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 소규모 실연이 디자인실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대는 무대에 올려지고 비평되고 수정되면서 모델과 장면 창고에 수장된다. 디자인실의 창고는 발사로 만들어

진 모델과 도면으로 가득차있다.

이태리안 식당에서 오리를 시켜놓고 곤욕을 치렀다. 외국여행중 잘못 주문한 식사를 여럿 앞에서 먹어야 되는 일은 한마디로 난감 그 자체다. 식사에 초대 한 로빈·데이튼은 로열오페라하우스의 전설본부장이다. 극장은 처음이지만 프로그램, 건설, 재정, 경영, 기술의 모든 관련부분을 협동조정시키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내일 새로운 코벤트가든의 건설에 관한 여러자료를 얻기로 한다. 오후에는 틸과 앞으로 일주일간 작업할 계획을 세운다. 홍콩·아트·스쿨을 설계한 피터·엔지와와 로열·오페라하우스의 무대, 조명, 음향 담당기술자들을 하루에 한명씩, 만나고 폴리머스의 소극장은 주말에 보도록 한다. 와서 이렇게 일하면서 느끼는 일은 아직도 한참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일이 다 끝나고 AA스쿨을 견학한다. 그 유명한 학교가 배드포드공원 주위의 연립주택 일부를 쓰고 있을 뿐이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수와학생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영향력있게 한 것이다. 지하층의 책방은 아마 쓸만한 최근의 건축책은 다 모은것 같다. 일층에는 항상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복도에서 피터·룩이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이 보인다. 밤에는 피터-이이첸만의 강의를 있다. 약간 촌스러운 기분이 있었지만 33년이나 공연중인 퀴엣을 보러간다. 세시간전인데 도대체 표가 석장 남았다. 33년씩 한 공연을 계속하다니 그러나 과연 오래갈만하기는 하다. 무대도 훌륭하고 배우도 잘한다. 잘 아는 줄거리인데도 긴장감이 있다. 여퍼-서클의 객석은 많이 불편하지만 정작 연극이 시작되면서는 그런 느낌이 없을 만큼 시각이나 음향은 훌륭하다.

(다음호에 계속)